

2020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사)희망래일

# 제 출 문

## 서울특별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18

- 연구기관 : (사)희망래일
- 책임연구원 : 유동걸 (영동일고등학교, 교사)
- 연구원 : 정인숙 (경수중학교, 교사)  
인경화 (왕곡초등학교, 교사)  
안영옥 (경기평화교육센터, 사무처장)  
이성주 (경기평화교육센터, 연구원)
- 보조연구원 : 유영주 (사단법인 희망래일, 사무국장)
- 자문위원 : 황인구 (서울특별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양훈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이장원 (문화고등학교, 교사)  
김병연 (양재고등학교, 교사)  
임인출 (615남북공동실천위원회 성남지부, 공동대표)  
오지연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류협력국장)

(요약문)

#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유동걸

## 요 약

### ◎ 연구 목적과 필요성 및 연구 방법

- 연구 목적 : 남북 교류는 남북 관계와 미중의 정세와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을 같이 노정하고 있다. 기존의 남북 교류 특히 교육 교류의 경험을 통한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달라진 북의 현실에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남북교육교류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 연구 남북교육교류 준비의 필요성

남북 관계의 개선과 경색이 반복되는 가운데 언제 획기적인 변화가 올지 모르므로 기존의 남북교류 특히 남북교육교류의 경험을 통한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남북교육교류 사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 - 교육 교류에 대한 요구의 확산과 필요성

남북의 교육 교류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은 미래 세대의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므로 가장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이다.

② 남북의 교육 교류는 미래 남북한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과 평화변영의 의지를 심어주는 핵심 사업이다.

#### -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가 초청 자문 회의 및 보고회와 각종 설문조사 및 정책협의회 등을 진행하였다.

## ◎ 연구 내용

### I. 남북교육교류협력 경험 사례

#### ○ 남북교육교류의 경험 사례

- 과거 남북교육 교류는 크게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자 교류, 청소년 교류, 교육분야 지원 사업이다.

- 교육자 교류는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간 이루어졌으며, 남북 청소년 교류 사업은 주로 대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청소년의 경우 스포츠 및 문화예술, 역사유적 탐방 등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계기로 어린이 교류도 이루어졌다.

- 교육관련 지원 사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민간단체를 매개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지원 사업은 아동 급식 및 보건·영양개선 사업, 초중고대학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물자 지원등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을 병행하였다.

- 교육자 교류는 전교조와 한국교총 중심으로 교육자 교류 및 교육물자 지원 사업이 병행되었으며, 교육청 차원의 교류도 진행되었고 남북 청소년의 직접적인 교류는 아니지만, 금강산관광 체험학습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보는 등 간접적인 교류가 진행되었다.

### II. 동·서독 교육 교류의 경험 사례

#### ○ 동·서독 교육 교류의 경험

- 동·서독 교육 교류의 중심은 청소년 교류였으며, 분단 이후부터 양독 청소년단체 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후인 1974년부터 서독 학생들의 동독으로의 수학여행이 가능하였다.

- 1981년 동·서독 정상회담을 통해 청소년 교류의 새로운 장이 열렸고, 1986년 동·서독 『문화협정』이 체결되면서 교육 교류 및 대학 간 자매결연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 서독은 주(州) 정부에서 청소년 동독방문에 대한 권고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졌다.

- 서독 정부는 동독 학생들의 서독방문 경비도 지원해 주었다.

- 동·서독 청소년 교류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학급 단위의 수학여행, 동·서독 청소년단체 교류, 그리고 자매결연 형태였다.

- 청소년 교류는 학급 단위의 수학여행이 다수를 차지하였고(전체 75% 정도), 주된 동독 여행지는 동서독 공동의 역사문화 유적과, 동독의 협동농장, 국영기업체 등 동독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 동·서독 청소년 교류에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으며, 교사들에 의해 프로그램이 주도되었다.

- 동·서독의 교육 교류는 다른 분야의 교류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 II.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와 남북 교류 시사점

### ○ 남과 북의 교육 비교

- 남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이고 북은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교육 이념, 교육 목표, 교육제도는 다르다.

- 특히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북은 1972년부터 40년간 유지해 온 '11년제 의무교육체제'를 2012년에 '12년제 의무교육체제'로 변환하면서 교육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 교육정책에서는 ① 새 세기 산업에 맞는 '창조형', '실천형' 인재를 육성하고, ② 교육의 정보화를 이루고, ③ 세계적 교육 기준을 강조하며, ④ 새로운 교종을 창설하였다.

- 교과서와 교과과정도 소학교 13과목, 초급중학교 16과목, 고급중학교 22과목으로 새롭게 편제하였다.

### ○ 북 교육의 변화와 남북교육교류의 시사점

- 북의 교육체제 변화가 남북교육교류에 주는 시사점의 첫 번째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남북교육교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의 차이는 그대로 두고 같은 부분을 찾아내어 교류를 하려는 자세를 말한다. 두 번째는 남북이 모두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 기준에서 교류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세 번째는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북과 남이 교류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 IV. 시도 교육청 별 남북교육교류 현황

##### ○ 시도교육청별 조례 제정 현황

- 남북교육 교류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준비가 필요하다.
- 판문점 선언 이후 교육 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교육청이 늘어났다.
-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에 기금 조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 남북교육교류의 원칙

남북의 체제가 다르고 10년 동안 교류가 중단 상황에서 다시 교류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교육 교류 원칙이 필요하다.

- 남북교육교류의 첫 번째 원칙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 남북교육교류의 두 번째 원칙은 상호존중과 공리공영의 입장에서 진행해야 한다.
- 남북교육교류의 세 번째 원칙은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 ○ 남북교육교류의 절차

북은 조선노동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내각보다는 당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 ○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우리의 준비

- 첫째는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이다.
- 둘째는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 셋째는 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강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 넷째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남북교육교류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교류의 행위자인 학생, 교사, 교육청 및 시의회로 나누어서 각각의 행위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한다.

가. 학생

- 코로나의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① 남북학생 예술 작품 전시회, ② 교육 동영상 콘텐츠 교류 사업, ③ 코리아 청소년 온라인 바둑대회, ④ 국제기구 또는 해외동포 단체를 통한 사업을 제안한다. 비록 비대면 사업이지만 서로에 대한 생각과 통일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의 의미가 있다.

- 예술, 체육 분야 교류에서는 ① 경평 청소년 축구대회, ② 서울-평양 학생 예술단 공연, ③ 한강, 대동강 도하 수영 대회, ④ 수학여행 또는 체험학습 교류, ⑤ 독립운동가와 일본에 대한 공동 행동 등 공동의 역사 분야 교류를 제안한다.

나. 교사

- 교사 교육 교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① 남북 교사 상봉 모임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행되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② 교수법 교류로써 세계적 기준에 맞는 교수법을 상호 공유하며, ③ 계기별 공동 수업안 개발은 4.27, 6.15, 8.15, 10.4 등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기념일에 맞춰 공동으로 수업할 수 있는 수업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다. 교육청과 시의회

- 교육청과 시의회의 역할은 ① 남북교육교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 주며, ② 교사들이 평화지향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통일 교육지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③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3
다. 연구 방법	5
II. 남북교육교류협력 경험 사례	6
1. 남북교육교류의 범주	6
가. 남북교육교류의 개념	6
나. 남북교육교류의 범주	7
2. 남북교육교류협력 경험 사례	8
가. 유치중등교육분야 남북 교육자 교류 경험 사례	8
나. 청소년 분야 교육교류 경험 사례	15
다. 민간단체들의 교육교류협력 경험 사례	23
라. 고등교육분야 교육교류협력 경험 사례	30
마. 남북 학술분야 교류협력 경험 사례	32
바. 소결 및 시사점	40
III. 통일 이전 동서독 교육 교류와 경험사례	42
1. 통일전 동서독 교육 교류 협력	42
가. 동서독 교류협력의 개요	42
나. 동서독 교육교류의 중심 청소년교류	43



다. 청소년교류 유형 및 현황 .....	45
라. 동서독 청소년 교육교류의 특징 .....	47
마. 동서독 청소년 교육교류의 성과와 한계 .....	47
바. 동서독 학술분야 교류 경험 사례 .....	48
사. 소결 및 시사점 .....	50

#### IV.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교육의 변화와 남북교육교류의 시사점 .....

53

##### 1. 남북의 교육 비교 .....

53

가. 남북의 교육지표 비교 .....	53
나. 남북의 교육 이념과 목표 비교 .....	57
다. 남북의 교육 제도 비교 .....	59

##### 2. 김정은 시대 북 교육의 변화 .....

62

가. 김정은 시대 교육 정책의 변화 .....	62
나. 김정은 시대 교육 제도의 변화 .....	64
다. 김정은 시대 교육과정의 변화 .....	66

##### 3. 김정은 시대 북의 변화와 우리 인식의 변화 필요성 .....

71

가. 북 붕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	71
나. 기존 안보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	75

##### 4. 북 교육의 변화와 남북교육교류의 시사점 .....

78

#### V. 광역시도교육청의 교육 교류 현황 및 법, 제도적 검토 ...

80

##### 1. 사업 사례와 계획 .....

80

가. 광역시도교육청별 교류협력 .....	80
나.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 내 사업 계획 .....	81
다.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기금 상황 .....	83
라.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계획 방향 .....	84
마.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점 .....	85

## VI. 결론 -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준비와 제언 ..... 86

### 1. 남북교육교류의 원칙 ..... 86

### 2. 남북교육교류의 절차 ..... 89

### 3.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우리의 준비 ..... 92

가.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	92
나.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육성 .....	93
다. 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강한 정치적 리더십 .....	94
라.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 .....	95

### 4. 남북교육교류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97

가. 학생 .....	97
나. 교사 .....	103
다. 교육청과 시의회 .....	104

## 표 차례

[표 II-1] 전교조 남북교육 교류 주요 사업 .....	12
[표 II-2] 전교조, 한국교총, 교직동이 함께 한 행사 .....	13
[표 II-3] 제3국 접촉에 의한 남북 청소년 교류현황 .....	17
[표 II-4] 남북한 왕래에 의한 남북 청소년 교류 현황 .....	18
[표 II-5]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 만족도 조사결과 .....	20
[표 II-6]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현황(아리스포츠, 인천평화컵) .....	23
[표 III-1] 정부지원에 의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여행 현황 .....	46
[표 III-2] 연도별 동서독 청소년관여행 참가인원 .....	46
[표 IV-1] 남북의 학교 수 비교(2015) .....	53
[표 IV-2] 남북한 초등교육기관 학생 수 비교 .....	54
[표 IV-3] 남북 중등교육기관 학생 수 비교 .....	54
[표 IV-4] 남북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비교 .....	55
[표 IV-5] 남북 교원 수 .....	55
[표 IV-6] 남북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교 .....	56
[표 IV-7] 남북학급당 학생 수 비교 .....	56
[표 IV-8] 남북 학교급별 교사 연간 평균 수업시간 수 비교 .....	57
[표 IV-9]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	59
[표 IV-10] 남북 교육과정 용어 및 총론의 의미 비교 .....	67
[표 IV-11] 북의 개편된 소학교 교육과정 .....	68
[표 IV-12] 북의 개편된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	69
[표 IV-13] 북의 개편된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	70
[표 V-1] 교육청 남북교육교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80
[표 V-2] 시도교육청별 조례 현황 협력 사업 비교(2020.11.20) ..	82
[표 V-3] 남북교육교류 설문 기금 부분(2020.11.20.) .....	83
[표 V-4] 남북교육교류 설문 결과2(2020.11.20.) .....	84
[표 VI-1]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 의향 .....	96

## 그림 차례

[그림 IV-1] 남북의 학제 비교 .....	61
[그림 IV-2] 북의 일반교육 체계 .....	63
[그림 IV-3] 북의 변화된 학제 .....	65
[그림 IV-4] 변화되는 평양 도시 .....	73
[그림 IV-5] 김정은 시대 이후 건설된 건축물 .....	74
[그림 VI-1] 북의 교육 행정 체계 .....	90
[그림 VI-2] 북쪽 학생이 남쪽 학생에게 보내는 그림 편지 .....	98
[그림 VI-3] 평양 학생들의 대동강 도하 수영대회 .....	10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2020년의 한반도와 남북 관계는 많은 상처의 시간을 보내며 흘러왔다.

2020년 6월 16일 개성이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남측 인력 전원이 철수한 뒤, 매일 오전 9시, 오후 5시마다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화했다.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남북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남북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남북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완전 차단·폐기했다.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을 오가며 손을 잡고 남과 북의 번영과 평화 통일을 기약하며 도보다리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정상회담을 진행한지 2년 남짓한 세월 동안 한반도의 정세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돌이켜보면 최초의 정상 회담이 열렸던 2000년 6월 15일 정상 회담 이후에도 남북 관계는 냉온 관계를 거듭 반복해왔다.

그 동안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정세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해왔다. 정치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완화되면 민간 분야의 다양한 교류 협력도 긴밀해졌고,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열강과 북미 관계가 악화되거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남북을 가로막는 철조망의 높이는 점점 높아만 갔다.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은 급물살을 타다가도 한순간에 가로막히고 다시 분위기가 고조되다가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기를 반복해왔다. 아무런 준비 없이 냇 놓고 기다릴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 열릴지 모르는 남북의 통로를 외면한 채 일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과거의 역사가 들려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스스로의 주동성을 잃고 포기한 채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서고 나아가 언제든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한반도 국면을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의 남북 교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류의 목적과 방향, 성과와 한계, 의의와 과제 및 어려움 등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남북 교류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바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 각 영역에서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어야겠지만 교육 교류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해온 교육 지원 사업에서부터 출발하여 6.15 남북 공동수업에 이르기까지 교육 교류는 주로 어린이어깨동무 등의 민간단체와 교총과 전교조 등의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정부나 교육 기관이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부족하고 사회적 갈등요소가 상존하며 국가보안법이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엄격하다보니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쉽게 교육 교류의 주체로 나서지를 못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일이라 당장의 현안으로는 늘 밀리기가 일쑤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아직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나 이념적 접근이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나 북과의 만남 자체는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성세대에게는 미래의 세계를 짚어질 청소년들에게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가 기다리는 세상을 만들어줄 책임이 막중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다. 행여나 교육 교류가 정치나 이념에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보다는 능동적으로 평화와 협력의 만남이 가능한 만남과 교육의 장으로 바뀌어나가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평화로운 남북관계 실현을 위해서 교육 교류 분야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

교육 교류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

첫째, 대립과 반목에 갇힌 과거의 낡은 역사관을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오랜 세월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다. 분단 이후 전쟁이라는 최악의 경험을 마주하다 보니 적대와 불신의 시간이 짧지 않았다. 다행히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나 아직도 낡은 과거의 이념을 가지고 북을 바라보거나 거꾸로 북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상상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기에 이념의 색채를 덧씌워 무조건 북을 비방하거나 미화 혹은 찬양하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이념과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교류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자체가 새로운 세대의 정신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세계관과 미래관을 길러내는 일이므로 철저하게 자유와 평등, 평화의 기준점을 잃지 않으면서 낡은 역사관이 아닌 미래 역사관을 바탕으로 교류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의 교육 교류는 6.15 공동 정신과 4.27 판문점 선언의 맥을 이어야 한다. 남과 북의 상호 존중과 평화 번영의 대의 아래서만 교육 교류의 가치와 실천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와 학생 등 실질적인 교육 주체가 전면에 나서서 남북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비록 단속적으로 이어져 오기는 했지만, 우리에게서 이미 다양한 통로를 통한 남북 교육교류의 경험이 있다. 한때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몇몇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오기는 했지만 교육 교류의 역사로 보자면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여기서 얻은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주체들 간의 직접적인 만남의 의의다. 교육 당사자들이 서로의 소중한 교육 경험을 나누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과 교육 교류에 관심 있는 교사들의 교육과 참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생들 또한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당당한 교육 교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체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교육 교류의 주체들은 상호 존중과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기약하는 6.15 공동 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의의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교류에 대비하여야 한다.

셋째,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과 교육청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온 교육 교류가 맥이 끊긴 바탕에는 국제 정세와 남북의 정치 군사적인 요인이 크지만 과거의 교류 주체가 교총이나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남과 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및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교육 교류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단위 학교 현장을 연결하면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고, 교육기관과 민간단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단순 지원과 교육 활동 참관 등에 머물렀던 과거의 교육 교류와 다른 차원의 협상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과 관과 학교 현장이 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남북교육교류를 추진하는 강한 구동체가 될 수 있다.

##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북 교류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의미를 찾고자 진행되었다.

판문점 선언으로 긴장 완화가 형성되고 평화 기류가 급물살을 탄 2018년도만 하더라도 교육 교류를 포함한 남북의 각종 교류는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문

화, 예술, 스포츠 등의 교류와 함께 교육 교류의 활성화도 기대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과 북의 각종 교류는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차단되고 말았다. 대북 제재와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교류 재개의 상황도 매우 불투명하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남과 북의 교육 교류를 예측하고 꾸준히 준비를 해왔더라면 어땠을까? 평소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막상 정세가 급변하면 그때서야 뜨거운 냄비처럼 남북 교류 사업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차분하고 꾸준히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우리에게 교육 주체들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비록 당장은 교류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할지라도 북미 협상이나 남북 관계의 진전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교육 교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의 교육 교류 실현을 위한 기구의 형성, 기금 축적을 통한 예산의 확보, 남북의 접촉과 실행에 대비한 각종 법령의 검토 및 개정 등이 선행되고 거기에 남북의 교육 교류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등이 기획되고 준비된다면 남과 북의 교육적 만남은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나 교육청, 현장 교사들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단체나 현장교사가 할 수 없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역할이 중대하다.

본 연구는 4.27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몇 년간 이루어온 남북교육교류의 준비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는 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제언에 앞서 각 장마다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는 바

1장에서는 서론으로 남북교육 교류의 의미와 목적

2장에서는 남북교육교류의 경험사례

3장에서는 통일 이전 동서독 교육 교류와 시사점

4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교육 변화와 교육 교류의 시사점

5장에서는 전국 광역시도교육청의 남북교육 교류의 현황과 법적 검토

6장에서는 결론으로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준비와 제언

아직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남북의 교류 상황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평화와 통일의 햇살이 다시 비추고 안개가 걷히는 날 본격적인 남북의 교류가 추진되고 특히 교육 주체와 당사자들 간에 교류 추진이 이루어질 때 모쪼록 본 연구가 각 시도 교육청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기를 바란다.



## 다.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그동안의 남북 교류 중에서 교육 교류 관련 중심으로 경험 사례와 정책연구보고서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분단과정에서의 동서독 교육 교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행연구들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연구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특히 남북교육교류는 교류 경험 자체가 많지 않다.

### 2)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를 통해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내용을 설정하였다. 먼저 남북교육 교류, 관련 조례, 교류 수행 경험 및 향후 계획, 민관거버넌스 구축, 청소년교육 교류의 방향 등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설문조사 구성에 관한 자문, 세 번째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과 조언, 네 번째는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3)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과 더불어 전국 시도교육청 통일관련 업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총 9문항에 대해 선택 및 단답 서술형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남북교육교류협력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상황과 향후 남북교육교류 계획 내용 등이다.

### 4) 정책협의회

본 연구가 통일의 기반이 될 남북교육 교류의 준비와 관련된 정책연구로 추진되기 때문에 남북한 교육자, 학생청소년(대학생포함), 대학교원(학술교류)간, 민간단체 교육지원 사업 등 다양성 인정과, 정보지식사회에 조응하는 정책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를 추진하였다.

## II. 남북교육교류협력 경험 사례

### 1. 남북교육교류의 범주와 개념

#### 가. 남북교육교류의 개념

교류는 대상이나 내용, 학문이나 학자에 따라 그 내포와 외연을 달리하지만 사전(事典)에서의 교류(交流)의 뜻을 보면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이어 흐름. 또는 그런 줄기”<sup>1)</sup> “문화나 사상 등이 서로 통하는 것”<sup>2)</sup>,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물건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것.”<sup>3)</sup>, “나라들 사이나 지역들 사이에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등을 서로 소개하거나 주고받는 것”<sup>4)</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류는 서로 다른 물줄기가 섞이어 흐르듯 서로 다른 개인, 지역, 나라 사이에서 물건이나 문화, 사상 등의 성과나 경험 등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교류는 교류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의 개념이 내포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인적교류가 핵심이 된다. 물적 교류 역시 인적 교류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적 교류는 사람, 생각, 경험, 가치 등을 교환하는 것이다. 즉, 만남을 통하여 생각과 경험 등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물적 교류는 물건을 교환하는 것으로, 경제 교류, 정보 교류 등을 말한다.<sup>5)</sup> 따라서 남북교육 교류는 남한과 북한의 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각기 이룩한 성과나 경험, 물품들을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교류’의 개념은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정보나 메시지의 교환과정을 의미하는 ‘접촉’과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는 ‘왕래’의 개념을 포함하여 사용한다. ‘협력’은 특정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을 의미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교류협력 내용은 ‘출입장소, 교역’<sup>6)</sup>, ‘반출·반입’<sup>7)</sup> 협력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남북한 방문’(제9조), ‘남북한 주민접촉’(제9조의2), ‘남북한 교역’(제12~15조), ‘협력사업’(제17~20조)으로 구분하여 그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남북교육 교류는 남북의 교육 관련 당사자 사이의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 협력 사업을 의미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천재학습대백과』

3) 『보리 국어사전』

4)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

5) 김창완 외, “남북 청소년 교류 추진 방향 연구(전자자료).”(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2013), pp. 21~22 참조.

6)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7)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한다.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제2조4항)8)

#### 나. 남북교육교류의 범주

남북교육교류의 범주는 크게는 인적교류와 물질 교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교류는 남북의 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방문하거나 접촉하는 것이다. 남북교육관련 당사자들의 교류는 일차적으로 교육자(교원단체 포함)와 학생의 교류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자 교류는 유·초중등교원 교류와 이를 관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교류, 대학 교원의 교류로 나눌 수 있고, 학생 교류는 유·초중등학생(청소년)과 대학생의 교류로 나눌 수 있다.

교육 교류 사업에서 물질 교류는 협력사업과 범주화 또는 주체 구분이 모호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했듯이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이 공동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육자(교원단체)나 교육청, 민간단체가 대북 교육 교류 사업을 수행할 때 대부분 북한의 교육관련기관을 상대로 물질 교류와 협력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교류·협력사업 주체도 민간단체들이 대북사업을 수행하면서 남한의 교육자나 교원단체, 교육청 등을 연계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 교류와 협력 사업을 하나로 범주화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교류나 물질 교류의 구분도 모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물질 교류(협력사업) 역시 인적교류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물질 교류(협력사업)의 범주를 교육단체나 민간단체가 주도한 북한의 학교교육기관, 어린이, 학생과 관련된 모든 협력사업 즉 학교(영유아 시설, 유치원포함) 및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물자물품(교과서용 종이, 교육기자재, 학용품 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교육현대화, 학교 개보수 등), 영양·보건 분야 사업을 포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금까지 남북교육 교류는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자가 중심이 된 교육자 교류(대학 학술교류포함)’, ‘청소년(유초중고대학)’, ‘민간단체 중심의 북한교육지원 사업’ 등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교육 교류를 ‘교육자 교류(학술교류포함)’, ‘청소년 교류’, ‘민간단체 교육지원 사업’으로 범주화 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교육자(교원단체)가 중심이 된 인적교류와 물질 교류(협력사업)는 ‘교육자 교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교육 교류사업에서 물질 교류(협력사업)는 사업 주체의 목표와 지향이 인적교류(교원,

8) 통일부(200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참조.

학생)에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sup>9)</sup> 또 하나 교육 교류에서 교원단체들이 민간단체를 통해 대부분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교육자 교류(물적 교류)와 민간단체 교육 분야 지원 사업 내용 중에는 중첩될 수도 있음을 밝힌다.

## 2. 남북교육교류협력 경험 사례

1980년까지 교육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협력은 극히 제한적 분야에서만 이루어졌다. 제3국에서 남북한 학자들의 접촉이나 학술대회, 학생운동을 주도해온 대학생들의 방북 행사나 교류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남북한 교류 협력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1995년 경제난으로 어려워진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요청을 하였고,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북포용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의 급속한 진전이 있었다.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남북한 학자교류, 유치원, 초·중고·대학 등 북한교육기관 방문과 남북 교육자 및 학생 교류를 허용하였다.<sup>10)</sup>

### 가. 유초중등교육분야 남북 교육자 교류 경험 사례

유초중등교육분야 남북교육자 교류는 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이하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참여하였다. 남북교육자 교류는 인적교류와 물적 교류, 교류협력 사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교과서용 종이 지원을 시작으로 실무 접촉, 교육자 상봉모임, 교육자대회, 공동계기수업, 교육공동본부 결성, 학교교육기관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교구비품·물품, 교사 신축 및 개량사업 물자지원, 학용품공장 설립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교육청, 학생 청소년, 대학교원(학술분야), 민간단체(물적 지원)들도 참여하였다.

여기서는 각 단체들의 교류 경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자 교류에서는 전교조의 교육경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분단 이후 최초의 교육 교류 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수차례 교류하며 상호 교육 교류의 방향성을 협의해왔기 때문이다.

#### 1) 전교조의 남북 교육자 교류<sup>11)</sup>

9) 정영철 외,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과제도출 및 지원 방안』(교육부, 2018), p. 8.

10) 신호숙, '남북한 교육·인적자원 교류협력 추진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pp. 27~28 참조

11) 교원단체 남북 교육자 교류는 전교조통일위원회, "남북해외교육 교류백서 1989~2020," (서울:

#### 가) 전교조의 남북 교육자 교류의 시작

2003년 7월 29일 전교조는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교육 교류의 물꼬를 텄다. 이는 부문별, 단체별 남북 교류의 첫걸음이었다. 남북교원들이 만나 모임을 갖고 6.15남북 공동선언 실천과 민족교육을 주제로 상호 입장과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친선을 다졌다.

사실 전교조는 창립 당시부터 남북 간 교원교류를 제안하였고, 1990년 11월 10일 '8.15범민족통일 교육자대회 초청 및 예비회담'을 제의하였는데 이것이 향후 교육 교류의 토대가 되었다.<sup>12)</sup> 이후 1992년 일본 교직원노동조합이 개최한 '아태지역교육포럼'에 위원장이 참석해 북한의 '조선 교육 및 문화일꾼직업동맹(이하 교직동)'의 대표와 만났고, 2002년 10월 전교조 교원 실무대표가 평양에서 북한 관계자와 '남북교육자 대표자 회의, 교원대회, 방북전학단, 교육문화교류, 협력사업' 등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의 사전협의를 하였다.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의사 타진을 이어가던 중 전교조의 남북교육 교류가 본격화된 곳은 2002년 북한에 교과서용 종이 보내기 사업을 시작하면서이다.<sup>13)</sup>

#### 나) 남북 교육교류 기금 조성 및 교류 활동 본격화

전교조 '통일위원회'는 2002년 4월 북한에 교과서용 종이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6·15 교사 실천단(이하 6·15 실천단)'을 조직하면서 남북교육교류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6·15 실천단의 후원기금으로 2002년 8월 교과서용 종이 60여 톤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이하 우리민족)'를 통해 북으로 보냈으며, 같은 해 10월 모니터링을 위해 3명의 교사가 방북하여 북한의 교원단체인 '조선교육회'<sup>14)</sup>와 회담을 통해 북한의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하 교직동)에 교류를 제안하였다.

전교조는 6·15 실천단을 통해 매년 1억 5천여만 원의 북한교육지원기금을 모금할 수 있었으며<sup>15)</sup>, 2004년 조합비 예산 중 5천만 원 상당의 남북교육 교류기금을 조성하여 연간 2억 원에 이르는 교육 교류 기금을 확보하였다. 이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를 통해 북한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하였다.

#### 다)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89~2020)와 본 연구자의 3차례의 방북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2) 전교조통일위원회, "남북해외교육 교류백서 1989~2020,"

(서울: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0), p. 3.

13) 정영철 외,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과제도출 및 지원 방안』(교육부, 2018), p. 18.

14) 새 세기 과학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방향으로 북측 교육을 해 나가는 데 지원할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조직. 내각성의 보조 조직 성격, 시도까지 조직, 소·중·대학교원으로 구성

15) 전교조는 장기간 남북교류의 중단과 실천단 기금 모금액의 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 문제로 2015년 8월 '6·15 교사실천단'을 해체하였다.

전교조는 2003년 1월 120톤의 교과서용 종이를 보내면서 대표단 5명이 방북 (2003.1.20.~1.25.)하여 교직동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교육자 상봉에 대해 제의하고 협의하였다. 2003년 7월 29일~8월 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전교조 방북단 121명과 교육관련 인사 및 정부 당국자 9명 등 130명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여 8월 1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교육자 교류인 '6·15공동선언실천과 민족교육 발전을 위한 남북교직원 상봉 모임'을 개최하였다.

전교조의 남북교육 교류의 목적은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교원들의 방북 경험을 통해 그동안 관념적으로만 이루어져 온 통일 교육을 산 경험에 의한 생생한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 또한 향후 교사들과 학생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으로 이어져 서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실제로 교육자 교류 기간 동안 전교조 교사들과 동행한 교육관계 인사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워진 북의 현실을 목도하자 '수돗물 한 방울이라도 더 아껴주고 가자'는 마음을 피력하였고, 북한의 상점에서는 양손 가득 물건들을 구입, 조금이라도 북녘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려고 하는 모습에서 인적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주요 방북일정은 교육기관과 남북공동문화유산 견학, 문화예술공연관람, 백두산과 삼지연 관광, 남북교원상봉행사, 평양시내 관광 등으로 이루어졌다.<sup>16)</sup>

상봉모임에서는 행사 주제인 '6·15공동선언실천과 민족교육 발전'에 대한 상호 견해를 주고받았다. 민족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자기 민족을 알고 통일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키워내야 하며, 우리 조상 전례로 내려오는 상부상조 미풍을 살려 남북교육자들 사이에 서로 배우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남북의 교육자들은 상호 공통성도 있으나 포괄범위와 성격, 활동 내용에서 차이가 나고 활동 조건과 환경도 같지 않으므로 공통성을 살리고 차이점은 극복해 가는 방향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자고 하였다.

2005년 10월 7일~8일에는 '교육자평양문화유적 참관'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3박 4일간 평양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교육본부(전교조, 한국교총, 교직동)'의 주최로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2차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전교조 50명, 한국교총 50명이 참가하여 북측 교원들과 상봉하였으며 모란봉제1중학교, 백두산, 삼지연 일대, 묘향산, 평양 시내를 둘러보았다.

#### 라) 남북교육자 통일대회 및 남북 공동수업 실시

16) 교육기관은 9.15평양 주탁아소, 창광유치원, 평양 4소학교, 모란봉제1중학교,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교육기관인 인민대학습당을 견학하였고,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는 서울에서 공연을 했던 평양소년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남북공동문화유산으로는 묘향산 보현사를 둘러보았다.

2004년 7월18~7월20일까지 금강산 김정숙휴양소<sup>17)</sup>에서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남측 교원 및 교육관계자 447명, 북측 교원 300여명(교원 및 교육관계자 250명, 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2003년 1차 교직원 상봉 모임 당시 전교조가 북측 교직원에게 제의하여 성사되었다.

“남북교원 3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평화롭고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역사적 사명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고 밝히고 공동 실천사항으로 교육부에서 ‘6.15공동선언 적극실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사상과 제도, 이념을 넘어선 민족의 평화와 단합과 통일을 위한 상호 연대와 협력의 강화’를 결의하였다.”<sup>18)</sup>

2005년 3월 3일~5일 전교조와 한국교총, 북의 교직동은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 및 교육 관련 공동행사에 함께하였다. 이어 4월에는 대표자 회담을 통해 6월 13일~18일을 ‘남북공동 교육주간’으로 설정하고 남북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북측 교직동도 같은 기간에 교육행사와 공동수업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12월 19일 북측 개성시 자남산여관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를 개최, 대표자회의에는 남측교육자대표 45명과 북측교육자대표 20명이 참가하여 6.15공동선언 5주년에 남과 북의 교육자들이 실천한 남북공동수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남북교육자들의 폭넓은 만남을 위한 교육 교류와 교류협력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6년 ‘6.15민족대축전기’인 6월 2일에는 북한 교육자 대표단이 남한을 방문하여 광주 무진중학교에서 실시된 6.15남북공동수업을 참관하였다.

2008년 5월 29일~30일에 금강산에서 제2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교육자대표자회의’ 개최, 전교조만 20명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 교육자들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여 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교육자들의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sup>19)</sup>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모든 남북 교류가 중단되면서 남북 교육자 교류도 중단되었다. 그러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8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한 교직동 위원장과 전교조 위원장이 상봉하였고, 같은 해 10월 3일~5일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11주년 기념 및 민족통일대회’에 전교조 위원장이 6.15남측위원회 교육본부 대표로 참가, 북측에 교류 사업을 제안하여 11월

17) 현 외금강호텔

18) 전교조, 한국교총 보도자료, 2004.7.21.

19) 공동보도문은 6.15, 10.4선언 지지 실천과 6.15공동수업 진행,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진행, 남북교육단체들간 연대협력 활동 강화, 독도 지키기 투쟁 강력 전개를 담았다.

25일 중국 심양에서 실무접촉을 가졌다.

[표 II-1] 전교조 남북교육 교류 주요 사업

일자	교류사업명	공유내용	비고
1990.11.10	8.15범민족통일 교육자대회 초청 및 예비회담제의		교육 교류 토대가 됨
2003.1.20.~25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전교조 대표 5명 평양 방북	남북교원 교류협력 제의 학생 청소년교류, 교육과정 공동연구, 교육자료 교류 필요성 논의	교과서용 종이 120톤 지원. 북측 교직원 부위원장 참석
2003.7.29.~8.2	6·15공동선언 실천과 민족교육 발전을 위한 남북교직원 상봉 모임	교원의 역할, 연대와 협력 사업 필요성 공유	평양/전교조 방북단 121명과 교육관련 인사 및 정부 당국자 9명 등 130명 방북
2004.7.18.~20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	남측제의: 통일 교육자대회를 정례적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교육문화교류발표회와 일정 규모의 교원연수단 교류 공동 결의문 채택: 자라나는 세 세대들에게 평화롭고 부강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역사적 사명이라는데 뜻을 같이함	금강산 전교조, 한국교총, 교직원 참여, 남측교원 등 450명, 북측 교원, 학생 등 350명 참여
2005.6.13.~18	6.15공동선언 발표 5주년 남북공동 교육주간 설정 남북공동수업 실시	남북이 함께 실시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만든 공동교재로 전국 2만여 학교에서 공동수업을 실시
2005.10.7~8	6.15민족공동위원회 교육본부(전교조, 한국교총 교직원) 주최 교육자평양문화유적 참관	평양 시내 문화유적	평양 전교조, 한국교총 100명 참석
2006. 6.2	6.15민족대축전기간 6.15남북공동수업 실시	북측 대표 남측 방문, 학교 수업 참관	광주 무진중학교
2007.8.6.~9	2차 남북교육자 상봉 모임	전교조, 한국교총 100명 평양 방북	
2008.5.29.~30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교육자대표자회의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자들의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	금강산 전교조 교사 20명 참석



[표 II-2] 전교조, 한국교총, 교직동이 함께 한 행사

연도	장소	주제	비고
2005.6.14.~17.	평양	6·15 통일대축전	교육계 대표로 참석
2005.8.15.	서울	8·15 민족대축전 참가	
2005.12.19.	개성	남북교육자대표단 모임	교총과 전교조 대표단 45명, 교직동 20여 명 참석
2006, 6·15.	광주	통일대축전	북한 교육자대표단 남한 수업 참관 (광주 무진중)
2007.8.6.~9.	평양	남북교직원 상봉 행사(2차)	전교조와 한국교총 50명씩 100명 참가, 북한 교직동 300명 참가
2019.2.12.~13.	금강산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전교조와 교총 10명 참가

2019년 2월 12일~13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4.27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중 ‘남북교육대표자회의’를 개최 전교조와 한국교총에서 10명이 참가하였다.

마) 전교조의 북한 교육지원(물적 교류, 협력사업)사례

북한교육지원 사업 재정을 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6.15교사실천단’을 조직한 후 2003년 1월부터는 전교조 조합비에서 0.2%씩 적립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나갔다. 교육지원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본다.

전교조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교육지원 사업을 진행 하였다. 교육물자지원으로는 북녘 학생들의 교과서용 종이 약 1,004톤(6차례에 걸쳐 지원), 교육기자재 및 학용품, 교육현대화 사업지원은 교육용TV 250대, 교육용 실사출력기, 교육용 음향설비, 학용품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이다. 학교개보수 및 교육활동 관련 지원은 학교지붕 사업 보수 및 통학버스지원 등 3억 1천만 원 상당, 영양·보건 분야 지원은 룡천소학교 의약품지원, 수해복구 긴급지원, 콩우유 기계 및 콩우유 원료(1년분), 통일쌀 등 9천 8백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지원 방법은 직접 지원과 민간단체인 우리민족과 겨레하나를 통해 지원하였다.

2) 한국교총 남북 교육자 교류 사례

가) 한국교총의 남북교육자 교류 제안과 남북교육자 통일대회 참가

한국교총은 1992년 일본 교직원노동조합이 개최한 ‘아태지역교육포럼’에 참석하여 북측의 교직동의 대표에게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후 전교조가 북측의 교직동에 한국교총과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북과 한국교총이 동의하면서 성사되었다. 따라서 한국교총의 남북교육자교류는 2004년 7월18~7월20일까지 금강산 김정숙휴양소<sup>20)</sup>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에 200명이 참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교총이 전교조와 북측 교직동과 함께한 교육자 교류 사업은 6.15통일대축전(2005, 2006), 8.15민족대축전(2005), 남북교육자대표단 모임(2005), 남북교직원 2차 상봉모임(2007)등이 있다.

그러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7월에 북측의 교직동에 '남북교육자 교류 제안'을 하였으며, 같은 해 같은 해 10월3일~5일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11주년 기념 및 민족통일대회'에 한국교총 회장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 의장단 자격으로 참가하였고, 같은 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 한국교총 대표단이 참석해 북한 대표단과 회담하였다.<sup>21)</sup> 이어 2019년 2월 12일~13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판문점선언과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중 '남북교육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전교조와 교총에서 10명이 참가하였다.

#### 나) 한국교총의 북한 교육지원 사업 사례

한국교총은 남북 교원 3단체와 교육자 교류를 하면서 북한의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였다. 2004년 4월에서 7월 사이 북한 평북 룡천역 열차 폭발사건을 계기로 '북한 교육 동포 돕기 성금 모금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1,300여개 학교 3만 5,0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여 2억여 원의 성금을 모아 북한에 교육물자지원으로 학생들 교과서 제작용 종이를 지원 하였고, 같은 해 12월 교육현대화 사업지원으로 DVD플레이어 겸용 25인치 컬러TV 100여 대를 전달하였다. 또한 전교조와 함께 진행한 6.15공동수업주간에 판매한 '통일사탕' 판매수익금과 통일부 지원금을 합해 교육기자재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고, 교육용 실사출력기와 특별활동용 버스를 개성공단에서 전달하였으며, 2006년에는 2차례에 걸쳐 평양 창덕학교 개건공사에 물자를 지원하였다.<sup>22)</sup>

### 3) 교육청의 남북 교육자 교류 경험 사례

#### 가) 교육청의 북한 교육지원 사업 사례

2003년 서울시교육청은 북한에 교육물자지원으로 서울시 초중고에서 모금한 성금 2억 5천만 원으로 TV 등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였고, 2004년 룡천역 폭발사고 시에는 교육용기자재와 상당한 성금을 지원하였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용기자재를 지원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데 폭발사고로 파괴된 학교시설을 세우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20) 현 외금강호텔

21) 정영철 외,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과제도출 및 지원 방안』(교육부, 2018), pp. 22~23 참조,

22) 정영철 외,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과제도출 및 지원 방안』(교육부, 2018), 22 참조.

조성한 것은 기존의 식량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sup>23)</sup>

전북도교육청은 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이하 전북겨레하나)와 함께 2006년 8월 9일 2억 6천만 원 상당의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하였는데, 전북겨레하나가 학생과 시민들에게 모은 성금 1억 6천만 원에 전북도교육청예산 1억 원이 더해졌다. 이 사업은 전북도교육청이 전북겨레하나를 통해 2005년 10월과 200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교육 현대화를 위한 방북단'의 일원으로 방북하여 북한 교육시설을 참관한 후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통해 필요한 교육물자가 교과서용 종이임을 확인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사업이다. 특히 방북단 대표로 학생 2명을 참여시켰으며, 사업 성격을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 규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비정치, 비군사적이고 인도적 남북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24)</sup>

전남교육청은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에서 매년 10억여 원의 남북교류협력 재원을 조성하는 모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룡천역 폭발사고 후 어린이 돕기 모금사업에 참여하였다. 인천시는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모금 운동에 나서 전국에서 취합된 물품들과 함께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직항로로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였고, 2004년 6월~8월에는 인천지역 언론사(경인일보사)주체로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적십자사 등의 협조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2억 4천만 원 상당의 성금을 모으기도 하였다.<sup>25)</sup>

## 나. 청소년 분야 교육교류 경험 사례

### 1)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현황

#### 가) 2009년 남북교류 중단 이전 청소년 남북교류사업

2009년을 전후하여 남북 교류가 중단되었기에 중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청소년 남북교류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이행 형태는 1990년대 전후 정부 단일창구로 한 추진 형태였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운동권 대학생들 중심으로 창구 단일화에 대해 거부하며 통신 및 서신, 방북 등 비합법적 차원의 교류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합법적인 교류의 활성화는 운동권 외 일반 대학생들의 통일운동 관심을 유발시켰고, 이들로 하여금 정부 허가를 통한 대북 교류 시도의 계기를 제공하였다.<sup>26)</sup> 제도권 내에서 대학

23) 윤종혁 외, "북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p.63.

24) 윤종혁 외, 위의 연구, pp. 64~65 참조.

25) 황교육, 『지방의 남북교류협력 변화과정 연구』 (인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p. 1

26) 길은배,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청소년 교류·협력 이행 실태 분석: 1990년대 남북 청소년

생 교류 사업은 비공식·공식 접촉 등이 있었으나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이후 1996년까지 남북청소년교류 제의를 포함하여 남한에서 제의한 35건의 청소년 분야 교류 사업 중 북한 측이 수용한 것은 1건 뿐이었다.<sup>27)</sup> 성사된 1건은 ‘제10회 아시아육상경기’에 참가한 북한선수단의 안내와 통역을 위하여 장선덕(필리핀 마닐라 대학)등이 정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사례다.<sup>28)</sup>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제3국을 통한 국제행사에 참여,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교류가 진행되었다. 즉, 전국 대학생 동아리 모임으로 구성된 ‘대학원리연구회’가 조직되어, 이들의 주최로 정부의 승인 아래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가 열렸다.

1995년 2월 5일~2월 9일까지 북경에서 남북한을 비롯한 31개국 대학생대표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3차 세계대학생 평화세미나」에 남한 대학생 178명, 북한 대학생 56명이 참가하여 「21세기 새로운 문명과 청소년의 역할」이란 주제로 상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는데 남북학생들이 함께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와 토의는 관심을 집중시켰다.<sup>29)</sup>

1997년 9월 13일~9월 1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에 참가한 남북 대학생들은 토론 후에 노래 고향의 봄, 반달, 아리랑, 민속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닭싸움 등을 함께하며 문화적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996년 4월에는 미국 버클리 대학 한국학위원회의 주최로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공식적인 정부승인의 절차에 의해서 대학생 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한계점도 있었다.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던 교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sup>30)</sup>

1990년대 남북한 스포츠 분야 청소년교류는 공동팀 구성 및 출전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사되지 못했다. 1991년 5월 10일~17일까지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평가전을 위하여 오완진 단장 등 70명이 평양을 방문하였고, 이 일환으로 북측의 이명성 단장 등 70명이 서울을 방문하여 평가전을 치렀다.<sup>31)</sup> 또한

교류·협력 형성기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제7권 제3호 (2010년 9월), p. 195 참조.

27) 길은배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연구 : 청소년 분야의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p.113 참조.

28) 길은배, 위 논문, p.115.

29) 세계일보, 1995년 2월 7일, “남북대학생 통일 열띤 토론/「세계대학생 평화세미나」 북경서 개막”

<https://blog.naver.com/manyoungji/41032637> (검색일: 2020. 12. 2.)

30) 김창환 외, 『남북 청소년 교류 추진 방향 연구』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2013), p. 29.

31) 길은배, 박사학위논문, p. 119.

1991년 5월 27일~6월 4일까지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 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북 청소년 교류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2)</sup>

[표 II-3] 제3국 접촉에 의한 남북 청소년 교류현황

분야	주최	행사명	행사일시	참석규모
학 술 분 야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세계평화청년연합회	제1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 * 주제: 21세기 새로운 가치관과 기존 가치관의 재평가	'94.2.11~18. 모스크바	남41/ 북5 (6개국 200명)
	전국대학원리연구회	제2차 세계학생지도자 과학평화회의 * 주제: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의 청년의 역할	'94.6.21~25. 베이징	남41/북21 (19개국 170명)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세계평화청년연합회	제3차 세계대학생 평화세미나 * 주제: 21세기, 새로운 문명과 청소년의 역할	'95.2.5~9 베이징	남141/북61 (31개국 371명)
	美버클리대한국학위원회	제5차 코리아평화통일 심포지엄	'96.4.18~20. 버클리대	남북대학생 동시초청,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세계평화청년연합회	제4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 * 주제: 21세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청년의 역할	'97.9.13~17. 북경	남171/ 북86 (26개국 326명)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세계평화청년연합회	제5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 * 주제: 통일조국 창건을 위한 청년의 역할	'99.7.25~29. 베이징	남144/ 북61 2개국 205명
장 학 사 업	한마음 남북장학재단	북 IT 소프트웨어 전문가 교육과정 총 6회 62만 불 지원	'06.4.~'08.12. . 중국	북186
		북 전문의 2명 프랑스 파리대학병원 6개월 연수비 지원	'0.5.~'07.10. 파리	

32) 김창환 외, pp. 30~31 자료 축약 및 연구자 보완.

[표 II-4] 남북한 왕래에 의한 남북 청소년 교류 현황

분야	구분	행사일시	참석규모	장소
체육 분야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단일팀구성)	'91.5.27~6.4		포르투갈 리스본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상호교환경기 (’07년 1차)	'07.6.1~6.14	34명 방남	전남 강진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상호교환경기 (’07년 2차)	'07.6.23~7.3	30명 방북	평양
	『2007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 전지훈련	'07.3.20~4.20	32명 방남	제주, 수원, 광양, 서울
	『2007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 사전방한	'07.8.14~9.9	31명 방남	제주, 수원, 광양, 서울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상호교환경기 (’07년도 3차)	'07.10.9~10.25	26명 방남	전남 강진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상호교환경기 (’07년도 4차)	'07.11.3~11.25	26명 방북	평양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상호교환경기 (’08년도 1차)	'08.6.14~26	30명 방북	평양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상호교환경기 (’08년 2차)	'08.10.8~18	50명 방북	평양
	남북유소년 축구팀 합동전지훈련	'09.7.17~8.4		중국곤명
예술	리틀 엔젤스 평양공연	'98, 5.2~8		평양
	평양학생소년 예술단 공연	'00.5.24~30	78명 방남	서울
문화 분야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	'03.8.29~30	북 응원단 303명	대구
	청년학생유적답사단 방북	'03.9.22~26	남 116명	평양
인도 지원 분야	남북청소년 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03.3.21~23	남18명/북27명	금강산
	남북청소년 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04.4.4	남28명/북39명	금강산
	제1차 청소년 평화통일 숲 가꾸기	'06.3.26~5.10	400명	개성
	남북청소년 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06.4.3~6	남47명/북40명	금강산
	제2차 청소년 평화통일 숲 가꾸기	'06.11.10~12.5	800명	개성
	제3차 청소년 평화통일 숲 가꾸기	'07.3.20~6.29	4,000명	개성
대학 생교 류 (통 일 분야 )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	'02.10.13~14	남249/북200/해 외50	금강산
	남북청년학생 대표자회의	'03.9.1~3	남27명/북22명	금강산
	남·북·해외 청년학생 대표자회의	'04.3.21~22	남31명/북24명	중국 심양
	남북대학생 상봉모임	'05.5.22~24	남413명/북100명	금강산
	남북대학생 상봉행사	'05.7.16~18	남280명/북108명	금강산
	남북청년학생 대표자회의	'05.12.16~17	남27명/북19명	개성
	남북청년학생교류 통일행사	'06.2.20~24	남110명/북100명	평양
	남·북·해외 청년학생 대표자회의	'06.3.9~12	남25명/북10명	중국 심양
어린 이 교류	남북어린이 교류사업 (어린이어깨동무)	'05년 11명, '06년 20명, '07년 6명, '08년 5명		평양

그러다 1998년 남한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과 창구 다원화, 남북교류협력기금지원 등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점차 정부 중심에서 국내외의 민간 단체에 의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민간단체라는 새로운 행위 주체가 등장하면서, 참가인원, 활동 기간, 활동 성격 및 유형 등의 규모가 확대, 증진되었고,<sup>33)</sup>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진출 노력은 국내외 NGO의 대북 교류·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5월 리틀엔젤스 평양공연은 민간단체를 통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써 평가받고 있다.<sup>34)</sup> 또한 1990년대의 교류가 대부분 학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3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데 비해 2000년대 들어 제한적 조건들이 완화되면서 교류의 폭이 확대되었다. 대부분 직접 남북한의 왕래를 통한 교류가 진전되었고, 기존의 교류 주체가 대학생 중심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한 연령대 중심으로 인적 교류가 시행되었다.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무 심기(2003~2007), 어린이 교류(2005~2008), 대학생통일행사(2002~2007), 남북유소년축구단 상호 교환경기(2007~2008) 등 인도지원, 체육, 통일행사 분야에서 남북 청소년 교류가 추진되었다.<sup>35)</sup> 특히 1990년대 말 금강산관광 길이 열리고 청소년 대상 정부의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정책으로 약 2만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금강산관광 체험으로 북녘땅을 다녀왔다.

위의 서술과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은 독립영역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체육, 예술, 문화, 학술 등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인적교류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협력 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국한되어 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 어린이 청소년까지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인적교류는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서독의 교육 교류의 중심에는 학생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을 통한 직접교류 형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의 시대 사회문화 변동의 중심에서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계층이 청소년이다.

#### 나) 학생 금강산 체험학습을 통한 교류사업

남북청소년 교류에서 학생들의 금강산체험학습을 빼놓을 수 없다. 남한 국민들의 금강산관광 경험은 2005년 6월 7일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누적 관광객 수가 193만여 명이 넘었다. 또한 2005년부터 시작한 개성관광은 2008년 중단되기까지 11만 명을 넘었다.<sup>36)</sup> 동서독

33) 길은배, 박사학위 논문 P.120.

34) 김창환 외, 위 연구, p. 29.

35) 김창환 외, 위 연구, p. 30.

36)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관광객수는 통 1,934,662명, 개성관광객수는 총 112,033명이다.

사람들이 관광여행으로 조금씩 서로를 알아 간 것처럼 200만 명이 넘는 남한 국민들이 북녘사회를 멀리서나마 체험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객 수에는 정부지원 학생 및 교사들의 수도 포함되어있다. 서독 정부가 동독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의 경비를 지원한 것처럼<sup>37)</sup>, 남한도 중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금강산체험학습’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였다. 1차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교사 1,304명, 학생 18,018명 등 총 19,322명을 지원했고, 2차로 2005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3월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교사 13,986명과 학생 1,815명 등 총 16,294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지원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왕래지원자금’ 항목을 근거로 하였다.

청소년들의 금강산체험학습 내지는 금강산관광 여행에 대한 현황이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2006년~2008년까지 10대에서 6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보면 15세~19세(이하 10대), 20세~29세(이하 20대) 연령층, 즉 10대와 20대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sup>38)</sup>

몇 가지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9)</sup>

〔표 II-5〕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 만족도 조사결과(대상:15세~19세, 20세~29세)

조사내용		15세~19세 조사결과	20세~29세 조사결과
관광 형태	2006 설문참여수 1차	① 단체관광(65.4%) ② 가족관광(34.6%)	① 단체관광(70.3.9%) ② 가족관광(28.4%)
	26/74	① 단체관광(100%)	① 단체관광(65.8%) ② 가족관광(23.7%)
	2차 9/38 3차 8/58	① 단체관광(37.5%) ② 가족관광(62.5%)	① 단체관광(87.9%) ② 가족관광(8.6%)
금강산 관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2006	① 금강산 경치(33.8%) ② 북한주민생활상 목격(19.2%) ③ 평양모란봉교예단공연(19.2%)	① 금강산 경치(58.1%) ② 북한주민생활상 목격(13.2%) ③ 평양모란봉교예단공연(12.2%)
		① 북한주민생활상목격(55.6%)	① 금강산 경치(68.4%)

37) 서독정부는 서독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동독 학생들의 경비도 일부 지원하였다.

38) 조사방법은 2006년~2007년은 관광 후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자기기입식으로, 2008년은 전화 조사.

39) 한국관광공사, 『2006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시즌별 보고서』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6),

한국관광공사, 『2007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7),

한국관광공사, 『2008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8)을 토대로 작성함



		② 금강산 경치(33.3%) ③ DMZ통과(11.1%)	② 평양모란봉교예단공연(19.2%) ③ 북한주민생활상 목격/DMZ통과(7.9%)
		① 금강산 경치(62.5%) ② 북한주민생활상 목격(12.5%) ③ 평양모란봉교예단공연(12.5%)	① 금강산 경치(58.6%) ② 북한주민생활상 목격(13.8%) ③ 평양모란봉교예단공연(13.8%)
	2007 141/118	① 금강산 경치(41.5%) ② 평양모란봉교예단공연(28.6%) ③ 북한주민생활상 목격(12.1%)	① 금강산 경치(56.0%) ② 북한주민생활상 목격(17.6%) ③ 평양모란봉교예단공연(12.8%)
금강산 관광 후 북한 및 통일 문제에 관한 인식 변화	2006	① 긍정적(76.9%) ② 큰 변화 없다(보통)(15.4%) ③ 부정적 (3.8%)	① 긍정적(75.7%) ② 큰 변화 없다(보통)(24.3%) ③ 부정적 (0%)
		① 긍정적(77.8%) ② 큰 변화 없다(보통)(22.2%) ③ 부정적 (0%)	① 긍정적(73.7%) ② 큰 변화 없다(보통)(26.3%) ③ 부정적 (0%)
		① 긍정적(62.5%) ② 큰 변화 없다(보통)(37.5%) ③ 부정적 (1.9%)	① 긍정적(72.4%) ② 큰 변화 없다(보통)(27.6%) ③ 부정적 (0%)
	2007	① 긍정적(63.4%) ② 큰 변화 없다(보통)(31.7%) ③ 부정적 (3.6%)	① 긍정적(61.5%) ② 큰 변화 없다(보통)(35.2%) ③ 부정적 (3.3%)

위 표에서 보듯 설문 참여자 수는 많지 않지만 청소년 관광 형태는 단체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금강산 경치 외에 북한주민생활상 목격이다. 특히 2006년 2차 조사에서는 북한주민 생활상 목격이 55.6%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분단 이후 북녘 땅에서 북한사람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통일의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와 연계시켜보면 서로 알아가고 싶은 측면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 변화 설문조사 결과 10대에서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긍정적 변화 즉, 10명 중 8명은 금강산관광 후 통일인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부정적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금강산 이외 북한방문 희망 지역으로는 평양/묘향산이 1위, 백두산이 2위를 차지하였다. 백두산의 자연경관보다는 북녘 사람들의 삶을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특히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인식 전화 설문조사(800명)에서 10대 80.7%, 20대 77.9% 등 전 연령층 77.4%가 재개를 희망하였다.<sup>40)</sup>

청소년들의 금강산 관광여행은 정부 지원 단체여행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별, 학교별 수학여행을 다녀온 사례들도 있다. 1999년 성사된 ‘금강산수련활동’은 청소년관련

40) 한국관광공사, 『2008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서울: 한국관광공사, 2008), p. 28.

민간단체가 추진한 교류사례도 있다. 8월 25일~28일까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추진한 '99청소년 금강산 수련활동'은 280명의 청소년들과 지도자, 취재기자 28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수련 활동에는 초등학생 71명도 참가하여 그동안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류 층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sup>41)</sup>

연구자<sup>42)</sup>가 재직했던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도 2008년 5월 26일~28일까지 2학년 학생들이 금강산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다.<sup>43)</sup> 학생들은 북녘 땅을 밟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 설렌다고 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안산 강서고등학교도 통일 교육의 하나로 수년간 금강산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2008년 금강산 관광중단 이후 체험학습도 중단되었다. 강서고등학교 오세진 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말로만 들었던 북한 지역을 직접 둘러봄으로써 통일의식 내지는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점이 성과로 남는다"고 밝혔다.<sup>44)</sup>

금강산관광(개성관광)은 남북 평화와 통일인식의 긍정적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남북교육 교류 중에서 청소년들이 단체별 체험학습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교류 사업이었다.

#### 다) 2009년 이후 청소년 남북교류사업

2008년 7월 이후 남북관계가 중단된 이후에도 유소년스포츠 분야 남북 교류는 개최되었다.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하는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인천평화컵(U-13)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인천평화컵 국제 여자 유소년(U-15)축구대회' 등에서 남북청소년들이 교류하였다. '2012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는 북한이 불참하였고,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남북 교류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대회는 남북체육교류협회와 4.25 체육단이 공동으로 조직, 2014년부터 남북 지역을 왕래하며 개최되고 있다. 2006년 5월 평양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체결된 남북체육 정기교류 계약서에 준해 실행되고 있으며 아리스포츠는 중국 단둥에서 생산하는 수제 축구화 브랜드로 남한이 투자하고 북한 기술자가 제품을 생산한다.<sup>45)</sup>

41) 길은배,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이행 실태 분석:1990년대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형 성기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2010, Vol.7, p. 196.

42) 연구자는 금강산을 십 수차례 다녀온 경험을 담은 저서 『금강산은 모두의 길이다』를 출간하였다.

43) 안산별망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08년 5월 금강산체험학습을 다녀왔다.

44) 노컷뉴스, 2004.9.28. "금강산 수학여행'은 살아있는 통일 교육"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011190>.(검색일: 2020. 12.1.)

45) 베스트일레븐, 2018.10.22.,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대회 개최... 北 선수단 80명 온다.

[https://www.besteleven.com/Country/news\\_01\\_view.asp?iBoard=55&iIDX=114059](https://www.besteleven.com/Country/news_01_view.asp?iBoard=55&iIDX=114059).(검색일: 2020.12.4.)

[표 II-6]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현황(아리스포츠, 인천평화컵)

대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가국
1회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	2014.11.7.~9	경기도 연천	4개국 6개팀 한국 3팀, 북한, 중국, 우즈베크
2회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	2015.8.21.~24	북한 평양 능라도 5.1경기장	6개국 8개팀 한국2팀, 북한2팀, 중국, 우즈베크, 크로아티아
3회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	2017.12.18.~22	중국 운남성 곤명	3개국 6개팀 한국2팀, 북한2팀, 중국2팀
4회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	2018.8.15.~18	북한 평양	6개국 8개팀 한국2팀, 북한2팀, 중국, 러시아, 우즈베크, 벨라루스
5회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	2018.10.28.~11.3	강원도 춘천	6개국 8개팀 한국2팀, 북한2팀, 중국, 우즈베크, 베트남, 이란
	2011 인천평화컵(U-13)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sup>46)</sup>	2011.2.15.~21	중국 운남성	한국, 중국, 태국, 북한
	인천평화컵 국제 여자 유소년(U-15)축구대회 <sup>47)</sup>	2014. 3.14~16	중국 광저우	한국, 북한, 중국

남북교류가 중단된 이후에도 유소년스포츠 교류는 지속되었다. 남북교류·협력은 서로 간의 불신과 이질성을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분야 교육 교류는 이렇게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 지속시켜나가는 것이 남북 평화 번영을 위한 기본이다.

#### 다. 민간단체들의 교육교류협력 경험 사례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몰락과 90년대 중반 경제난과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자 유엔인도주의사무국(UNDHA)에 긴급구호를 요청<sup>48)</sup>,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남측에서도 인도주의 및 동포애적 차원에서 민간단체들의 북측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활성화되었다. 초기에는 아동 구호 식량이나 약품 등 구호활동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아동용품 및 교육물자 지원 등 다양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들의 대북교육지원 사업

46) 뉴스웨어, 2011.2.14. “2011 인천평화컵(U-13)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http://www.newsshare.co.kr/5196>,(검색일: 2020.12.4.)

47) 환경일보, 2013.3.21.“인천평화컵 국제 여자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33>/(검색일: 2020/12.4.)

48) 1995년 8.23일 북한은 유엔인도지원국에 긴급구호 요청을 하였고, 유엔아동기금에도 콩 원조를 요청했다.

의 일부분을 민간단체들을 통해 수행하여 민간단체들의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자 지원 사업으로 범주화 하였다. 여기서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교육지원 경험사례를 아동 식량·생필품 및 보건의료, 교육 분야 지원(교육물품·교육환경 과학화, 시설 개보수 등) 사업을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49)</sup> 북한의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로는 굿네이버스, 나눔인터내셔널,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이하 우리민족),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한국복지재단, 한국 JTS, 한민족복지재단 등이 있다.<sup>50)</sup>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별 대북 지원 사업에서 남측 정부가 최대 공여국이란 점이다.

### 1) 아동 급식 · 생필품 지원 사례

1990년대부터 이어진 가뭄과 수해, 경제난, 2004년 통천역 폭발사고 등 재난으로 심각한 식량난과 인명피해 등 북한 주민들이 생존 위기에 처하자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민간단체들이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들의 관심도 많았지만 많은 남측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측면과 시민사회들의 존재, 남측의 발전된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인도적 지원(人道的支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도덕에 바탕을 두고 지지하여 돕는 일”이다. 이것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독립성을 기반으로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지원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인도주의는 정치나 이념,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한다.

아동 급식은 1995년 북한 당국의 식량난 지원 호소 초기부터 민간단체들의 긴급구호 우선순위 대상이었다. 긴급구호 성격의 경우 지원대상을 구분하기가 모호하지만 민간단체들이 지원해온 품목은 쌀, 밀가루 옥수수 등 식량과 의류(귀마개, 양말·신발류 포함), 생필품 등 어린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였다. 특히 월드비전은 함흥시의 7~17세 아동과 청소년에게 옥수수를 지원하였다. 그러다 점차 콩우유 공장, 빵 공장, 국수 공장 등을 설립하여 운영지원을 함으로써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결합시켜 나갔다. 북한은 2004년 인도적 차원에서 개발협력<sup>51)</sup>으로의 전환을 유관 국제기구에 요구하였다. 지원은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여러 민간단체들이 각자 또

49) 이 부분은 북한대학원대학교미시연구소의 ‘대북지원 20년 백서’를 참고하였다.

50) 신호숙, ‘남북한 교육·인적자원 교류협력 추진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p. 29.

51) 개발협력의 광의적 개념은 각국 공여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기업 등의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비영리적인 사업을 지칭하며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양허성 차관) 및 정책적 지원까지도 포함. 좁은 의미의 개발협력은 저개발국의 민생 지원 목적으로 자연재해와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구호사업을 ‘인도적 지원’이라 말하고, 장기적 개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개발협력’이나 ‘개발원조’, ‘개발지원’ 등으로 지칭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본다. 김석진, 홍제환.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14~15.

는 연대를 통하여 지원 사업을 하였다. 북녘 어린이 돕기 성금모금 캠페인도 전개되었는데 1996년 어린이어깨동무, 한겨레신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설립추진본부, 공동육아연구원 등은 ‘안녕? 친구야!’ 캠페인을 통해 ‘북녘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영양제, 이 유식, 분유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였고, ‘북한 어린이에게 쌀을’(어린이어깨동무, ‘북한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특히 2003년 참여연대·SBS 연중캠페인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 북한 어린이에게 희망의 손을’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으로는 쌀 1,860톤을 지원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원대상과 지원 품목이 더 다양화 되었는데 특히 개별단체들이 북측 파트너와 직접 접촉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여 지원하였다.

2004년 4월 22일에 평안북도 룡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룡천역 폭발사고 시에는 어린이 지원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 룡천역폭발사고피해동포돕기운동본부(약칭: 룡천동포돕기본부)를 결성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범국민적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sup>52)</sup> 북민협은 의약품, 생필품, 시설물복구 장비 등 긴급구호물품을 룡천 사고현장에 전달하였다.

2011년 8월 초 태풍피해로 황해남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등에서 많은 인명피해 및 이재민이 발생하자 북민협은 1차로 개성 육로를 통한 지원품(밀가루, 의약품)에 영유아 내복 2,300벌도 보냈다. 2012년 태풍 불라벤으로 수해피해가 발생하자 북민협은 1차로 밀가루 500톤을 지원하고, ‘북한 긴급 수해지원 및 북한어린이 돕기 범국민 캠페인’을 한 달(8.18~9.28) 동안 전개하여 32억 원 상당의 지원품을 개성 육로를 통해 2차로 전달하였다. 2015년에는 태풍 고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교 등에 해외 단체를 통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였다.

아동 급식 지원은 주로 육아원(보육원), 탁아소, 애육원(고아원), 소학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식의 종류는 빵과 국수가 가장 많고 분유, 콩우유, 콩기름 등이 있다. 급식지원 지역은 평양, 남포, 나선을 비롯하여 9개 도 22개 지역이다. 참여한 단체는 경남통일농업협회, 국제사랑재단,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굿피플인터내셔널, 기아대책, 남북나눔운동, 민족사랑나눔, 새누리좋은사람들,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어깨동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24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 2) 아동 보건의료 지원 사업

2020년 4월 22일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기구들과 국제 NGO들로 구성된 유엔 북한팀이 ‘2020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52) 모금 총액은 2,491,251,369원이었고, 24만점 가량의 의약품, 생필품, 의류 등 (13,887,630,000원 상당) 모금되었다.

보고서<sup>53)</sup>를 발표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판단근거가 되는 UN 북한팀의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내부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필요한 우선순위는 보건, 식수 위생 등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식량 불안, 영양결핍이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 개입은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5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및 수유부에 지속적인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인도적 지원 필요인구는 증가하였다(2019년 380만 명, 2020년 550만 명). 이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대상이 15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강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남포시의 최취약계층이 겪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영양실조 및 오염된 식수로 인한 유병률과 사망률 감소를 중심에 두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위기에 처한 수백만 북한 아동, 학생들에게는 생명선일 수도 있다.

그동안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수행한 보건의료분야 지원은 북한의 보건성과 세계보건기구의 판단에 기초하여 초기에는 전염병 퇴치사업에 집중하였고 기초보건에 속하는 의약품과 영양제가 많이 지원되다가 점차 가정용 구급함, 의료장비 및 기구, 왕진가방, 연막소독기, 구급차, 어린이병원 설립까지 발전하였다. 보건의료지원분야에서의 특징은 의료시설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남측의 후원자와 북측의 수혜자와의 간접적인 연결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8년~2009년 대북지원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많은 단체들이 의료시설 개보수나 현대화 사업, 제약공장 건립, 병원건립 등 병원 인프라 개선 차원의 지원활동을 진행한 것과 북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기회가 많고, 심층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의료기술 전수 및 검진센터 가동, 환자 검진·시술 시에는 북측의 지역인민위원회와 주민들이 수혜자로서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 이후 전면 중단되어 미완성 그대로 방치된 실정이다.

민간단체들의 보건의료지원은 2004년 룡천역 폭발사고 시 집중되었다. 한코리아는 롯데백화점과 공동으로 진행한 룡천어린이돕기바자회 수익금 1억 원으로 의약품 등을 지원하였다. 어린이어깨동무는 1997년~2006년까지 기초의약품으로 구충제, 항생제, 영양제 등 189억 원 상당을 지원하였고, 2004년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 설립, 평양의학대학병원 어깨동무 소아병동, 남포소아병원 등을 설립하였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수해피해 지역 및 평양, 신의주 사리원 지역에 의약품, 영양제, 가정용 구급함, 어린이용 휠체어, 어린이용 유산균제 등을 지원하였다. 2010년 지구촌공생회는 북한어린이질병퇴치기금을 후원하였다.

53) 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http://ksm.or.kr> 홈페이지 자료실(검색일: 2020.11.30.)

### 3) 교육지원 교류사업 (교육물품· 교육환경 과학화, 시설 개보수)

교육지원 사업에는 아동시설 분야 종합지원 사업, 초중등 분야 지원 사업, 고등교육 분야 지원 사업 사례를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아동시설 종합지원 사례

##### ①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2001년 12개 시·도 14개 육아원(고아원, 0~4세)에 대한 종합지원을 최초로 시작하였다. 지원 사업은 급식지원, 생필품지원, 시설개보수로 구성하여 4,700명의 아동들에게 영양식 등 급식지원, 질병, 침대, 침구 등 육아원 운영에 필요한 생필품, 건축자재, 주방설비, 주방기기, 침대 등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였다. 특히 굿네이버스는 이들 기관에 기본적으로 학습교구, 보수용품을 지원해왔고 2004년에는 남포 육아원 신축, 평양 육아원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 ② 나눔인터내셔널

2005년부터 평양 모란봉 구역의 개선탁아소와 개선유치원 아이들의 보육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바닥재와 창문교체, 베란다 창호, 난방시설 보수, 외장공사, 주방시설과 식당, 식탁, 결상 등에 대한 개보수, 실내외 놀이시설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였다. 지원공사는 탁아소와 유치원 교원들, 교원가족, 지역인민위원회와 함께 진행하였다.

##### ③ 세이브더칠드런

2005년부터 함경남도 함흥지역에 있는 초·중등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를 지원, 2006년에는 함경북도 소재 육아원 및 아동시설 4곳 시설개선 및 담요지원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에 신·구 탁아소의 난방, 실내 인테리어, 주방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였다.

##### ④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어깨동무는 2002년부터 평양 경상유치원 교구유치원을 시작으로 원산 평화유치원, 원산 애육원, 회령 탁아소 등 8곳 시설 개보수 자재 및 교육용 기자재, 유아용 레고블럭 등 약 15억 원 가량 물자지원, 이중 창호 및 바닥재 교체 공사는 북한의 '평양건재공장'에 창호 제작 기술이전 후 원자재 지원, 조립·현장 시공·사후 관리는 평양건재공장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는 개성공단 내 탁아소의 개보수 공사 자재 및 위생용품을 지원 사업을 하였다.



#### 4) 초중등 분야 교육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은 일부 단체들이 간헐적으로 교과서용 용지, 학용품 등 지원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활성화 되지 못하다가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나눔인터내셔널, 어린이어깨동무가 지속적인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sup>54)</sup> 초중등 분야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한 민간단체들을 다음과 같다.

##### 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농업협력사업을 하던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 내 소학교 신축공사 1동과 부설동을 리모델링하였다. 2007년 경남도민대표단의 평양방문 시 낡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에게 비바람과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범도민적 성금모금을 전개하여 2007년 총 7차에 걸쳐 철근, 합판, 배관자재, 시멘트, 발전기, 판넬 및 부자재, 창호자재, 천장재, 보일러, 교과서용지, 학교 책걸상 및 집기류를, 2008년에 전기 및 통신재료, 페인트, 난방 배관 자재, 보일러, TV, DVD플레이어, 전기온수기 등을 지원하였다.<sup>55)</sup>

##### 나)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은 ‘북한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지원 사업’하에서 교과서용 종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2년 북한이 교육용 TV지원 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도 VCR TV 1,000세트를 지원하였고 북한의 소학교, 중학교, 외국어 학원, 대학 등을 방문하여 수업 참관 및 교육환경을 돌아보고 지원물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였다.<sup>56)</sup>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환경의 낙후함을 보고 교육기자재 지원과 시설보수가 시급함을 인식, 2003년부터는 어학실습기자재, 특별활동기자재, 교과서용 용지 110톤을 지원하였다. 2004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2000톤 이상의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북한 의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연간 교육을 위해 필요한 5000톤 중 절반에 가까운 양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류, 색연필, 학교 개보수, 방수액, 책상 등 교육지원 사업은 4개 사업장 4,8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sup>57)</sup>

##### 다) 기아대책

기아대책은 2004년부터 북한의 소학교, 중학교 30여 곳에 영양빵을 비롯 학용품,

54)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연구소, 『대북지원 20년 백서』 (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 p. 73 참조.

55)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연구소, 『대북지원 20년 백서』 (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 p. 172.

56) 윤종혁, “북한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p. 44.

57)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연구소, 『대북지원 20년 백서』 (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 p. 172.



교육 용품을 지원하였고, 2012년 미술용품과 풍금, 체육용품 지원, 2013년~2014년 학용품 세트와 방한용품 지원, 2015년에 미술용품, 학용품을 지원하였다.<sup>58)</sup>

#### 라) 나눔인터내셔널

나눔인터내셔널은 2004년 5월 교과서용 용지 60톤 지원을 시작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양 모란봉 구역, 만경대 구역, 보통강 유역의 개선 유치원, 신원동 소학교, 평양 제1중학교, 금성학원내 소학교와 중학교에 학용품, 교육용 설비, 책걸상, 칠판, 보수 자재들을 단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기숙사 건축자재와 침구, 교육용품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sup>59)</sup>

#### 마)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어깨동무는 2004년~2008년까지 학용품 생산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평양수지연필공장을 개보수한 후 제반 학용품 생산설비와 생산원료 등 약 17억 규모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 공장은 2005년 평양어깨동무학용품공장으로 준공식을 가졌는데 북한 전역 소학교, 중학교 학생 400만 명에게 샤프연필과 볼펜 1세트씩을 보급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췄다. 남한의 기술자들이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학용품 생산기술 이전을 하였으며,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생산원료를 구매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장의 자생능력을 증대시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생산원료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sup>60)</sup>

#### 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겨레하나가 추진한 대표적인 교육협력 사업은 룡천역 폭발사고 시 피해를 입은 룡천소학교 건립지원 및 다양한 교육기자재 지원활동이라 할 수 있다.<sup>61)</sup> 2004년 룡천역 폭발 사건을 계기로 교사, 학생을 비롯하여 전 국민의 호응 하에 룡천소학교를 건립하였고 북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sup>62)</sup> 또한 북한교육현대화지원 사업으로 교과서용 종이, 교육기자재, 교육시설 설비를 지원하였다. 2005년~2008년까지 교과서용 종이 1,241톤, 기숙사시설, 통학버스, 실사출력기, 걸상 200조, 공책 9만권, 소변기, 좌변기 180개, 페인트 50톤, 급식용 식탁세트 30조, 타일, 석고보드 등을 지원하였다.

58)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대북지원 20년 백서』 (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 p. 173.

59)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대북지원 20년 백서』 (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 p. 173.

60)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대북지원 20년 백서』 (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 p. 174 참조.

61) 윤종혁, “북한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p. 43.

62) 신호숙, 앞의 정책보고서, p.29.

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이하 우리민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이하 우리민족)는 2001년 7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400톤을 지원하고, 아동 급식 지원 사업 1차 대표단 5명이 방북하면서 북한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소학교(인민학교) 교과서 제작용 종이 200톤을 지원, 이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통일위원회에 교과서용 종이 보내기 사업을 제안하였고, 전교조는 모금을 통해 200톤 중 60톤을 보내고 대표단 방북에 3명이 참여하여, 북한 교육단체와 최초로 접촉하여 남북교육자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4년 룡천소학교 건립 지원 활동, 2006년부터 단둥에서 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자바 전문가 과정, 3D 그래픽 전문가과정을 북한에서 파견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의 영역을 넓혀왔다. 그 뒤 주로 북한의 유치원 등에 대한 급식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왔다.<sup>63)</sup>

라. 고등교육분야 교육교류협력 경험 사례<sup>64)</sup>

국내 민간단체에 의한 북한 고등교육 지원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 운영 사업<sup>65)</sup>

평양시 락랑구역 전진동에 위치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의 요청하여 시작된 교육 사업으로 남한은 건립공사와 교수임용, 학사 운영을 책임지고 북한은 부지와 자재,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2001년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교육성이 건립계약서를 작성, 남북한 양측의 허가를 받아 2002년 6월 12일 착공식을 가졌다. 2008년 대지 100만 $m^2$ 에 17개 동(89,000 $m^2$ ) 동이 완성되었고 2009년 9월 준공 및 남북공동 총장(김진경 설립 총장)이 임명되었다. 2010년 10월 25일 학부 100명, 대학원 60명으로 정식 개교하였다. 남과 북이 힘을 모아 북한에 만든 최초의 대학이자 북한 유일의 사립대학이다. 2020년 대학은 제6회, 대학원은 제7회를 거쳐 77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개설 학과는 학부 과정으로는 농생명, 국제금융, 컴퓨터과이며, 대학원은 농생명, 국제금융, 컴퓨터, 치과대가 운영 중이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의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하였고, 대학의 최대 수용 인원은 학부생 2,000명, 대학원생 600명이다. 교수진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4개국에 파견된 30여 명의 교수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재직하며, 학생들과 캠퍼

63) 정영철 외, pp. 14~15 참조.

64) 윤종혁, “북한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pp. 48~51. 연합뉴스TV, 2018.6.18., “남북 학술교류도 ‘물꼬’...평양과기대·전남대 협약”

<https://tv.naver.com/v/3366662> 연합뉴스TV(검색일: 2020.12.1.) 자료 참조하여 정리.

65) 윤종혁(2006, p.48~49), 정영철 외(2018, p.15~16),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홈페이지 중 평양과학기술대학/ 소개/현황/졸업생 현황(검색일: 2020.12.1)을 참고하여 정리.

스에서 함께 생활하는 국제대학이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2008년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다시 남측 대학들과 교류가 이어졌다. 평양과학기술대학과 업무협약 체결한 남한의 대학들은 다음과 같다.

전남대학교는 2018년 6월 7일, 강원대학교는 2018년 8월 16일, 서울시립대학은 2018년 8월 23일, 건국대학교는 2018년 10월 10일, 삼육대는 2018년 11월 9일, 울산과학기술원은 2018년 11월 28일, 수원대학교는 2019년 5월 15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컴퓨터 인력양성 협력사업

남북 IT협력 전문기업인 하나프로그램 센터에서는 2001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컴퓨터센터(KCC) 출신의 전문인력 약 20여 명을 중국 단둥에서 4개월씩 IT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2006년 우리민족이 인수하여 ‘우리민족인재양성센터’를 창립했다. 우리민족은 한 기당 30여 명씩 4기와 5기 교육을 진행하였다. IT교육에는 포항공대 박찬모 총장을 비롯하여 한신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IT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sup>66)</sup>

## 3)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교류협력사업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는 2005년 후반부터 교과서용 종이를 비롯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기숙사 설비 중 학생복지후생용품을 지원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겨레하나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는 남과북 대학별 특성에 따른 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남측 대학의 교육 교류 사업 의사를 파악하여 북측과의 교육협력 사업의 기획과 조정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북측대학과 공동학술토론회 개최 및 교육기자재 지원을 합의하였고, 상지대학교(북측 조선고려약기술센터와 한의학 분야의 교류 협력사업 추진, 북측약재 공급과 약재생산 협력방안 논의, 공동약전 발간 및 고려약 생산과 연구설비 지원 등 모색), 고려대학교(생명공학 분야의 실험실습기자재 지원과 생명공학 분야의 공동학술토론회 모색), 인하대학교(IT분야 교류협력사업을 김책공대와 추진하는 방안 구상)등을 모색하였다. 2006년에는 남한 교수 108명을 중심으로 남북학술교류 및 교육 교류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남북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sup>67)</sup>

66) 윤종혁, “북한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p. 49.

67) 윤종혁, “북한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pp. 49~50.

## 마. 남북 학술분야 교류협력 경험 사례

남북학술교류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이어져왔다. 1989년 이후 분야별로 시작된 남북학술교류는 1999 농업 분야 2개 과제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화학, 컴퓨터, 과학 일반, IT, 에너지, 지질, 도로교통, 교육, 보건, 환경 등 10개 분야로 확대되었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으로 축소되다가 2010년 이후 침체기에 들어섰다. 남북학술교류는 과학기술 분야(남북해외), 남북 대학간 교류, 보건의료 분야, 남북해외학술교류 분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과학기술분야 교류<sup>68)</sup>

남북과학기술교류 협력 사업은 초창기 주로 농업 분야에서 ‘북한 적응형 슈퍼 옥수수 남북 공동개발연구’, ‘남북한 인공 씨감자 생산 및 재배기술 교류협력 연구’, ‘자생식물 분야 남북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북한지역 농작물의 병충해 구제용 농약시험 연구’, ‘북한 주민 생필품용 정밀화학 제품 생산시험 연구’ 등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남북학술교류 활동은 400여 개의 자연과학계열학회와 정부출연기관, 재외 과학기술자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에서 수행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중국 국제과학기술대회

1991년 8월 19일~24일까지 중국 옌지(延吉)에서 개최, 남측의 한국과총과 북측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하 조선과총) 주최, 중국조선족과학자협회와 중국옌벤(延邊)주과학기술총연맹 참여, 화학, 수학, 지질, 환경, 조경, 약학 및 약물검사 등 6개분과 총 212편의 논문 발표되었다. 참석인원은 한국 101명, 북한 45명, 중국동포 283명, 미국 8명, 캐나다 2명, 일본 1명 등 440명과 중국동포과학기술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나) 남북과학기술국제학술회의

1997년 3월 31일~4월 3일까지 중국 옌벤과학기술대학에서 150여 명 참가한 가운데 개최, 생명공학, 정보통신, 포준 등 3개 분야에서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다) ISMI 04 & ISPITI 04 및 남북과학기술대표단 회의

68) 이옥환, “남북학술교류 경과 및 방향 [전자자료] : 시대적 흐름속에 이어온 남북학술교류가 나아갈 길,” (서울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5) 내용 축약 정리.

2004년 10월 4일~8일까지 중국선양에서 개최, 남측에서는 한국과총 회장 외 4명과 발표자 10여 명 참석, 북측은 조선과총 3명과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일성 사망 10주년 조문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개최되었다.

라) 다국어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및 남북 과총 간 실무회의

2005년 8월 7일~10일까지 중국 하얼빈공과대학교에서 개최, 실무협에서 한국과총은 '남북과학기술종합학술대회 개최', '남북과학기술용어 표준화', '조선과총 과학기술회관 건립지원', '남북과총 간 공식 협의채널 구축' 제의

마) 남북화학기술세미나

2005년 12월 18일~20일까지 중국베이징에서 개최, 남측에서는 한국과총,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7명, 북측에서는 국가과학원 등에서 5명, 일본에서는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5명이 참석하였다.

바) 민족과학기술학술토론회

2006년 4월 4일~4월 8일까지 북한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 남측 과학기술부와 북측 국가과학원 후원, 한국과총, 민족과학기술협회(북측),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남측은 발표자 14명을 포함한 과학기술인 25명, 북측 300여 명, 해외동포 20여 명이 참가하였다. 정보기술분과 26편, 나노기술분과 26편, 생물공학분과 17편과 환경공학분과 20편 등 논문이 발표되었다.

사) 민족화학학술토론회

2007년 5월7일~11일까지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개최. 한국과총과 조선과총 공동 주최. 남측 발표자 30명을 포함한 60명의 과학기술인, 북측 과학기술인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무기(Inorganic) 및 나노화학, 촉매, 고분자화학 및 재료, 유기화학 등 4개 분야 5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아) 클론기술과 응용 분야 학술토론회

2007년 11월 19일~22일까지 중국 옌지에서 한국과총과 민족과학기술협회(북측),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공동 개최, 남측 9명, 북측 6명, 중국 20여 명 참가. 클론기술과 그 응용 분야 논문 14편이 발표되었다.

자) ISMI 08 & ISPHTI 2008 & SYF 2008

2008년 10월13일~16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한국과총, 조선과총(북), 중국 랴오닝성 과학기술협회 공동 주최. 남측 7명, 북측 20명, 중국 50여 명,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석하여 민간과학기술분야의 학술교류협력을 논의하였다.

## 2) 남과 북 대학 간 학술교류

남북 간 학술교류 등 지식공유 및 활용은 북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고 남북협력의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남북 대학간 학술교류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대학차원을 포함하여 학술단체들이 추진했던 학술회의 등 교류활동을 보면 남북 대학간 최초의 자매결연은 1998년 4월 28일~5월 5일간 성균관대학교 정범진 총장이 방북하여 개성의 고려 성균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기타 학술교류를 협의한 것이다.<sup>69)</sup> 그 후 1999년 11월 고려대학교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관계자와 교류협력을 논의하였으나 북으로부터 후속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측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으로 외적 조건들이 완화되면서 학술교류·협력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남북 대학 간 교류협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한양대학교 교수의 김책공업대학교 강의

2002년 한양대학교와 김책공업대학교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월 29일부터 2개월간 한양대 정보통신학부 교수(차재혁)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오희국)가 평양의 김책공업대학에서 각각 ‘컴퓨터 운영체제 구현’과 ‘데이터베이스 응용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강의를 수강한 북한 학생 80명은 한양대총장(김종량)과 김책공대총장(홍서현) 공동명의로 수료증을 받았다. 이와 같은 학술교류는 비정치적인 학술교류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sup>70)</sup>

### 나) 전남대학교와 평양과학기술대학 남북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

전남대학교는 2018.6.7일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남북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평양과학기술대 총장과 교수진들이 전남대를 찾았고, 두 대학은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 총장은 “앞으로는 남한에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가르치시면 처음에 평양과기대가 설립된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 다) 강원대학교와 평양과학기술대 남북 학술교류 및 연구 업무협약 체결

강원대학교는 2018년 8월 16일 평양과학기술대학과 ‘남북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8년 양 대

69) 조한범, 『남북한 학술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2001), p. 133 참조.

70) 윤종혁, “북한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p. 50.

학의 ‘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 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추진되었다. 취지는 농업, 산림, 축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활발한 남북공동연구와 학술교류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서는 4차산업 농생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 축산과학기술 선진화 및 가축 전염병 예방 공동연구, 산림 생태 복구 및 종합 개발 공동연구,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연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의 협약이 체결됐다. 이외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 및 지식기반 산학협력 모델 공동연구, 교수·학생 교환, 공동연구 수행, 국제 학술행사 공동 참가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sup>71)</sup>

라) 서울시립대와 평양과학기술대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립대학교는 2018년 8월 23일 평양과학기술대와 학술연구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주요 내용은 미래도시발전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농생명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친환경·지식기반의 국제산학협력 추진, 교수·학생의 교류 촉진, 국제학술행사 공동 참가, 기타 양 대학의 발전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한 도시문제 관련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남북의 연구 의제를 발굴하고, 에너지·농업·도시환경·교통인프라 등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해서 평양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포럼을 운영할 방침이다.<sup>72)</sup>

마) 건국대와 평양과학기술대 농·축산 학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이 2018년 10월 10일 평양과학기술대 농생명과학부와 농축산 관련 학술·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술세미나 교류, 학술연구 교류, 과학자 인적 교류, 남북한 농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 공유 등이다.<sup>73)</sup>

건국대와 평양과기대는 업무협약 체결 이전인 2015년 3월 3일 건국대 북한축산연구소와 상허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북한식량개발과 상허(常虛)정신’ 세미나에서 심정석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가 ‘북한 축산부국의 가능성을 찾아’라는 주제발표를 하기도 하였다.<sup>74)</sup>

71) 강원대뉴스, 2018.8.27. “강원대학교-평양과학기술대학교 『남북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https://blog.naver.com/knusns/221346905551> 참조. (검색일: 2020.11.30.)

72) 뉴스원뉴스, 2018.8.22., “서울시립대, 평양과기대와 학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https://www.newsl.kr/articles/?3405393> 참조. (검색일: 2020.11.30.)

73) 연합뉴스, 2018.10.11. “건국대, 평양과기대와 농·축산 학술교류 MOU 체결”

<https://blog.naver.com/newsyonhap/221375285668>(검색일: 2020.12.7.).

74) 연합뉴스, 2015.3.3. “북한 축산부국 가능성’ 발표하는 심정석 평양과기대 교수”

<https://www.yna.co.kr/view/PYH20150303137700013?input=1196m> 참조. (검색일: 2020.12. 1.)



바) 삼육대와 평양과학기술대 업무협약 체결

삼육대학교는 2018년 11월 9일 평양과학기술대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sup>75)</sup> 협약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와 공동 학술회의 개최, 학생교류 및 상호 학점인정, 교수 및 교원 간 교류, 대학시설 사용, 학술자료 및 출판물 교환 등이다.<sup>76)</sup>

사) 울산과학기술원과 평양과학기술대 남북학술교류·공동연구 협약 체결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UNIST)와 평양과학기술대는 2018년 11월 28일 ‘남북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다.<sup>77)</sup> 이 협약에 따라 두 대학은 교육과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대북관계 정책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 남북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 교수와 학생 상호교류, 연구와 산학협력, 학술회의 공동개최, 학술자료와 출판물의 상호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sup>78)</sup> 관련하여 2019년 5월 22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식물자원 유전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아) 수원대와 평양과학기술대 융합교육 교류 업무협약 체결

수원대학교는 2019년 5월 15일 평양과기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교육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원대는 미래형 융합 교육정보 및 프로그램 상호교류, 우수한 인적자원의 교류와 연구과제의 활성화를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sup>79)</sup>

자) 숭실대와 평양과학기술대 협약체결

숭실대학교는 2019년 12월 3일 평양과학기술대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공동연구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내용은 상호 연구인력(학생/교수)의 교류협력, 공동연구를 위한 실질적 연구 협의 추진, 필요시 연구협력을 위한 학과 단위의 임시체 구성, 교원이 상대교 방문시 상호 숙소 제공, 교원 대상 상대교의 방문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교수 및 학생 교류 활성화, 실질적인 연구 교류를 위한 물적 교류 협력 등이다. 숭실대는 2004년부터 평양과기대와 교류를 시작한 이래 2004년 8월 남북 간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교류협

75) 삼육대 김성익 총장과 평양과기대 김필주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참석했다.

76) 세계일보, 2018.11.11. “삼육대, 북한 평양과기대와 MOU 체결”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11000573>(검색일: 2020.21.1.)

77) 진유택 평양과기대 총장 일행이 울산과학기술원(총장 정무영)을 방문했다.

78) YTN, 2018.11.28. “울산과학기술원·평양과학기술대 공동연구 협약 체결”

[https://www.ytn.co.kr/\\_ln/0115\\_201811281625556021](https://www.ytn.co.kr/_ln/0115_201811281625556021) 참조. 검색일:(2020.11.30.)

79) 조선에듀, 2019.5.22. “수원대, 평양과학기술대학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1437.html](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1437.html) 참조. (검색일: 2020.11.30.)



약, 2010년 3월 교육과 학문연구를 위한 학술교류협정, 2016년 숭실대, 연변과학기술대, 평양과학기술대가 연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sup>80)</sup>

#### 차) 기타

- 서울대와 평양과학기술대 약학분야 남북협력 논의

2018년 10월 22일 서울대 약대와 평양과학기술대가 서울대에서 관련 분야 상호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평양과기대는 현재 약학대학 설립을 추구하고 있다. 서울대학은 2018년 6월 26일 <통일약학센터>를 설립하고 남북협력 시대를 대비한 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sup>81)</sup>

- 경북대와 평양과학기술대

경북대는 2018년 8월 21일 평양과기대 농업 및 의료 보건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보육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08년 경북대는 평양과학기술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sup>82)</sup>

#### 3) 보건의료분야의 학술교류<sup>83)</sup>

보건의료분야의 학술교류는 새로운 의료장비나 기기를 지원하면서 지침서를 제공하고, 북한 의료진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 나눔인터내셔널

나눔인터내셔널은 2004년부터 보건의료분야 인적교류 및 기술이전 등 학술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정형외과 및 마취과 의료진 11명이 방북하여 환자 24명에게 척추 디스크 미세현미경 수술 등 통증 치료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핵의학(동위원소) 관련 의료진이 방북해 기술전수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6년에는 조선적십자병원에 혈액 투석센터 개설 후 관련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기술교육을 위해 10차례 방북하였다. 2007년에 혈액투석 관련 의료진 5회 방문, 의료장비 기술 전수를 위한 대표단이 6회 방북하여 의료기술교육과 전문가세미나 진행하였다. 2008년에는 방북하여 치과 세미나, 시범투석 및 신장내과 세미나, 무혈성괴사증 고관절 수술 및 의료진 교육, 2009년에는 동위원소 세미나, 2010년에는 갑상선환자 진단과 치료 및 감마카메라

80) 숭실뉴스, 2019.12.13. “수원대, 평양과학기술대학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  
<https://blog.naver.com/soongsil1897/221735833746> 참조. (검색일: 2020.11.30.)

81) 약대뉴스, 2018.11.7. “서울대 약대-평양과학기술대 간 남북협력 논의”  
[https://snupharm.snu.ac.kr/ko/board/ad\\_pds/view/9251](https://snupharm.snu.ac.kr/ko/board/ad_pds/view/9251) 참조, (검색일: 2020.1.2.1.)

82) 국제뉴스, 2018.8.21. “전유택 평양과기대 총장 경북대 방문, 교류 협력 활성화 논의”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200> 참조. (검색일: 2020.11.30.)

83)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2015, 146~149)의 내용 축약,  
나눔인터내셔널 홈페이지, [http://www.inanum.org/busin/busin\\_a08.php](http://www.inanum.org/busin/busin_a08.php) 참조, (검색일: 2020.11.30.)

정도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7년 몽골 IRCT-2007 & ARCCNM 정기총회, 2009년 인도네시아 ARCCNM 정기총회 등 해외 학회 및 세미나에 북한 의료진을 초청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술교류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10년 5.24 조치 이후 2014년까지 단순 모니터링 방북만 가능하였다.<sup>84)</sup>

#### 나)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어깨동무는 어린이병원 신축, 의료장비, 의약품, 의료소모품, 검사시약 등 병원 운영을 위한 지원, 의료인 교육 등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펼치고 있다.<sup>85)</sup> 2003년부터 남북 보건의료인 간담회 및 학술회의를 통해 북한 어린이 질병 현황 공유, 치료 방향 토론, 의료장비 설치, 기술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병원의 경우 2003~2008년 총 6회의 남북의료진 간담회를 진행하여 병원 운영, 어린이 치료 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평양의학대학 병원 어깨동무소아병동 건립을 추진하면서 북한 의료인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의료인 교육센터를 마련하여, 준공에 앞서 한 달간 4차례 <북한 의료인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교육에는 남한 의료인 74명(연인원), 북한 의료인 276명(연인원)이 참여하였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에도 2009년과 2014년 중국 연변대학병원에서 평양의학대학 병원 소아과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이론 강의 및 토론, 환자 공동 진료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다.<sup>86)</sup>

#### 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3년 10월 최초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 27명이 제5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 토론회는 1999년부터 재외 한국인을 북한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평양의학과학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제4차까지 남한 의료인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2004년 6차 토론회에는 을지병원, 길병원, 충남대병원 관계자 등 총 27명이 참석하였고, 같은 해 한의학, 침·뜸 분야에서 남북 간 학술교류의 성격으로 남한의 의료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석은 2006년과 2007년까지 이루어졌고, 2008년부터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의학과학토론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sup>87)</sup>

#### 라) 한코리아

한코리아는 1998년 10월 남한 의료인으로서 최초로 북한에 상주하며 선봉군인민병원에서 활동할 의료진 10명을 파견했으며, 이들은 장기 1년, 단기 3개월간 활동했

84)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2015), pp. 146~147 내용 축약

85) 어린이어깨동무 홈페이지([https://www.okfriend.org/nsttogether\\_1](https://www.okfriend.org/nsttogether_1)) 참조, (검색일: 2020.11.30.)

86)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2015), pp. 147~148 내용 축약.

87)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2015), p. 148 내용 축약.

다. 2001년 7월 남측 의료진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환자를 수술하고 북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수술 현장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2008년까지 평양 의학대학 병원에서 심장병 환자, 간암 환자 등 총 21명을 시술하였으며 남북의료진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sup>88)</sup>

#### 4) 남·북·해외 학술교류분야- 두만강학술포럼

〈두만강학술포럼〉은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도시인 연길시에 위치한 연변대학이 중심이 되어 학술적인 접근을 통해 두만강지역이 지닌 독특한 지정학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동북지역의 발전과 아시아문화 나아가, 세계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로 2008년 창설되었다.<sup>89)</sup>

중국 연변대학교가 주최하고,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후원하는 국제적인 대형학술행사인 두만강 포럼이 매년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북교육교류-학술교류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목할 만한 학술교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만강 포럼은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지역에 초점을 맞춘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연례 학술포럼이다.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호주 등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두만강 지역의 발전과 안보, 그리고 동북아의 미래를 토론하는 자리이다. 매년 이들 국가에서 200여 이상의 학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동아시아 각 국가 간 교류와 두만강 지역의 협력 발전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심층적인 토론, 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sup>90)</sup>

88)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2015), pp. 148~149.

89) 한국고등교육재단, 2010.1.4. “두만강학술포럼 2009 개최”

<http://www.kfas.or.kr/News/News0302.aspx?msgID=350#sthash.RiyyyZXb.dpbs> 참조.(검색일: 2020. 12.1.)

90) 한국고등교육재단, <http://www.kfas.or.kr/News> (검색일: 2020.12.1.)참조(검색일:2020.12.1.)

## 바. 소결 및 시사점

앞의 남북 교육교류 경험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은 10여 년간 이루어졌다. 교류협력 사업은 주로 교원단체, 민간단체, 대학학술단체 등에서 이루어졌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류도 있었다. 이들 단체들의 교류협력 성사 요인의 특징은 끊임없는 교류 협력 제안은 물론 1차적으로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관련부문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 및 협의하여 지원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육교류의 물꼬를 튼 전교조도 북한에 끊임없는 교육교류 제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이 학생들 교육에 가장 필요로 했던 교과서용 종이 지원이 신뢰의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방 이후 첫 남북교육자상봉모임이 성사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한국교총과의 연계도 이루어져 남북의 대표적인 교원 3단체들이 함께 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이어나갔다. 특히 전교조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가고자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갔다.

남북 교육교류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들의 교류성사 요인도 마찬가지였다. 아동급식·보건 영역 등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지원 사업을 병행하며 신뢰를 형성해 나갔고 지속적인 교류 사업으로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어깨동무의 경우는 학용품공장을 선순환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였고, 평양에 어린이어깨동무병원을 건립하여 어린이 교류의 선례를 남겼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교육교류 사업 전면에 교원단체들이 나설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였다. 현재도 지속되는 과학기술분야 학술교류도 마찬가지다. 서로 논의하고 상대의 연구 성과에 대해 인정하면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축적해 가고 있다.

이처럼 남북 교육교류협력 사업에서 북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사업을 이어간 사례들의 특징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에 방점을 두기도 했지만 상호 윈했기에 성사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모든 남북교류사업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였고, 신뢰가 형성되면서 대화도 논의도 협력도 이루어졌다. 금강산관광길이 남북이 함께 윈했기에 만들어졌듯이 남북교류, 남북 교육교류협력 사업도 남북이 함께 원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사안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부침을 반복하는 냉전적 대결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2010년 5. 24조치 이후 인도적 지원 사업은 물론 개발협력 차원에서 진행되던 교류협력 사업들도 모두 중단되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경험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안정적 교류와 지속을 위해서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이 확고해야 한다.

현재 10여 년간 지속되던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남북교류

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왔다. 이제는 국내외 정치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 남북교류를 종식하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남북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착 되어야 한다.

동서독이 통일 직전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류의 끈을 놓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정치적 약속과 법적, 정책적 뒷받침이 먼저 되어야 한다.

2) 지속적인 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안정적 재정이 필요하다.

남북 교육교류협력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 교조의 남북 교육교류협력 사업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교과서용 종이 지원이 신뢰의 단초가 되어 남북교육자들의 상봉이란 인적교류로 이어졌다. 어린이어깨동무도 평양어깨동무 학용품공장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방북을 하였다. 남북 교육교류협력 사업에서 교육지원 사업이 병행되었을 때 인적교류 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개별단체들이 대북 지원 사업 재원 조달은 회원 회비 축적이나 성금 모금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동서독처럼 지속적 교류를 위하여 교육교류 사업에 정부 차원의 전폭적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교류의 발전적 지속을 위하여 조직기구와 전문 실무자가 필요하다.

남북 교육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도 교류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할 조직기구와 전문 실무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주체들의 교육교류협력 사업에는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매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 분야에도 남북 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주도할 조직기구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교류협력이 중단되어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 세대를 위한 남북교육교류 사업을 언제라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다.

### Ⅲ. 통일 이전 동서독 교육 교류와 시사점

#### 1. 통일 전 동서독 교육 교류 협력

##### 가. 동서독 교류협력의 개요

1990년 10월 3일 분단 45년 만에 동서독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독일통일에는 국제적 힘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서로 알아가고자 장기간 양독이 노력해온 교류와 협력의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전 동서독의 교류·협력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서독의 역사문화, 국제적 배경, 분단의 성격 등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은 분단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이어진 일관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교류·협력을 지속했고 마침내 통일을 이룩한 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특히 서독은 1960년대 초부터 힘의 우위를 통해서만 통일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화해를 통해서 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전환하여 대동독 교류·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실행하였다. 또한 통일보다는 ‘분단상황의 안정화’<sup>91)</sup>를 전제로 동서독 간 긴장 완화에 주력했고 상호인정과 관계 촉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교류를 시도하고 이끌었다. 그 결과 동서독 주민들간의 인적교류 증가는 물론 교육 교류의 중심에 있던 학생 청소년 교류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청소년교육 교류가 본격화되었던 1980년대 중반에는 거의 일방적 교류라 일컬어질 만큼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방문이 압도적이었으나 1989년 국경개방 이후에는 동독 청소년들 모두가 한 번 내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서독을 방문했을 만큼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 방문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호교류의 성과들이 축적되어 마침내 동서독 통일을 이루어 냈다고 본다.

동서독 교류협력사, 특히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와 분석은 그들이 분단의 장기화 속에서 현재와 미래세대를 연결하기 위해 어떠한 원칙과 조치, 보완책으로 교류협력을 지속시켜나갔는지, 교류협력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는지, 어떠한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교류의 핵심을 청소년교류로 이어나간 동서독의 사례는 남북교육 교류활성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동서독 교류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자료가 많지

91) 성장환,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간 교류,” 『학생지도연구』 18(92.9), (대구교육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p. 79.

않다. 또한 서독의 경우 연방차원이 아니라 주(州)정부 차원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졌고, 주로 민간 차원에서의 진행 및 동독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은 비공개되어 교류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되거나 연구되어 있지 않다.<sup>92)</sup> 이러한 현실적 상황의 연장선에서 국내 동서독 교육 교류 사례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내용의 중복성을 피할 수 없음을 밝힌다.

#### 나. 동서독 교육교류의 중심 청소년교류<sup>93)</sup>

동서독 교육 교류가 지속 가능했던 것은 서독의 개방적 교류정책과 실질적 재정지원, 끊임없는 접촉 시도, 교류 과정에서의 보완점 반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서독의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에서는 ‘청소년교류지침’을 수립하고 청소년교류사업에 적극 재정지원을 했을 뿐, 실행은 대부분 정부 차원보다 학교, 청소년단체, 교회 단체 등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재정지원은 하되 민간교류단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재정지원은 서독으로 여행을 오는 동독 학생들에게도 하였으며 동독 정부에도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동독이 청소년교류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일부단체의 교류사실 공개를 꺼려하자 동독 입장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로 교류내용이 공개되면 될수록 동독이 거부 반응을 보여 교류의 횟수가 점차 줄어들기도 하였다.<sup>94)</sup>

동서독 교육 분야 교류는 분단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나 초기에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성을 보인 것은 서독 정부였다. 서독은 분단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동서독 주민들 간,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 간 이질화와 적대감이 심화되어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했던 역사와 문화, 동질성이 약화되면 통일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 염려하였다. 이에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접촉의 기본이 되는 인적교류를 중시, 특히 교육 교류분야에서 청소년들이 상호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교류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추진하였고,<sup>95)</sup> 서독의 모든 학생들이 학창 시절 적어도 한 번은 동독 사회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주(州) 문교장관회의의 권고사항이 있었다.<sup>96)</sup>

92) 박성희,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17』, (서울: 통일원 교육홍보국, 1993), p. 291 참조.

93) 이하 내용들은 성장환(1992), (박성희(1993), 김상무(2006, 2008, 2019), 한운석(2002) 등의 선행 연구 고찰 후 내용 정리한 것임.

94) 박성희 위 연구, p. 291.

95) 박성희,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17』, (서울: 통일원 교육홍보국, 1993), p.292 참조

96) 윤종혁 외, “통일 시대에 대비한 북한 교육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7), p. 44.

이처럼 서독 정부는 청소년 교류를 동서독 접근의 대전제일 뿐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고 교류 확대는 동서독 정치적 관계에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다.<sup>97)</sup>

동독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직접 서독을 체험함으로써 서독식 자본주의 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는, 즉 사회주의 강화 차원에서 실행하는 청소년교류 정책이었기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 청소년들과 교류에 비해 중요성은 크지 않았다.<sup>98)</sup>

동서독 청소년교육 교류는 주로 동독청소년단체(FDJ)<sup>99)</sup>와 서독청소년단체(DBJR)<sup>100)</sup>간 접촉과 교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1969년 서독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東方政策)을 기점으로 1972년 「동서독 일반통행협정」, 「동서독 기본조약」<sup>101)</sup> 체결 이후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협정 이행이 진전을 이루면서 양국 청소년교류도 대화와 접촉이 증가하였다. 사실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동독은 국가로 인정받았고, 상호 평등의 원칙하에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74년부터 서독 학생들이 동독으로의 수학여행이 가능하였으나 학생이나 청소년의 폭넓은 교류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1978년 DBJR과 FDJ는 청소년 간 상호교류를 위해 의견 및 정보교환, 정기적인 대표단 파견, 공동세미나 개최 등 상호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코뮤니케를 작성하고, 다음 해 DBJR 회장이 동독을 공식방문하기도 하였다.<sup>102)</sup> 그러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1981년 10월 서독 수상 슈미트(Helmut Schmidt)와 동독의 서기장 호네커(Erich Honecker)의 정상회담이었다. 정상회담에서 동서독 청소년 교류가 논의되고 강화할 것을 합의한 후 동서독 청소년단체 관광여행의 새로운 장이 열려 1982년 「청소년 관광여행 합의서」 체결 등 공식적인 청소년교류활동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1986년 양국간 「문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경제교류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학술, 체육 분야,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대학 간의 자매결연 등이 이루어졌고, 1989년 이후에는 고정된 일정이 아닌 자발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97) 박성희 앞의 논문, p. 292.

98) 김상무, 앞의 논문, p. 78 참조.

99) 자유독일청소년단(FDJ, Freie Deutsche Jugend)

100)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 Deutscher Bbundesjuendring)

101) 동·서독 기본조약 제7조는 경제, 학문, 기술, 교통, 법률, 우편, 통신,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 보호 및 기타 분야의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102) 김상무, “동·서독 교육계의 교류와 협력 경험이 남한의 대북 교육 교류와 협력에 주는 시사점,” 『교원교육』 제24권 제2호(2008년 6월), p. 76 참조.



#### 다. 청소년교류 유형 및 현황

학생 및 청소년 분야의 교류·협력의 유형은 크게 세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각급학교의 동독으로의 수학여행이고, 다른 하나는 서독의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과 동독의 자유독일청소년단(FDJ)중심의 청소년단체들이나 동·서독 신교 청소년단체간 교류이다, 또 하나는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시 이루어진 청소년의 접촉을 들 수 있다. 이중 마지막 사례는 주로 1986년 문화협정 체결 후 진행되었다.<sup>103)</sup> 청소년교육 교류는 청소년대표단 위주의 교류에서 점차 청소년단체관광여행, 동서독 학교 간 자매결연, 대학생교환 등으로 확대되었다.

청소년들의 교육 교류 내용은 주로 여행 성격으로 문화유적지 시찰, 관광, 국영기업체와 협동농장 방문, 청소년 및 직업훈련생과의 대화, 연극 관람 등으로 이루어졌다. 학교 방문은 아주 드물게 허용되었는데 그것은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물론 친척 방문도 가능하였다. 여행 전체 일정은 동독 국가기관과 합의 및 허락을 받아 확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호 요구를 반영하여 조정되었다. 동서독 청소년 교류는 사전교육은 물론 여행 후에는 동독체제에 대한 사전지식과 여행 체험을 비교 평가하고 또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는 평가회를 마련하였다. 교류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이 만족한 것은 분단 이전의 공동문화유산에 대한 시찰과 관광, 동독의 청소년 실태, 동독의 주거환경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 취득에 대해서였다.<sup>104)</sup>

청소년 교류현황을 보면 서독에서 동독방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대폭 증가되었는데 양독 청소년 교류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수학여행이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독으로 여행을 한 학생들의 학급별 단체여행이 75% 정도를 차지하였고, 청소년조직 및 협회, 청소년청, 기업들에 의한 교류는 25% 정도를 차지하였다.<sup>105)</sup> 청소년의 동서독 여행에는 정부차원의 비용이 지원되었는데 서독의 경우 학급단위의 수학여행은 학생 1인당 1일 5마르크를 지원받았고 기차로 여행할 경우는 기차비 전액을, 버스 여행의 경우는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sup>106)</sup> 청소년단체의 교류여행은 1인당 하루 15마르크, 동독 학생들이 서독을 방문할 경우에는 1인당 하루 20마르크씩을 지원하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103) 김상무, “동·서독 교육계의 교류와 협력 경험이 남한의 대북 교육 교류와 협력에 주는 시사점,” 『교원교육』 제24권 제2호(2008년 6월), p. 77.

104)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과정 연구 93-V』, (서울: 통일원, 1993), pp. 652~653.

105) 박성희, “동서독 청소년교육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17(.93.5)』, (서울: 통일원교육홍보국, 1993), p. 303.

106) 김상무 앞의 논문 p. 80.

뿐만 아니라 서독정부는 신교 단체 간 여행을 조건 없이 지원하였고 동독과의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1980년대 동서독 청소년관광여행의 참가자 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Ⅲ-2>에서 보듯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방문이 훨씬 많지만 동독에서 서독으로 방문하는 청소년 수도 점차 증가하였다. 통계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1989년 동서독의 모든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지역 청소년의 서독 방문이 서독 청소년의 동독 방문보다 훨씬 많았다.<sup>107)</sup> <표 Ⅲ-1>은 정부 지원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을 간 학생, 청소년, 대학생 수이고 <표 Ⅲ-2>는 정부 지원 및 각 사회·종교단체나 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의 비용부담을 포함한 통계이다.

[표 Ⅲ-1] 정부지원에 의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여행 현황<sup>108)</sup>

연도	여행 단체 유형별			단체수 (총인원 : 명)
	대학생단체(비율)	청소년단체(비율)	학급단위 수학여행(비율)	
1984	45(5.2%)	127(14.5%)	705(80.3%)	877(22000)
1985	34(3.5%)	160(16.7%)	709(73.7%)	961(-----)
1986	45(5.2%)	136(15.7%)	665(76.9%)	864(22551)
1987	64(5.7%)	171(15.2%)	889(76.4%)	1124(26326)
1988	71(6.5%)	186(17.1%)	833(76.4%)	1090(26812)
1989	62(5.8%)	189(17.8%)	811(76.4%)	1062(-----)

\* 출처: 통일원, 1993, p 647

[표 Ⅲ-2] 연도별 동서독 청소년관광여행 참가인원<sup>109)</sup>

연도	동독으로 여행한 서독청소년들	서독으로 여행한 동독 청소년들
1981	10,000	-
1982	15,000	300
1983	22,000	1,200
1984	36,000	300
1985	50,000	1,000
1986	50,000	3,000
1987	77,000	3,760
1988	78,000	5,000

서독교육 교류가 청소년 중심이었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교사들의 역할이었다. 학생교류 프로그램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교사의 76%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고, 학생들은 2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동서독 교육 교류를 주도했던 것은 교사들이었던 것이다.<sup>110)</sup> 그럼에도 서독 학생들의 경우 교류 참여 이전에는 60% 정도가

107) 박승희 앞의 논문, p. 305.

108) 윤종혁,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교육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7), p.31 재인용.

109) 박성희 앞의 논문 p.303.

110) 윤종혁,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교육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7),

동독을 외국으로 인식하였는데 교류 참여 이후 30%로 낮아지고, 동독에 대한 선입견이 일정 교정된 효과가 있었다.<sup>111)</sup>

#### 라. 동서독 청소년 교류의 특징

앞의 표에서 보듯이 동서독 청소년 교류는 대부분 서독에서 동독으로 방문이 차지하는 일방적 성격이었다. 동독 청소년들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서독으로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동서독의 모든 국경이 개방되고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자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 방문이 서독 청소년의 동독방문보다 훨씬 많아졌으나 통일 직전에 이루어져 서독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적었다.

동서독 청소년 교류에 참가한 인적 구성에도 성격의 차이가 있었다. 서독은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동독은 25세에서 30세 사이의 장년들로 FDJ단체의 간부 등 사회주의적 품성과 자질을 갖춘 대상을 선별적으로 허락하였다. 또한 동독은 자기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서독의 청소년단체들과 선별적으로 접촉을 하여 공개적이고 일반적인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동서독 청소년 교류는 교육 교류의 중심이었고 그들에게 상대의 상황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이론에서 배운 상투적 감정보다는 체험에서 오는 생생한 감정적 느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아낌없는 국가의 지원이 있었다.

#### 마. 동서독 청소년 교류의 성과와 한계

동서독 청소년교육 교류의 성과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았다. 동독 여행을 경험한 학생은 비 경험 학생들보다 동독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보다 관대하였으며, 주변에서 동독에 대해 중요한 여론 형성 및 전달자 같은 역할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된 선입견이 교정되기도 하였다. 동독 사람과 접해본 학생들은 ‘우리과 같은 독일인이며 매우 친근감이 든다.’고 느꼈고, ‘동독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제목으로 동독 방문여행기 공모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5명의 학생들은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동독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여행 기간이 길수록 민족적 동질감을 더 많이 느끼고,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동독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sup>112)</sup> 또한 흑백논리에 따른 적대적 의식을 덜 가지게 되고, 자신의 편견을

---

p.45.

111) 윤종혁(2007) 앞의 논문 참조.

112) 김상무(2008) 앞의 논문, p. 81 참조.

인식하게 되었고, 서독 체제가 가지는 장점을 뚜렷이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생한 정치교육의 장으로도 기능했다.<sup>113)</sup>

반면 서독으로 여행을 경험한 동독 학생들은 동독을 서독과 비교하면서 동독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서독 교류에서 드러난 한계는 양독의 민감한 정치적 영향을 받아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양독간 관계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동독에서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며, 보통의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을 접촉할 기회가 드물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서독 학생들의 경우 동독 방문이 오히려 동독에 대한 편견이 입증되었다는 판단과 이질감이 더욱 심화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서독 학생들의 동독으로의 일방적 수학여행, 관광여행 성격이라 교류협력적 차원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다.

대안으로는 대규모 만남보다는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토의가 진행된다면 동독청소년들의 생각을 비교적 솔직하게 들을 수 있고 대도시보다는 소도시와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일반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 바. 동서독 학술분야 교류 경험 사례

동서독 학술분야 교류는 1986년 문화협정 이후 활발해졌다. 그 이전에는 양독 통합 학장회의 개최나 양독 연방 교육부 차원의 접촉, 개인적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미미했다. 문화협정에 대한 서독의 기본입장은 이 협정을 통해 양독 주민들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문화 분야에서 공동 협력함으로써 상대편 체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자는 것이었다. 특히 동·서독 주민들 간에는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sup>114)</sup> 문화협정 제2조에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고등교육, 전문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 분야, 학문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및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문적 경험 교환 및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나 회담에 참여하는 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강연, 연구,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학자들 교환,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학생과 젊은 학자들의 연구목적 체류, 전문 문헌, 학술정보자료, 전시자료, 교수도구 교환 등을 규정하고<sup>115)</sup> 제12조에서는 이 협정 이행을 위해 재정적인 규정들을 포함하여 2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되어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술, 학술, 교육 분야의 비율을 2:2:1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sup>116)</sup>

113) 윤종혁, (2007) 앞의 논문, p.33.

114) 김상무(2008) 앞의 논문, p. 83.

115) 통일원 역, “동·서독교류협력관계법규자료집, 독일 문화협정,” (서울: 통일원교류협력국, 1994), p. 237~241 참조.

양독 간 「문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경제교류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학술, 체육분야,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대학 간의 자매결연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87년 서독의 자르브뤼켄(Saarbrücken)대학과 동독의 라이프치히(Leipzig)대학간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급격히 증가한 대학 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동서독 대학생들 간 만남이 이루어지고, 1988년 동서독 대학생 교환프로그램이 서독에서는 110명을 동독에서는 300명을 파견 예정으로 장학생을 모집함으로써 시작되었다.<sup>117)</sup> 또 민간단체와 기구들의 재정 부담 아래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동·서독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동·서독 간의 교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국제행사를 통해 맺어진 양독 간의 교류 활동이 점차 동서독 간의 협력 사안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문화협정에 따라 연방 내독부의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이 되었는데 지원 분야는 “학술 접촉을 위한 직접 지원”, “양측의 합의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독일학술교류재단(DAAD)이 관장하는 대학생과 학자의 교환과 동독 연구 여행 및 자료 수집 여행 지원” 등이었다.<sup>118)</sup>

협정에 따라 1986년~87년도 첫 동·서독 공동 협력사업으로 22개의 프로젝트가 합의되었지만, 처음임을 참작하여 상호 부담이 적은 전시회나 방문 공연 위주로 계획이 짜였다. 두 번째 사업계획 연도인 1988~89년에는 학술 분야프로그램이 대거 포함되었다.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며, 서독 측 사업 선정은 연방, 주, 지방정부 공동위원회가 최종 선정했다. 또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사업 선정 시 동독 측의 재정 부담과 동독 정부 혹은 동독 주민의 우선적인 관심 분야를 고려했다.<sup>119)</sup>

학술교류 진행 결과 서독에서 무관심한 연구 분야가 동독에서는 상당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을 발견하기도 하고, 동서독 학자 간 접촉 확대 의도만으로는 교류가 지속될 수 없고 상대편 전문분야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심과 인정이 있어야 교류와 협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또한 서독학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동독의 연구 수준을 비하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sup>120)</sup>

116) 윤종혁(2007) 앞의 논문, p. 35

117) 박성희, 앞의 논문, p. 304~305 참조.

118) 김상무(2008), 앞의 논문, p. 84.

119) 김상무(2008), 앞의 논문, p. 84.

120) 김상무, “독일통일과 교육 분야 지원·교류협력(전자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p. 14.

## 사. 소결 및 시사점

동서독 교육교류협력 사업은 분단 이후 청소년교류가 중심이었다. 청소년단체들간 간헐적인 교류로 이어져오다 각급학교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1972년 「동서독 일반통행협정」, 「동서독 기본조약」<sup>121)</sup> 체결 이후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협정 이행이 진전을 이루었다. 서독은 주정부 차원에서 학창 시절 한 번쯤은 동독을 방문하도록 학생들에게 권고하였으며, 수학여행 경비도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여행경비는 동독학생들이 서독을 방문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성장하는 미래세대에게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동독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비경험자들보다 더 다양한 시각으로 동독을 이해하고 있다. 동서독 교육교류는 양독의 민감한 정치적 영향을 받아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서독정부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동독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에 방점을 두고 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초당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연속성이 담보되었다. 또한 동서독 청소년 교류는 교사들의 교류프로그램 참여가 뒷받침되었다.

동서독 학술분야 교류는 1986년 문화협정 이후 활발해졌다. 양독 간 「문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경제교류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학술, 체육분야,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대학 간의 자매결연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문화협정에 대한 서독의 기본입장은 이 협정을 통해 양독 주민들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문화분야에서 공동협력함으로써 상대편 체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자는 것이었다. 학술교류 등에서도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되어 지속적 교류가 이어졌다. 동서독은 지속적 교류과정속에서 통일을 맞이했고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체제를 선택하였다.

동서독교육교류협력 경험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육교류협력 정책이 필요하다.

동서독은 교육 교류협력사업에서 청소년 중심의 교육 교류를 추진했고, 서독의 경우 모든 학생이 한번은 동독 사회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주(州)문교장관회의의 권고사항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미래 세대들에게 상호 다른 현실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피드백을 통해 협력점을 찾아갈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 냈다. 특히 서독의 사례에서 보듯 동독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비경험자들보다 더 다양한 시각으로 동독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지점이다. 물론 교류과정에서 정치적 문제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서독이 인내와 포용으로 동독의 요구를 수용하여 재개되었다. 바

121) 동·서독 기본조약 제7조는 경제, 학문, 기술, 교통, 법률, 우편, 통신,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 보호 및 기타 분야의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로 이점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한 정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2) 교사들의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동서독 교육 교류에는 현장 교사들의 철학과 관심이 큰 역할을 했다. 동서독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서독의 교사들은 76%, 학생들은 24% 동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하여 교류를 성사시켜 나간 것이다. 교사들의 역할이 컸다.

3) 교육교류협력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동서독의 교육교류는 청소년 중심 수학여행을 통해 길어지는 분단상황에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동질성 회복과 공동체인식 제고를 위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원칙이 있었고, 우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상호 합의하에 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4)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서독의 사례에서 보듯 동독을 여행한 경험이 많을수록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동독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도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 연구자도 3차례에 걸쳐 남북교원 상봉차 평양을 방문하고, 십 수 차례 금강산관광을 하면서 북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다. 관심 갖는 것만큼 궁금한 것도 생기고, 대화 소재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한 번 정도는 체험하게 하는 것도 남북교육교류 사업의 한 방법이다. 미래 주역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 이해하는 교류의 장을 수학여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주 만들어 주어야 한다.

5) 남북 교육교류협력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남북교류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 되는 말이 '피주기'라는 말이다. 그러나 동서독 사례는 이와는 대조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서독은 청소년 교육교류에서도 서독학생들의 경비뿐 아니라 동독 학생들의 경비도 지원하였고, 민간단체들의 교류에도 경비 지원은 하되 모든 것은 민간단체들의 자출에 맡겼다. 또한 동독의 취약한 측면에 국가적 차관을 비롯하여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은 이러한 지원과 교류협력의 성과들이 축적되어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통일을 이루었다. 교류 확대가 체제 공고화를 돕는 행위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이다.

6) 남북 교육교류협력에서 일희일비는 지양해야 한다.

분단 이후 통일 전까지 독일은 교육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인내하고 접촉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남북 교육교류협력 사업도 기성세대들의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7)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독 정부는 정책적으로 동서독 교육교류협력 사업의 경비를 전폭 지원하였고,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재원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 IV.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교육의 변화와 남북교육교류의 시사점

### 1. 남북의 교육 비교

#### 가. 남북의 교육지표 비교

북은 기본적으로 학교 수 등 교육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남북의 교육지표를 비교하기 쉽지 않다. 2015년 UNESCO의 요청에 의해 북에서 제출한 자료<sup>122)</sup>를 토대로 남북의 교육지표를 비교해 본다.

#### 1) 학교 수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 북의 인구는 총 2천551만3천명<sup>123)</sup>이고 남의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51,838,016명<sup>124)</sup>이다. 남북의 면적은 거의 비슷하나 인구는 북이 남쪽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표 IV-1] 남북의 학교 수 비교(2015)

(단위:개)

구분	남	북
유치원	8,826	13,638
초등학교(소학교)	5,934	4,800
중학교(초급중학교)	3,186	4,600*
고등학교(고급중학교)	2,326	
대학교	1,538(339개 대학 + 대학원)	480

\* 2015년 유네스코의 자료로써 학제 개편 이전의 중고등학교 자료.

\*\* 출처: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에서 일부만 발췌 p. 4.

#### 2) 학생 수

남과 북의 학생 수는 남북의 인구수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교육기관 학생 수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북의 학생

122)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PR 2015-12), p. 38.

123) 『VOA』, “세계 인구의 날, 미 통계국 북한 인구 2천550만 명”(검색일: 2020.11.29)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4996680>

12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2020년 10월 기준(검색일: 2020.11.30.)  
<http://27.101.213.4/>

수는 남쪽 대비 47.2% 수준이다. 2012년 북의 초등학생 수(1,394,397명)는 2008년(1,546,554명)에 비해 약 10% 정도 줄었으며 남의 경우에도 2008년(3,672,207명)에 비해 2012년(2,951,995명)에는 약 20% 정도 초등학생 수가 줄었다.

[표 IV-2] 남북한 초등교육기관 학생 수 비교

(단위:명)

연도	남		북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학생 수	3,672,207	2,951,995	1,546,554	1,394,397

\* 출처: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2015) p. 39.

남의 중등교육의 학생 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합쳐야 북과 비교가 될 수 있다. 남북의 중등교육기관 학생 수는 북의 중등교육기관 재학생 수가 남의 약 62% 수준이다. 중등교육기관 학생 수 역시 줄어들고 있는데, 남북 모두 2008년 대비 2012년 학생 수가 약 95% 수준으로 줄었다.

[표 IV-3] 남북 중등교육기관 학생 수 비교

(단위:명)

남				북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중학생	2,038,611	중학생	1,849,094	2,474,033	2,349,116
고등학생	1,906,978	고등학생	1,920,087		
합계	3,945,589	합계	3,769,181		

\* 출처: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2015) p. 40.

남북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에서 북은 대학원 과정 학생 수를 '고등교육 이상'이라는 범주에 대학교 학생 수와 대학원 과정 학생 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학원 과정 학생 수는 가늠하기 어렵다. 대학원 과정 학생 수를 포함하는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를 보면, 남북 차이가 매우 크다. 북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는 남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의 18.5% 밖에 되지 않는다. 남북의 비교 년도가 불일치하고 북의 직업기술학교의 학생 수가 빠짐으로 인해 자료의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쪽의 경우에는 2012년에도 진학률은 71.3%에 이르고 대학생 수는 총 3,202,866명으로 이는 북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의 5.4배이다. 북의 초급고등학생 중에 대학교에 바로 가는 '직통생'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이 군대를 간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북은 군대 혹은 직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더 많다.

[표 IV-4] 남북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비교

(단위:명)

학교급	남		북
	대학교	2,901,454	
대학원	301,412		
합계	3,202,866		

\* 출처: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2015) p. 40.

\*\* 북 자료는 CBS(2008). p. 122. Table.24. 북 통계는 대학 및 대학원이 '고등교육'으로 통합 분류되어 있음. 위 통계수치는 직업기술학교 학생 수 133,587명을 제외한 수치임.

### 3) 교원 수

2008년 기준, 초등교육기관 교원 수는 북이 남의 약 40.8% 정도이고 중등교육기관 교원 수는 북이 남의 53.4%이다. 남북의 초등, 중등의 학생 수를 감안하더라도 북의 초등, 중등 교원 수가 남의 교원 수에 비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 남북 교원 수(2008)

(단위:명)

남		북	
유치원	34,601*	33,582	유치원
초등학교	172,190	70,298	소학교
중학교	108,700	123,702	초급/고급중학교
고등학교	122,906		
대학교	전임: 54,331 비전임: 85,410	69,082	대학 및 전문학교
대학원	전임: 3,097 비전임: 11,259		

\* 남의 유치원 교원 수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출처: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2015) p. 43.

### 4)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2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남쪽에 비해 북쪽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월

썸 많다. 남쪽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8.4명이고 북쪽의 소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1명으로 OECD평균(15명)에는 못 미친다. 중등학교의 경우, 남쪽의 중학교가 18.1명이고 고등학교가 15.4명이다. 북의 중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8명으로 남의 중학교와 비슷하다.

[표 IV-6] 남북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교(2012)

(단위:명)

남		OECD 평균	북	
유치원	14.3	14	-	유치원
초등학교	18.4	15.3	21	소학교
중학교	18.1	13.5	18	중학교
고등학교	15.4	13.8		

\* 출처: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2015) p. 43.

### 5) 학급당 학생 수

2012년 기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남쪽이 25.2명으로 북쪽의 28.9명보다는 적다. 남북 모두 초등교육 단계보다 중등교육 단계의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중·고등학교 모두 남의 학급당 학생 수가 북보다 약간 더 많다.

[표 IV-7] 남북 학급당 학생 수 비표(2012)

(단위:명)

남		OECD 평균	북	
초등학교	25.2	21.3	28.9	소학교
중학교	33.4	23.5	31*	중학교
고등학교	32.5			

\* 6년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임

\*\* 출처: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2015) p. 44.

### 6) 교사의 연간 평균 수업 시간

남북 교사들의 평균 수업 시간 수를 비교해 보면, 남쪽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시간은 북쪽 교사의 약 77.9% 수준이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업 시간 수의 차이는 줄어들어 중학교에는 남쪽 교사 수업 시간이 북쪽 교사 수업 시간의 87.8%수준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 92.7% 수준이다. 남쪽 교사의 수업 시간 수는 OECD 평균보다 적다.

[표 IV-8] 남북 학교급별 교사 연간 평균 수업 시간 수 비교(2012)

(단위:시간)

남	OECD 평균	북
초등학교 694	782	891 소학교
중학교 568	694	646.7 초급중학교
고등학교 549	655	592.2 고급중학교

\* 출처: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2015) p. 44.

### 나. 남북의 교육 이념과 목표 비교

교육(敎育)이란 말은 본래 맹자(孟子)의 <진심상편(盡心上篇)에서 유래하였다. 맹자는 군자에게는 3가지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得天下英才 而敎育之(득천하 영재 이교육지)' 즉,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영어로는 'education', 독일어로는 'Erziehung', 프랑스어로는 'éducation'은 모두 라틴어 educare 또는 educatio에서 유래하였다. 라틴어 educare는 '양육한다'라는 의미로, 이는 능력을 끌어낸다는 뜻의 educere, 지도한다는 뜻의 ducere와 관련이 있다.

뒤르켐(Durkheim)은 교육은 '체계적 사회화(socialization)의 과정', 피터즈(Peters)는 교육을 '문명화된 삶의 형식으로 사람들을 입문시키는 과정', 브라멜드(T. Brameld)는 '사회의 유지와 개조를 위한 문화의 전달 과정', 칸트(E. Kant)는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정의하였다.

교육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지적, 문화적 총체를 다른 사람, 후세들에게 알려주고 전달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국가에게는 교육을 통해 국가 유지와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근대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사회체제를 떠나서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육 방법 등의 전일적 체계를 갖고 교육에 힘쓰고 있고 북도 마찬가지이다.

북은 정권 수립 전인 1945년 11월 '학교 교육 조치법'을 통해 문맹퇴치와 함께 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sup>125)</sup> 1977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sup>126)</sup>를 발표하면서 북도 교육의 원칙, 방법, 내용 등 전일적 체계가 갖추어진다. 이 테제를 근

125) 정영철 외,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과제 도출 및 지원 방안』 (교육부: 2018), p. 58.

126)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1977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문서로서 북한 교육 체계의 기본 골격과 교육 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간으로 해서 교육 목표, 교육체계와 교육내용이 만들어졌으며 1999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법<sup>127)</sup>”을 제정하게 된다.

북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제1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제3조)’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확립된 사회주의교육 제도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제2조)” 라면서 사회주의교육제도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임무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제3조)”,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제29조)”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은 자기식의 교육 목표, 교육원리, 교육 내용, 교육방법을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맞춰 전일적 체계를 갖고 있고 이 방향에서 교육을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교육목표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2019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sup>128)</sup>에서 기존의 ‘견결한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을 ‘참다운 애국자’,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변경하였다.<sup>129)</sup>

남의 교육이념은 교육기본법(1997)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sup>130)</sup>”라고 명시하였다.

남북의 교육목표에서의 공통점은 첫째, 지덕체의 전인적 인간형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둘째, 남북의 보통교육은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습의 기초 능력을 익히고, 기본 생활습관 및 도덕적 품성을 도야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

1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1999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채택

1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14번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이 최고인민회의 2019년 4월 11일 제14기 1차 회의때이다.

129) 2019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130) 대한민국 교육기본법(1997)

남북의 교육 목표에서의 차이점은 첫째, 북은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남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북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일심단결, 집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북의 헌법 제6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남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성의 존중, 개인의 자율과 책임,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셋째, 북은 의무교육 기간에 ‘중등 일반지식교육’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한다. 남은 학습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태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사회나 노동과 분리된 지식교육, 이론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131)</sup>

#### 다. 남북의 교육 제도 비교

[표 IV-9]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sup>132)</sup>

연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0년	5년제 초등 의무교육(6.25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 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5년)
1972년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012년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 출처: 통일부 통일 교육원의 2020 북한 이해

북도 다른 근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굉장한 관심을 쏟는다. 북은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인 1945년 11월에 <학교 교육 조치법>를 제정하여 ‘초등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고, 문맹퇴치를 위해 ‘한글학교’를 설치하며, 1949년부터는 <의무교육법령>을 통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려 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1956년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 1954년부터 학교의 수업료가 폐지되고 1966년부터는 전반적 9년제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5년)을 실시하다가 1972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으로 확대한다.

131) 박정원,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03-17, 2003), pp. 82-83.

132) 위의 책, p. 234.

북의 교육이 큰 폭으로 변화를 한 계기는 1967년 ‘수령제’ 체제의 확립이다. 수령체제의 확립 이후 북의 교육 내용은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단주의, 주체형의 인간, 사회주의 등의 정치사상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북 교육의 원칙과 방법, 내용이 집대성된 것이 1977년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이 테제는 북의 교육체제의 근간이며 핵심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4년 전국 교육 일군 열성자 회의에 보낸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서한을 통해서 북의 교육정책과 방향, 내용에서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난다. 과학기술교육과 영어교육이 강화되고 1984년 평양에 ‘제1고등중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영재교육이 중등학교부터 실시된다. 그리고 1999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이 정식으로 제정된다.<sup>133)</sup>

그 후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들어서면서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한다. 2011년에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제정하고, 2012년에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을 12년 무상의무교육을 하는 법령을 채택하고, 2015년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수정보충하고, ‘교원법’(2015), ‘교육강령집행법’(2016) 등 교육에 관련된 법을 계속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령을 현시대에 맞게 수정, 보충하였다.<sup>134)</sup>

북의 학제는 2012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법령으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유치원 2년, 소학교<sup>135)</sup>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이 기간학제로 되어 있는 11년제 의무교육 체제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양성을 위해 각 시·도에 영재교육 기관인 ‘제1중학교’를 신설하고 컴퓨터 분야의 중등 영재 교육기관을 지정하며, 대학에 수재반을 설치하였다. 북의 ‘수재학교’는 남쪽의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남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 기간학제로 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로 구분된다. 일반계고등학교는 다시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일반계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되고 실업계고등학교는 공업고, 상업고 등 실업계고등학교와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된다.

남쪽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12년제 학제이지만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으로 총 9년만 진행하고 있다.

남북의 교육제도에서의 공통점은 첫째, 국가 관리의 교육제도이다. 남이나 북이나 학

133) 정영철 외,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과제 도출 및 지원 방안』(교육부: 2018), pp. 58~62.

134) 통일 교육원, 『2020 북한 이해』(통일부 통일 교육원: 2020), p.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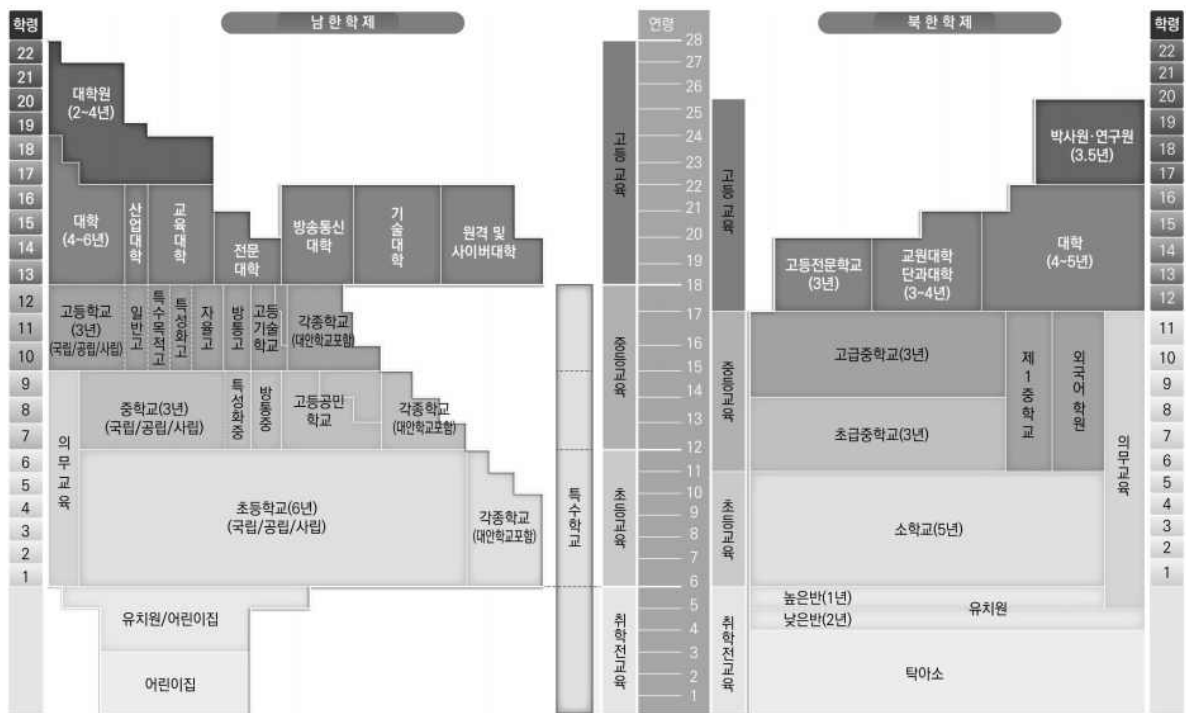
1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2년 9월을 기해 인민학교(人民學校)라는 명칭을 소학교(小學校)로, 고등중학교(高等中學校)를 중학교(中學校)로 바꾸었고 2012년에 다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바꾼다.



교 설립, 운영, 교육과정, 교원 선발, 학생 선발 등을 국가가 엄격히 통제 관리하는 공교육체제를 취하고 있다. 둘째, 국민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북 모두 초·중등교육을 국민보통교육으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 특수목적학교를 확대하고 있다. 남북 모두 국가경쟁력을 인적자원 확보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영어학교, 기술학교, 영재학교, 예체능학교,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수학교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sup>136)</sup>

남북의 교육제도에서의 다른 점은 첫째, 학제에서 차이가 있다. 남쪽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6년이다. 북은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교 4~6년이다. 남쪽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의 기간이 남쪽에 비해 1년 짧다. 둘째는 의무교육기간이 다르다. 남쪽은 의무교육 기간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으로 총 9년이고 북은 의무교육 기간은 높은 반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총 12년이다. 셋째는 교육 지도, 관리기관이 다르다. 남은 교육부가 지도, 관리를 하면서도 지역교육청에 자발성이 높지만 북은 조선노동당 안의 교육위원회가 모든 것을 지도, 관리하고 지역, 학교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 넷째 무상교육에서 차이가 있다. 남은 의무교육 기간에 한해서 무상교육을 하지만 북은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무상교육을 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교복, 교과서, 교재, 가방, 학용품까지 국가에서 공급하고 있다.

[그림 IV-1] 남북의 학제 비교



136) 박정원,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03-17, 2003), pp. 83-85.

## 2. 김정은 시대 북 교육의 변화

### 가. 김정은 시대 교육 정책의 변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9월 5일에 열린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새 세기 교육 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라고 자신만의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시한다. 36년 만에 열린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핵심 5대 과제의 하나로 공포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 총화 보고에서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면서 ‘새 세대들을 …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 수 있게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여야 합니다. 중등 교육 기간에 학생들을 … 완성된 중등 일반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지닌 나라의 쓸모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종체계를 완비해나가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실속 있게 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sup>137)</sup>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 변화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sup>138)</sup>.

첫째, ‘새 세기 인재’의 유형으로 ‘창조형’, ‘실천형’ 인재의 강조이다.

지금의 시대는 공업경제 시대가 아니라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이고 이것이 ‘새 세기’라고 본다. 새 세기에 요구되는 ‘창조형 인재’는 “배운 지식을 재현시키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에 토대하여 제 머리로 착상설계하고 새것을 발명, 창조할 줄 아는” 사람이며, “튼튼한 기초학력과 복합형의 지식구조, 높은 정보소유능력과 경쟁능력, 협동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지식의 암기가 아닌 원리에 대한 인식과 응용능력이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정보화 강조이다.

지난해 평양교원대학을 참관한 수많은 교육단위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현대 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이 도입된 우리 식의 새 교수 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 일제히 진입하였다.(중략) 교육위원회에서는 평양시 안의 교육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학교에서 가상현실기술, 증강현실기술, 교육예측과 교육평가기술을 비롯한 현대교육기술을 도입한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해나가도록 사회주의 경쟁의 불을 걸었다.

137) 정영철 외,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과제 도출 및 지원 방안』 (교육부: 2018), p. 86.

138)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과정』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2015), pp. 3~5.

(노동신문, 20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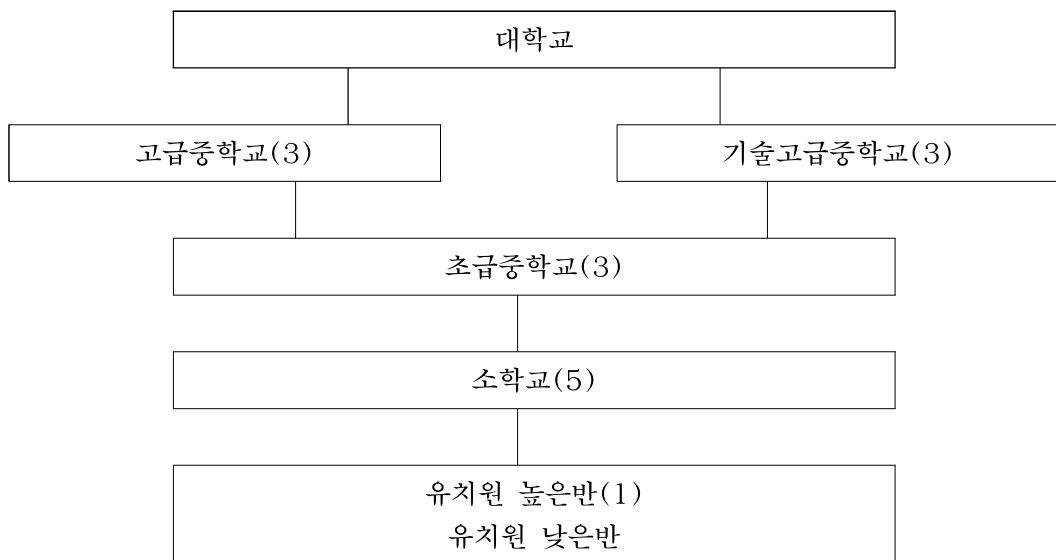
교과서와 여러 가지 참고도서, 과외도서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학습장을 비롯한 학용품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 교육 사업을 현대화, 정보화 하는데 필요한 수단들과 여러 가지 실험실습설비, 실험기구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어야 한다.

(노동신문, 2019.3.11)

지식경제시대의 진입에 따라 교수 매체의 멀티미디어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교육의 발전, 학습환경 및 교수방식 설계 중시, 교육에서 인공지능 응용 연구 심화, 교육 기술 응용방식의 다양화 등 다양한 교육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학습 자료로 전자도서, 동영상자료 등 전자매체 활용, 모의실험이나 설계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추진되었으며, 2007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원격 교육이 도입되었다. 교수 및 실험실습의 정보화와 교육 행정관리의 컴퓨터화, 교육기관들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중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습장들도 새롭게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해주고 실험실 설비와 실험기구들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등 교육시설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IV-2] 북의 일반교육 체계



셋째, 세계적인 교육 추세, 기존의 강조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월 담화문과 2019년 신년사에서 교육의 세계적 추세와 기준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발전을 떼메고 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교육 관련 신문과 정기간행물에도 교육의 세계적 추세에 대해 해설하고 이에 기반해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이 전하는 세계적 교육 추세는 학교교육을 넘어서는 평생교육의 발전, 고등교육체계 통합, 고등교육을 통한 수재 양성, 의무교육 연장, 중등교육의 다양화 및 직업화, 교육정보화, 분과형 교육과정에서 통합형 교육과정으로의 이행, 통합적·연관적 사고능력 함양, 지식전수 위주에서 사고 위주의 교육방법으로의 전환, 탐구·발견식 교수방법, 토론식 교수방법 등을 도입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교종의 창설이다. 중등 이상의 기술교육 강화 및 기술자 양성을 위한 ‘기술고급중학교’를 창설한다. 북 매체들은 2017년 교육 부문의 대표적인 성과의 하나로 꼽고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일환으로 전 인민을 대학 졸업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육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북의 학제가 소학교(5년)-초급중학교(3년)-고급중학교(3)/기술고급중학교(3년)-대학교(4~6년)으로 바뀔 수도 있다.

#### 나. 김정은 시대 교육 제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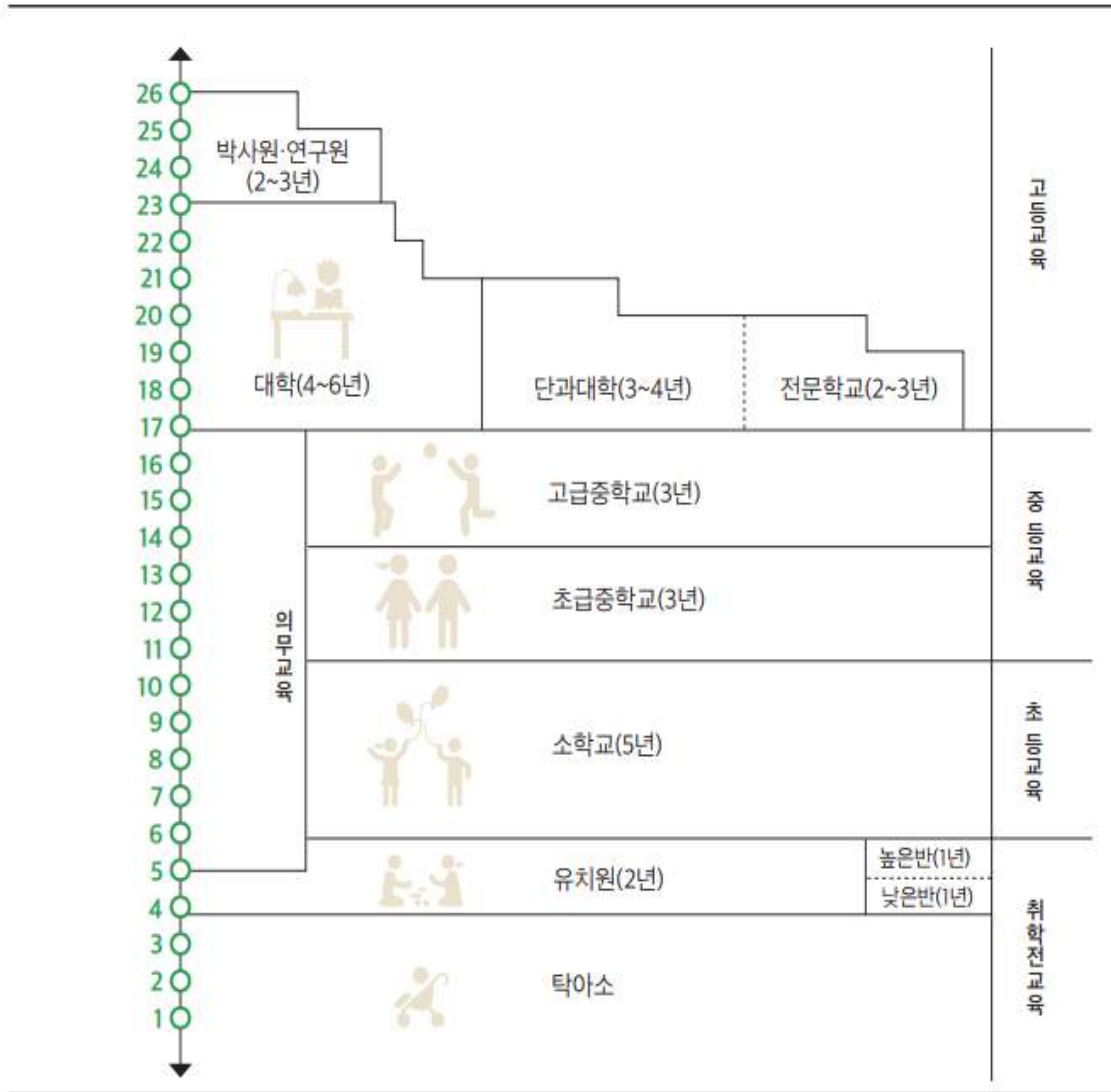
북은 1990년대 위기의 극복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의 압력, 대북제재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국가전략 목표인 ‘강성대국’을 제시한다. 이후 북은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강성국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내용상에서 큰 변화는 없다. 새로운 국가전략 목표인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서 김정일 시대인 2000년대부터 시도했던 교육정책의 변화가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전면화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 분야부터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하여 2017년에 학제 변화의 완성을 선언한다.

기존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의 11년제 의무교육체제를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이라는 12년제 의무교

육체제로 전환한다.

[그림 IV-3] 북의 변화된 학제



\* 출처: 통일부 통일 교육원의 2020 북한 이해. p. 236.

북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으로 6가지를 추진한다.

1) 소학교를 4년제에서 5년제로 전환하는데 맞게 교원 로력기구와 교원 양성 부문 대학 입학생 계획을 늘린다. 2) 시(구역), 군 단위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학과 실력이 가장 우수하며 교원으로서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중학교 졸업생(제1중학교 졸업생 포함)을 엄선하여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 추천, 입학시키며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

들을 교원이 부족한 학교들에 모조건 배치하는 엄격한 교율을 세운다. 3) 교원경력자, 적격자들을 찾아내어 부족한 교원대렬을 보충한다. 4) 2014년 새 학년도 이전으로 사범대학, 교원대학 과정안을 검토하고 교원 양성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교원강습, 재교육을 강화하여 교원,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인다. 5) 교수의 실험 실습을 정보화하고 교원행정관리를 컴퓨터화하며 교육위원회와 전국의 교육 기관들 사이의 정보통신망을 형성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6)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중등 일반 교육 부문에서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한다.<sup>139)</sup>

김정은 시대 교육체제의 변화의 특징은 지식경제 시대, 정보산업 시대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의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변화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 기준에 따른 제도적 변화라 할 수 있다.

12년제 의무교육으로의 전환은 학교, 교사, 교재, 교복 등 하드웨어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새롭게 생긴 소학교 5학년의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의 교과과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방대한 문제이다. 단순히 소학교 1학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기에 전당, 전국가, 전사회가 힘을 넣어야 하는 사업으로 5년간의 작업을 통해 2017년에 마무리를 한다.

#### 다. 김정은 시대 교육과정의 변화

2012년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한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에 따라 북의 교육위원회는 2013년에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이하 교육강령)을 발표한다. 이것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총적 방향과 교육 과정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남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남과 북이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고 체제가 다르다 보니 같은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교육 용어에서 차이가 생겨났다. 북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강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남쪽의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과과정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남쪽의 교육부에 준하는 조선노동당의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공적 문서이다. 북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교육강령’으로 구별하고, 교육강령에 포함된 총론은 과정안, 교과 과정은 교수과정안으로 칭한다. 교육강령은 총론과 교과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고, 총론은 “학교 전반의 총체적인 학업 진행계획, 즉 학업 진행과정과 학년별 과목 수 및 이수시간 수 등을 규정”한다. 교과 교육과정은 ‘교수요강’으로 불리며, “학과목의 교수 과정 조직과 교수 내용 및 방법을 규제하는 교육강령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정의된다.<sup>140)</sup>

139) 북 교육위원회, 교육신문(2012.10.2.), 2018, 엄현숙, 188에서 재인용

140) 김진숙,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교과교육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호, 2017). p. 24.

[표 IV-10] 남북 교육과정 용어 및 총론의 의미 비교

	남	북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과정(유치원 교육과정)</li> <li>- 교육과정(총론 및 영역)</li> <li>* 교육과정(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li> <li>- 교육과정 총론</li> <li>- 교과 교육과정</li> <li>-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보육 교양강령(유치원, 탁아소)</li> <li>- 유치원 과정안(총론 및 교과)</li> <li>* 교육강령(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li> <li>- 과정안(총론)</li> <li>- 교수요강(교과 교육과정)</li> </ul>
발간처	* 교육부	* 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총론의 의미	* 학교 교육의 일반적 방향과 강조점을 나타낸 교육 과정 구성 방향,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 교과 및 비교과활동의 편제와 시간 배당 그리고 교육 과정 운영지침을 제시한 교육과정의 총괄적 부분	* 학교 전반의 총체적인 학업 진행계획, 즉 학업 진행과정과 학년별 과목 및 그 시간 수 등을 규정하는 것

\* 출처 : 김진숙(2016),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p. 4

북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남쪽과 같다. 남쪽은 과거 특별활동, 재량활동으로 사용하던 비교과의 명칭을 2009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은 비교과를 ‘학교 과외활동’이라고 말한다. 북의 과외 활동은 3개의 영역이 있는데 ‘과외학습’, ‘과외체육’은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공통으로 적용되는데 이것은 남쪽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과 유사하다.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에서는 ‘소년단’ 생활이 있고 고급중학교에서는 ‘청년동맹’ 생활을 하는데 이런 활동은 남쪽에는 없는 북만의 독특한 조직 생활이다.<sup>141)</sup>

141)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호, 2016). p. 8.

1) 소학교

[표 IV-11] 북의 개편된 소학교 교육과정

구분	학년 교과명	1996년~2008년				2013년				
		1	2	3	4	1	2	3	4	5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1	1	1	1	1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1	1	1	1	1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어린시절				1	1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1
5	사회주의 도덕	2	2	1	1	1	1	1	1	1
6	국어	6	6	7	8	7	7	7	7	7
7	영어			1	1				2	2
8	수학	6	6	6	6	4	5	5	5	5
9	자연	2	2	2	2	1주	1주	2	2	2
10	체육	2	2	2	2	2	2	2	2	2
	위생				1					
11	음악무용	2	2	2	2	2	2	2	2	2
12	도화공작	2	2	1	1	2	2	2	2	2
13	정보기술(컴퓨터)			1	1				1주	1주

\* 괄호 안은 2012년 개편 이전의 과목명

\*\* 출처: 김진숙,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교과교육 동향』, KDI북한경제리뷰 2017년 8호, p. 28.

2012년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을 하면서 소학교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2013년 조선노동당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 의해 변화된 소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 시절’ 과목이 추가되고 ‘위생’과목이 사라지면서 소학교 5년 동안 총 13개 과목이 편제되었다. 주당 수업시간은 국어, 수학, 체육, 음악무용, 도화공작 순으로 많으며, 영어 수업이 더 늘어났고 자연과 정보기술은 ‘1주’ 수업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교수’시간이다. 이는 블록 스케줄링(block scheduling)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sup>142)</sup>

142) 김진숙,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교과교육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호, 2017). p. 27.



2) 초급중학교

[표 IV-12] 북의 개편된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구분	학년 교과명	1996년~2008년			2013년		
		1	2	3	1	2	3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104)	2	-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2	2	2	-	2	4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력사	1			-	1/2	-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력사				1	1	1
5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	1주(20)	1주	1주
6	사회주의 도덕과 법(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7	심리와 논리				-	-	1주
8	국어문학(문학)	4	3	2	3	2	3
9	한문	1	1	1	1	1	1
10	영어(외국어)	3	3	3	3	3	3
11	력사	2	2	2	1	1	2
12	지리	2	2		1	1	1
13	수학	6	6	6	5	5/4	4
14	물리	4	4	4	5	4	3
15	화학	3	3	4	3	4	2
16	생물	2	3	3	3	3	2
17	정보기술(컴퓨터)	2	2	2	2	1	1
18	기초기술(실습)	1주	1주	1주	2주	3주	3주
19	공업(농업)기술				-	-	4
20	체육	1	1	1	1	1	1
21	예술(음악)	1	1	1	1	1	1
	제도	1	1		-	-	-
22	군사활동초보				-	1주(48 )	1주(48 )

\* 괄호 안은 2012년 개편 이전의 과목명

\*\* 구분에 번호가 없는 것은 12년제 의무교육 체제 이후 사라진 과목

\*\*\* 출처: 김진숙,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교과교육 동향', KDI북한경제리뷰 2017년 8호, p. 29.

중등교육과정은 기존에는 6년제였으나 2012년 학제 개편에 따라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활동',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자연과학', '정보기술' 과목이 새롭게 생겨나고 '한문', '물리', '화학', '생물'의 과목이 사라지면서 총 과목수는 16개이다. 주당 수업 시간은 32시간이다.

‘지식경제 강국’을 이룰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초과학, 컴퓨터기술, 외국어 교육’과 자립적인 학습 능력과, 창조적 능력의 배양, 실험실습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sup>143)</sup>

### 3) 고급중학교

[표 IV-13] 북의 개편된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구분	학년 교과명	1996년~2008년			2013년		
		1	2	3	1	2	3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2	-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	2	2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활동				1	-	-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5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6	국어	5	5	4	5	5	5
	한문	2	2	1	-	-	-
7	영어(외국어)	4	3	3	4	4	4
8	력사(조선력사)	1	1	2	1	1	2
9	지리(조선지리)	2	2	2	1	1	1
10	수학	7	7	6	6	5	6
11	자연과학				5	5	5
	물리		2	3	-	-	-
	화학			2	-	-	-
	생물		2	2	-	-	-
12	정보기술				2주	2주	2주
13	기초기술(실습)	1주	1주	1주	1	1	1
14	체육	2	2	2	2(1주)	2(1주)	2(1주)
15	음악(음악무용)	1	1	1	1	1	1
16	미술	1	1	1	1	1	1

\* 괄호 안은 2012년 개편 이전의 과목명

\*\* 구분에 번호가 없는 것은 12년제 의무교육 체제 이후 사라진 과목

\*\*\* 출처: 김진숙,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교과교육 동향’, KDI북한경제리뷰 2017년 8호, p. 30.

고급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제도’과목이 사라지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력사’, ‘공업(농업)기술’, ‘군사활동초보’ 과목이 신설되어 총 22개 과목을 배우게 된다. 주당 수업시간은 34시간이다. 제2외국어 과목은 사라지고 영어만 배우게 된다. 북의

143) 북 교육위원회, 『교육신문』, 2014년 5월 8일.

고급중학교는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진학보다는 졸업 후 군대 생활이나 직업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과목들로 편제된 특징이 있다.

북의 교육강령에는 교과 수업 이외에도 견학 1주, ‘붉은청년근위대’ 훈련 1주, 나무 심기 3주, 생산노동 9주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교육강령이 있는 것은 이론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해야 한다는 사회주의교육 기본원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김정은 시대 북의 변화와 우리 인식의 변화 필요성

#### 가. 북 붕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면 북이 붕괴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30년 넘은 ‘북 붕괴론’에서 벗어나 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평화적 관점에서 교류를 해야 한다.

1990년대 초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20세기의 세계의 큰 체제였던 미소 냉전체제가 해체되었다. 세계의 시선은 아직까지 붕괴되지 않은 북을 향했고 북도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처럼 곧 망할거라고 많은 세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였다. 여기에 100년 만의 홍수와 가뭄이라는 큰 자연재해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북 이탈주민들이 생겨났으며, 극심한 에너지난으로 모든 공장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3,3,3을 얘기했다. 북은 3주가 아니면 3개월 길어야 3년 안에 망할 거라는 말이다. 하지만 북은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선군정치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열강들의 각축전 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젯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 떨치고 있습니다.(중략)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중략) 일심단 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 국가입니다.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2012.4.15.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태양절 기념사)

2012년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인 4월 15일 태양절 행사에서 ‘어젯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이 되어서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말하였다.<sup>144)</sup> 그러면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이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강국’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하였다. 전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군사강국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한다.<sup>145)</sup>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주장한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1962년의 ‘국방경제 병진노선’<sup>146)</sup>과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인 전략노선이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북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며 앞으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서 4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첫째,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 법기관 무력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것이다.

셋째,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실무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144)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 2012년 4월 15일

145)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46) ‘국방경제 병진노선’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 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처음 제시되었다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된다. 이로 인해 1960년 재정의 3.1%가 북 전체 예산의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8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과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들을 결정문에 채택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결정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둘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나라를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것이다.

셋째, 과학교육부문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앨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전 사회적으로 과학중시, 교육중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 것이다.

다섯째,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하면서 철저히 집행할 것이다.

여섯째,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행정실무적대책을 세울 것이다.

(2018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

1990년대부터 북이 취한 전략노선을 보면 선군노선(1995)->국방경제 병진노선(2013)->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노선(2018)으로 이어졌는데 먼저 국방력을 높여 자위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역량을 점점 경제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V-4] 변화되는 평양 도시



\* 출처 : 한국일보, 한스자이텔재단147)



[그림 IV-5] 김정은 시대 이후 건설된 건축물

 <p>평양 문수 물놀이장(2013)</p>	 <p>강원도 마식령 스키장(2014)</p>
 <p>평양 미래과학자거리(2015)</p>	 <p>평양 려명거리(2017)</p>
 <p>평안남도 양덕온천지구(2019)</p>	 <p>양강도 삼지연시(2020)</p>

북의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노력들은 평양과 지방의 곳곳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평양에 새로운 거리와 건축물이 들어서고 기존의 낡은 건물들이 재건축되면서 ‘회색 도시’ 평양이 ‘무지개 도시’로 변하였다. 위의 그림은 평양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13년 동안 평양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외에도 평양의 문수물놀이장(2013), 평양시 은하과학자거리(2013), 강원도 마식령스키장(2014), 평양시 미래과학자거리(2015), 평양시 려명거리(2017),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장 강원도 세포등관 목장(2017), 평안남도 양덕온천지구(2019), 양강도의 삼지연시(2020)등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대규모의 건설 붐이 일

147) 『한국일보』, 사람 사는 도시, 평양의 색(검색일: 2020,12,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261566353377>

어나고, 스마트폰 보급이 600만대<sup>148)</sup>를 넘어섰고, 자동차가 많이 들어나는 등 북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압박하면 북이 망하리라는 생각을 30년째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가 있지만 북은 서방세계에 항복을 하지도 붕괴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단지 살아남는데 급급한 ‘자력갱생’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 수준의 사회주의 문명국을 만들겠다고 ‘자력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망하지 않는 북과 언제까지 체제경쟁과 군비경쟁을 할 것인가? 이제는 북 붕괴론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과감하게 북과 교류, 협력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나. 기존 안보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안보(安保)의 개념은 국가가 외부세력의 위협,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외부세력의 위협,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 예산 중 많은 비용을 국방비에 책정하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다.

그러나 세계적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의 물적, 인적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안보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연설, 2020)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환경 문제, 현재 전 세계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 문제 등은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 세계에서 발생하여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국방안보 개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안보의 개념으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말을 쓰고 있다. 확장

148) 『시사저널』, 이영중 기자(검색일: 2020.11.30.)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298>

된 안보의 개념은 전쟁의 부재만을 이야기하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구조적, 문화적 원인까지도 제거되고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아니라 행복과 번영을 누리 수 있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지리, 기후, 환경은 모두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 있기에 남과 북은 현재 정전 중이지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 홍수 조절 문제와 수질 문제도 협력이 필요하고, 말라리아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사업,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산불 같은 재해에 대한 공동 대처 등 남북은 적대적 대결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남북이 현재 전쟁을 잠시 멈춘 분단체제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평화공동체, 생명공동체는 만들 수 없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남북미의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한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남북이 오랜 분단으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국방을 중심으로 한 ‘안보’의 개념에서 벗어나 평화적 관점에서 ‘안보’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발 더 나아가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안보,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보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평화를 위한 안보’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식 속에는 ‘안보를 위한 안보’가 자리잡고 있다.

2018년 3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했음에도 2020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북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다만 미국의 자신들에 대한 핵 위협이 사라질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다.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5항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남과 합의를 본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2018.9.19. 평양공동선언)

5항에서 ‘핵무기’는 북의 핵을 염두에 둔 남의 요구가 반영되었고 ‘핵 위협이 없는’은 미국의 핵 위협을 염두에 둔 북의 요구가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합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남쪽에서는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이 ‘북핵’이라고 표현하지만 모든 남북 합의, 북미의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있다. 다음은 북이 ‘한반도 핵 문제’를 바라



보는 입장을 읽을 수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글을 보겠다.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재를 가해온다고 우리가 못사는것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미국에 끌려다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에 와서 하노이의 회담탁에 올랐던 일부 제재 해제와 우리 핵 개발의 중추신경인 념변지구와 같은 대규모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다시 흥정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  
(중략)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동지도 트럼프대통령에게 분명한 립장을 밝히신 적이 있다.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것이 편하게 흘러갈것이다.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것을 분명히 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1부부장 2020년 7월 10일 담화)

북은 자신들이 핵을 만든 이유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한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북에 핵무기 30개를 터뜨리자는 미국의 핵 위협, 1958년부터 1991년까지 1천 개에 육박한 남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 1976년부터 시작된 핵전력 자산을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 북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 등이 미국의 핵 위협이고 이것이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북이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북의 핵 포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남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북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이 중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남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2018년 3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교류협

력에 대한 많은 합의를 하였다. 금강산 관광 재재, 개성공단 재개, 북 철도 현대화 사업,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하기로 하였으나 한 개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합의된 사업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반대와 함께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한 남쪽의 정책 때문이다. 북은 미국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다행히 2020년부터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북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개별 관광’, 북의 술과 남의 설탕을 교환하는 ‘물물교환’ 방식 등을 찾아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문제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로 친서를 주고받았으며 2020년 10월 당창건 75돌 경축 기념사에서 남쪽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sup>149)</sup>

#### 4. 북 교육의 변화와 남북교육교류의 시사점

2018년 남북의 두 정상은 3번을 만나고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교육 교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동시에 40년간 유지했던 11년제 의무교육체제가 2017년 12년제 의무교육체제로 마무리되면서 북의 교육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다. 북의 교육체제의 변화가 남북의 교육 교류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북의 교육체제 변화가 남북교육교류에 주는 시사점의 첫 번째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남북교육교류가 가능하다. 구동존이(求同存異)는 말 그대로 “공통점을 구하고 차이점은 놔둔다”는 의미이다. 남과 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체제의 다름으로 70년 넘게 분단되었다. 또한 남북교류가 10년 동안 중단된 상황에서 민감하고 정치적 위험부담이 큰 교육 교류를 급격하게 활성화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북은 12년제 의무교육체제로 변환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린시절, 혁명 활동을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과목으로 신설하는 등 정치사상교육을 더 강화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을 통해 “국가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제3조)로 아예 법에 명시를 하였다. 북의 붕괴 조짐도 없고 동독처럼 남쪽으로 편입되기를 바라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면서 교육목표, 교육이념, 교육내용 같은 민감한 부분의 교육 교류는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다.

---

149) 2020년 10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창건 75돌 경축 기념사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의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다시 이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라고 하였다.

남북의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 덜 민감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교육 교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이면 좀 더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북의 교육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교육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수학과 과학기술의 수업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고급중학교를 전국적으로 설립하고 있다. 이는 남북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주제별 교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북의 12년 학제가 남의 12년 학제와 비슷해지면서 남북의 학년별 교사, 학생 간의 교류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계적 추세, 기준에서 교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북은 12년제 의무교육 체제 전환에서 세계적 추세, 기준을 강조하고 따르려 하고 있다. 국제 공용어인 영어 교육을 소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창조형, 실천형 인재를 양성 하려고 하며, 통합적이고 연관적인 사고능력을 강조하며, 교육과정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교육의 기본 소양교육을 강조하며, 자연, 체육, 정보기술에 적용된 '1주'와 같은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교수' 시간인 블록 스케줄링(block scheduling)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추려는 활동들은 남쪽과 교류할 분야, 내용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북은 교수의 실험 실습을 정보화하고 교원행정관리를 컴퓨터화하며 전국의 교육기관들 사이의 정보통신망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남의 뛰어난 컴퓨터와 정보처리 능력 등은 북과 좋은 교류가 될 수 있다. 북도 원하고 남도 생색을 낼 수 있는 좋은 교육 교류 분야이다. 컴퓨터를 통한 교수법, 실험 실습의 정보화, 교육 행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협력과 장비 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들에게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남북이 교류할 수 있고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남북 학생 교류를 할 수도 있다. 북은 2013년부터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이 개최하는 국제 인터넷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전력이 있다.<sup>150)</sup> 남북 학생 드론 대회, 코딩대회, 로봇대회, 산업디자인 대회 등 컴퓨터 관련 남북 교류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슨 '대회'의 대회는 남북의 학생들이 경쟁을 하는 방식보다는 남북의 학생들이 쉬여서 한 팀을 이루고 미션을 팀별로 협력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행사를 '대회'라고 볼 수 있다.

---

150) 『매일경제』, 북한 김책공대 학생,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서 나란히 1·2위(검색일: 2020.11.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6/603899/>

## V. 광역시도교육청의 교육 교류 현황 및 법, 제도적 검토

### 1. 사업 사례와 계획

#### 가. 광역시도교육청별 교류협력

##### 1) 광역시도교육청별 교류협력추진 사례

남과 북의 실질적인 교육 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시도별 교육청의 교류 추진 준비가 최우선의 과제다. 판문점 선언 이후 여러 광역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준비에 돌입했지만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실질적인 교류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태다. 기존의 교육청별 조례 제정과 기금 마련 등 남북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준비 상태는 어떠한가?

선행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각 시도교육청 남북교육 교류를 위한 조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V-1] 교육청 남북교육 교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강원도남북교육 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8.9.28. 폐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	2007.12.21
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5.11.4
3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9.5.2
4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8.12.31
5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9.1.1
6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9.6.13
7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0.10.28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9.4.19

남북교육 교류조례의 제정과 관련 기금 마련은 교육청이 남북교육 교류를 지속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남북교육 교류 조례 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은 강원도 교육청이다.

강원도 교육청은 2006년 7월 4일 <강원도 남북교육 교류 협력위원회 조례안>과

〈강원도 남북교육교류 협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동시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었다. 이후 두 조례는 2018년 9월 28일 폐지되고 〈강원도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되었다. 이로써 강원도 교육청은 남북 교육기금까지 설치하는 최초의 교육청이 되었다. 이후 강원도에 이어 전북, 경기, 경북, 광주, 제주, 전남 순으로 남북교육 교류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sup>151)</sup>

그 뒤,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남북교육 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이어 서 울산광역시도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책임소위원회 8개 중 하나로 남북교육 교류협력소위원회가 있다.

역할은 맡은 주제에 대해 해당교육청에서 정책을 해보고 다른 교육청에 사례 발표하는 식인데 본 소위원회는 사업의 성격상 시도교육청 교육부 통일부 한국교육개발원 민간단체 등의 협력체제 구축 을 기본으로 남북교육 교류사업 전문성 신장 및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고 있다.

#### 나.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 내 사업 계획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과 함께 각 시도교육청별로 남북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이다. 2020년 현재 남북교육 교류에 대한 교육청별 조례 현황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준비가 진행되는 곳과 일단 조례만을 제정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과제로만 설정된 곳이 있다.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의 현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강원과 전북 경기를 필두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나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조례는 실제 교류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강원도교육청만이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유소년축구경기가 성사되어 조례와 기금의 실행을 경험한 유일한 교육청이 되었다.

전북교육청도 선도적으로 준비를 서둘렀으나 조례는 빛을 발하지 못했고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 역시 통일 교육과 남북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았으나 실제로 교류를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조례 안에 협력 사업은 교육감이 정하는 사업으로 지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중 가장 자세하고 많은 항목을 명기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151) 정영철 외,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과제도출 및 지원 방안』 (교육부: 2018), pp. 19~23.

경기도 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항목을 정하였는데 다른 교육청들도 참고할 만하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2.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 학생과 북한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문화예술·체육 활동
  4.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업
  5.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
- ※ 1,2,3,5번 사업 관련 내용은 2019.3.13.에 개정

[표 V-2] 시도교육청별 조례 현황 협력 사업 비교(2020.11.20)

교육청	조례제정 시기	협력사업 범위
강원	2007.12.21	북한 교육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협력
전북	2010.10.28	
경기	2015.11.4 2019.3.13 개정	1. 교육청과 북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2.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 학생과 북한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문화예술·체육 활동 4.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업 5.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 ※ 1,2,3,5번 사업 관련 내용은 2019.3.13.에 개정
경북	2018.12.31	1. 교육청과 북한 지역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경상북도 내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광주	2019.3.1	
제주	2019.4.10	1. 도교육청과 북한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북한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경남	2019.04.19	1.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경상남도 내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전남	2019.6.13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활동
서울	2019.7.18 2020.9.24	1.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교류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울산	2020.9.28 입법예고	
※ 충남, 부산, 인천, 세종, 충북, 대전, 대구는 아직 없음		

대체로 북한의 교육기관 및 단체와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며 교육자 및 학생 간 상호 교류 협력의 의지를 비추고 있다. 하지만 교육자 교류는 과거 교육 단체 간에도 어느 정도 성사된 적이 있지만 학생 교류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절차나 프로그램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밖에 학술, 문화, 체육 활동이나 물품 지원 사업 등이 기획되어 있는데, 이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 상황에 따라 실제 교육 교류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다.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기금 상황

각시도교육청별 교류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기금 모금에 관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V-3] 남북교육교류 설문 기금 부분(2020.11.20.)

번호	교육청	조례 제정·혹은 개정	조례 안에 기금 내용	남북 교류사업 관련 기금 상황	향후 남북 교류사업과 관련된 기금 목표	기금 집행 경험
1	강원	있음	있음	893,750,000	목표액은 따로 없으며, 매년 11억 원 조성	있음
2	광주	있음	있음	90억 5천만 원	150억	없음
3	전북	있음	있음	8억	14억	없음
4	경기	있음	있음	30억	50억	없음
5	서울	있음	있음	2020년 10억 조성 이후 5년간 50억 예정	2020년 10억 조성 해마다 10억씩 5년간 50억	없음
6	경남	있음	있음	기금조성 계획 중	2021년 5억 조성 이후 해마다 2억 조성 예정	없음
7	전남	있음	있음	1억	4년간 매년 1억씩 4억	없음
8	울산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9	제주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0	경북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11	부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대전, 대구 등은 일체 없음					

경북, 광주, 제주, 경남, 전남, 서울, 울산교육청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조례 제정을 시행하였다. 이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교육청들이 기금 조성을 기획했으며 기간은 대체로 향후 5년 정도 모금과 사용을 기획하였고 향후 연장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

라.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계획 방향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북교육청 등은 10억 가까운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그만큼 남북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반증이다. 기금을 실제 사업을 성사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에 따른 규모와 방향에 맞추어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

[표 V-4] 남북교육교류 설문 결과2(2020.11.20.)

번호	교육청	2018 이후 남북교육 교류사업 계획	계획한 남북교육 교류사업 중 인적교류	물적 교류 사업 내용
1	강원	있음	스포츠교류활동, 역사유적탐방활동, 교육자교류활동, 청소년및어린이교류활동, 관내평화통일 교육활동	교육관련 지원 사업
2	광주	있음	역사, 문화, 예술 교류 활동, 역사 유적 탐방 활동, 교육자 교류 활동(남북 교사들의 만남 등), 청소년 및 어린이 교류 활동	교육관련 지원 사업
3	전북	있음	스포츠교류활동, 역사, 문화, 예술교류활동,	분유지원
4	경기	있음	스포츠교류활동, 역사, 문화, 예술교류활동, 역사유적탐방활동, 교육자교류활동(남북교사들의만남등), 청소년 및 어린이 교류활동	교육관련 지원 사업
5	서울	있음	스포츠 교류 활동, 역사, 문화, 예술 교류 활동, 역사 유적 탐방 활동, 교육자 교류 활동(남북 교사들의 만남 등), 청소년 및 어린이 교류 활동, 관내 평화 통일 교육활동	교육관련 지원 사업
6	경남	있음	역사, 문화, 예술교육활동	
7	전남	있음	역사, 문화, 예술 교류 활동, 교육자 교류 활동(남북 교사들의 만남 등), 청소년 및 어린이 교류 활동	교육관련 지원 사업
8	울산	있음	역사, 문화, 예술 교류 활동, 청소년 및 어린이 교류 활동	계획 없음
9	제주	있음	청소년 및 어린이 교류 활동	
10	경북	없음	2021년에 계획 수립 예정	2021년에 계획 수립 예정
11	부산	있음		없음
12	인천	있음	역사, 문화, 예술 교류 활동	북측 학교숲 조성사업지원
13	세종	있음	관내 평화통일 교육활동	없음
14	충남, 충북, 대전, 대구	없음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된 시도교육청들은 모두 교육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주된 교류 내용으로는 스포츠 교류 활동, 역사, 문화, 예술 교류 활동, 역사 유적 탐방 활동, 교육자 교류 활동(남북 교사들의 만남 등), 청소년 및 어린이 교류 활동, 관내 평화통일 교육활동 등 다양하였으며 물적 교류의 경우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북한에서 과거 지원 사업과는 다른 차원의 교류 사업을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마.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점

판문점 선언 이전에는 남북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시도교육청이 3개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10개까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남북의 평화 번영을 기반으로 한 통일 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거나 조례를 만들었어도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시도교육청은 하루 속히 기금 마련에 힘써야 한다.

유일하게 강원도 교육청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평창 올림픽 같은 역사적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미리 평소에 준비를 해둔 덕분이다. 그만큼 남북 관계의 역사는 예정에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 VI.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준비와 제언

### 1. 남북교육교류의 원칙

현재 남과 북은 체제가 다른 상태로 70년 넘게 살아왔고 10년 동안 남북 교류가 중단되었다. 또한 현재 북의 상황이 1990년대 중반의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교육교류를 다시 재개하려는 현 상황에서는 위의 변화된 상황들이 남북교육교류의 새로운 원칙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남북교육교류의 첫 번째 원칙은 남북교육교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원칙을 굳이 재확인하는 이유는 예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예전에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 남쪽 지자체, 기관에서 북에 제안했던 사업들 중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북이라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나 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한 욕심과 조급성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교류 사업은 남북이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단순히 과거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 협력의 과정에서 남북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교류 사업은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하여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남북의 요구가 합의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될 때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체육, 예술, 보건, 경제, 군사, 과학, 첨단기술 등 남북 간의 수많은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가 높아질 때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낮아지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는 성숙될 것이다. 교육 교류 또한 다른 분야의 교류처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사업들이 제안되고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교육교류의 두 번째 원칙은 상호존중과 공리공영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상호존중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또는 일방적이고 고압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남북간에 대결과 대립만 키울 뿐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른다. 3년 동안 100년 만의 흉수와 가뭄으로 심각한 에너지난과 식량난을 맞이한다. 또한 물물교환으로 거래를 해 오던 사회주의권이 1980년대 후반부터 몰락하면서 북은 무역할 국가가 사라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제재와 달러 부족은

외국에서 식량과 석유, 자원을 구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북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의 아사자와 북 이탈주민들이 발생하게 된다.

북은 사회주의권의 몰락, 100년 만의 자연재해, 외화 부족으로 국가체제의 붕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 남쪽의 많은 국민들은 1990년대 이후 북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억함으로써 북을 ‘가난’, ‘탈북자’, ‘못 사는 나라’ 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의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북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과학과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며 2019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40조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sup>152)</sup>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2018년 북은 예전의 단순한 지원보다는 북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을 해달라고 방북한 대북지원단체들에게 얘기한다.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격차를 갖고서 북을 무시하거나 고압적 자세를 갖기보다는 상호 존중의 마음을 갖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리공영의 사업을 제안하고 교류,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전의 지원 위주의 교류보다는 현재 북이 강하게 원하는 과학 분야에서 교육 교류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

남북교육교류의 세 번째 원칙은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시스템을 후대들에게 가르쳐주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교육은 비정치적 분야가 아니라 가장 정치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교육 이념,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의 전일적 체계를 갖고서 교육을 한다. 남과 북도 자신들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일적 체계를 갖춘 교육을 실시한다.

남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교육을, 북은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교육 이념,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에서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의 교류협력이 이미 10년이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가 높지 않다. 따라서 남북의 교육 교류를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가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교육 이념, 교육 목표, 교육 내용을 평가하거나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교육 교류는 상대방의 체제를 위협,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이런 교육 교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교육체제를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 교류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처음부터 남북의 교사, 학생들이 직접적이고 대규모로 교류를 하기 보다는

---

152) 북 사회주의 헌법(2019),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단계적 사업의 방향은 소수에서 다수로, 일회적인 것에서 연례적인 것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교류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첫 단계에서는 적은 인원, 일회적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고 여기서 성과가 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좀 더 많은 인원, 좀 더 많은 횟수의 교류 사업을 진행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규모의 학생, 교사들이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좀 더 단계별로 구분을 한다면 1단계는 신뢰 쌓기 단계이다.

남북의 교사, 학생들이 소규모로 일회성 교류를 하는 단계이다. 남측의 교사, 학생들이 북측 교사, 학생과 섞이지 않으면서 북쪽의 금강산, 개성, 평양, 백두산 같은 북의 명승지를 방문하여 학생수련회, 교사연수 같은 남쪽만의 행사를 하는 것이다. 남쪽의 행사(교사연수, 학생수련회 등)를 단지 북쪽이라는 곳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북이 해주는 것은 장소와 편의시설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남쪽의 행사 중 한 꼭지를 북측 교사의 초청 강의나 북쪽 또래 청소년과의 간담회를 넣을 수는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남북의 학생 예술단 또는 체육팀(축구, 배구, 수영 등)의 교차 공연이나 경기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단계는 교류 확대 단계이다. 1단계보다는 교류하는 대상이 더 많아지고, 교류의 횟수도 더 늘어나며, 교류의 종류도 다양해지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단계이다.

교류하는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은 1단계에서 진행된 2~3개의 사업에 참여한 교사, 학생들보다는 더 많은 교사, 학생들이 교육 교류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대상을 초, 중, 고등학생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남북 교육자 모임을 할 수도 있다. 교사도 초, 중, 고등학교 교사로 더 세분화해서 교류를 할 수도 있다.

교류의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교류하는 대상이 늘어나면 당연히 교류의 횟수가 늘어나겠지만 그보다는 남쪽의 교류사업 주체가 북의 사업 대상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 교류는 남북이 공리공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속적인 교류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상호간의 친밀감, 동포애를 키워간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 교류는 남의 교사, 학생이 북의 교사, 학생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교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친숙함, 친밀감을 키우는 것이다.

교류의 종류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남북에 특성화된 학교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서울시 관내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이 2020년 4월 기준으로 128교이다.<sup>153)</sup> 북쪽도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교육의 강조에 따라 2017년에는 ‘기술고급중학교’가 전국적으로 100개가 설립<sup>154)</sup>되었으며 수재양성을 위한 제1중학교, 평양외국어

153)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서울시 학교 현황(검색일: 2020.11.15.)

학원, 예체능 인재양성을 위한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김정일예술학원’ 같은 특수 학교도 많이 있다. 남의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등학교와 북의 기술고급중학교, 특수학교 간에 교류협력이 가능하며 연례적이고 정기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

남북교육교류의 네 번째 원칙은 비정치적이고 비 이념적인 분야부터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다.

2018년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의미 있는 남북 합의를 하였지만 남북은 아직 67년째 정전상태이며 남북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되고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남북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문제는 남북의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는 남북의 정치, 군사적 대립이 커지고 긴장이 높아지면 교류 사업이 위축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교육 교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비정치적이고 비 이념적인 부분에서 교육 교류 사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수학여행’이다.

동서독도 교육 교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급별 수학여행이었으며 우리도 2000년대 초반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갈 때 국가가 학교에 수학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학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전례가 있다.

## 2. 남북교육교류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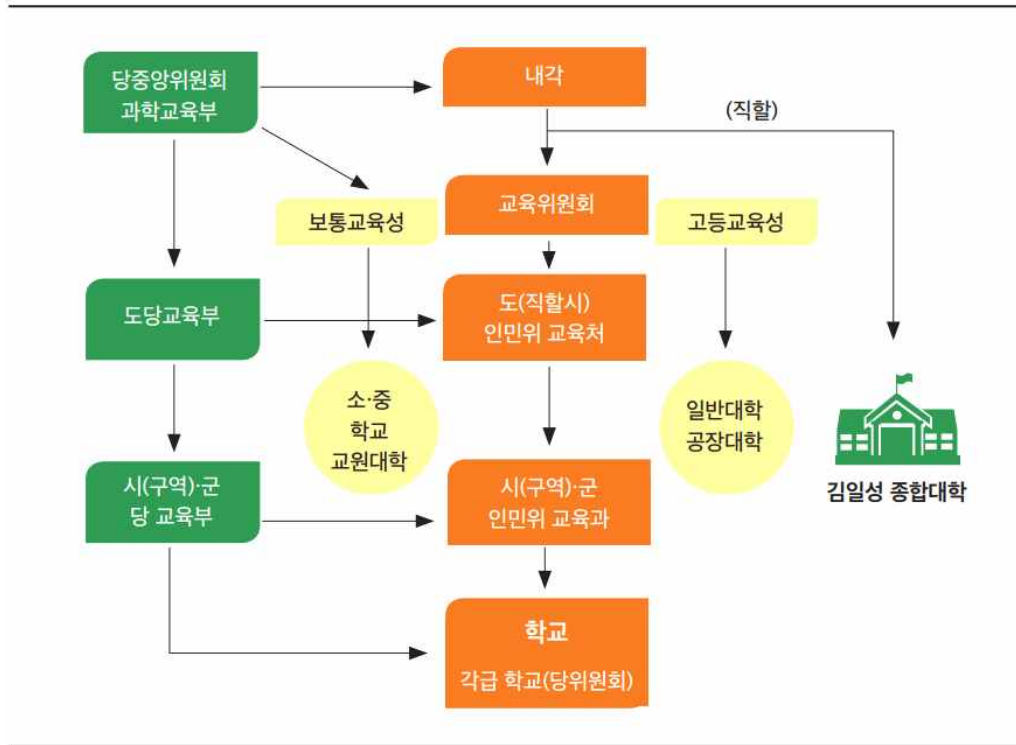
교육 교류는 북이라는 상대가 있으므로 북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북은 남쪽과는 다르게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회시스템이다.

우리의 행정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내각은 당의 지침을 받아서 집행하는 국가 기구이다. 조선노동당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업은 어느 하나도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북과 교육 교류를 하려면 먼저 북의 당, 특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와 합의가 되어야 한다. 북의 시스템에 맞춰 교육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154) 변학문, 북한의 기술특성화고교 ‘기술고급중학교’등장(검색일: 2020.12.06.)  
[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record\\_no=336](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record_no=336)

[그림 VI-1] 북의 교육행정 체계



먼저 1단계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와 합의를 보는 단계이다. 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는 북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최고 기구로써 여기서 교육 교류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남북교육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 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에서 남북교육교류에 대해 승인이 나면 다음에는 내각 산하의 교육위원회와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인 교육 교류의 실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2단계는 당의 지침을 집행하는 내각 산하의 교육 담당 부서인 ‘교육위원회’와 교류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단계이다. 교육위원회 안에는 ‘보통교육성’과 ‘고등교육성’이 있다. 보통교육성은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교원대학을 지도, 관리하는 부서이고 고등교육성은 일반대학, 공장대학을 지도, 관리하는 부서이다.<sup>155)</sup>

내각의 교육위원회 아래로 각 도(직할시) ‘인민위 교육처’가 있고 그 아래로 각 시(구역)·군 ‘인민위 교육과’가 있다. 1단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서울시교육청은 대화 파트너로써 평양직할시 인민위 교육처가 되겠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11개의 지역교육청<sup>156)</sup>이 평양직할시 인민위 교육처 산하에 있는 19개 구역 인민위 교육과와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155) 통일부 통일 교육원, 2020 북한 이해(통일부 통일 교육원: 2020), p. 233.

156) 서울시교육청, 조직 기구표(검색일: 2020.12.06.)

[https://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intro/intro\\_06\\_01.html](https://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intro/intro_06_01.html)

3단계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서울시 관내 학교와 평양시 관내 학교가 자매결연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단계이다. 다만 이것은 남북의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가 많이 해소되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어 남북의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가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157)</sup>

---

157) 임선일 외, 『남북교육교류 추진 기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현안보고 2018-13, 2018), pp. 64-65.

### 3.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우리의 준비

#### 가.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우리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매일 수십 건의 북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그 속에 가짜뉴스, 오보뉴스가 뒤섞여서 청소년과 시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2020년 4월 11일 이후 20일 동안 언론에 나타나지 않자 나온 뉴스가 ‘김정은 사망설’이다. 그 외에도 음악 단원들과 음란비디오를 찍어서 총살되었다던 ‘현송월 총살설’,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숙청되었다는 ‘김영철 숙청설’, 박근혜 정부가 직접 “리영길의 종파분자이고 세도 비리로 처형”되었다고 발표한 ‘리영길 총살설’ 등은 모두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숙청되거나 총살된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북은 부활의 나라’라고 하기도 한다.

권혁률의 가짜뉴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발표문<sup>158)</sup>에 따르면 ‘학생들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구별할 자신이 있다’가 9.9%,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가 42.0%로 절반을 넘었는데 실제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 9명의 학생들은 가짜뉴스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sup>159)</sup>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북에 대한 정보를 정부, 탈북민, 언론사 등 소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교사, 청소년, 시민들이 북의 영상과 자료를 직접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이런 가짜뉴스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북에 대한 영화, 드라마, 언론 등을 서울, 시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가칭)‘서울 시교육청 북한자료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북에 대한 가짜 뉴스는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것이며 북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학교 교사와 민간 평화통일 교육 강사 같은 사람들을 회원을 등록하여 북에 대한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북과의 경제력 측면에서 50배나 더 부유하고 지난 30년간의 과정에서 북보다 남쪽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의 영화, 드라마, 언론을 시민, 청소년들이 본다고 해서 북 추종 세력이 생기고 월북하는 사람이 생겨나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권혁률 연구자가 2019년 경기도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인식과 통일 교육 현황 조사를 한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찬성(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 +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다)이 63.4%이고 잘 모르겠다가 21.0%, 반대(통일 필요하지 않다 + 통일에 반대한다)가 15.6%로 나왔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통일 찬성 비

158) 2020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조사

159) 흥사단, 서울통일 교육센터 공동 주최 토론회(2020.11.24.)에서 권혁률의 『평화통일 교육의 현황과 과제-경기도를 중심으로』, p. 27.



율이 74.2%, 중학생은 64.8%, 고등학생은 55.0%로 초>중>고 순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통일에 대한 찬성이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60)</sup>

같은 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학교 통일 교육이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자가 28.4%,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자는 41.7%로 둘을 더하면 70.1%<sup>161)</sup>로서 학교의 평화통일 교육이 학생들에게 꽤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평화·통일 이해 교육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평화·통일 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되어서 진행되어야 하고 분단체제에 대한 이해 교육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교육은 남쪽의 체제 우월성과 북 체제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지금의 평화·통일 교육은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갈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될 것이다’라는 교육보다는 현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피해와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를 배우는 교육, 탈냉전이 30년이 되었는데도 분단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 등 분단체제를 이해하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통일 교육의 수업 시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나.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육성

교류사업의 대상인 북이 우리에게서 교류 협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안보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교류 사업을 추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는 교류 사업이 10년째 중단된 상황이어서 과거에 교류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 교류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어떤 목표와 원칙을 갖고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담당자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도 함께 양성되는 것이다. 남북 교류 사업은 북이라는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알고 남북교육교류 사업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사업의 경험이 축적될 수 있다. 남북의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현실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와 담당자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남북교육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전문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 첫째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 있는 ‘남북교육 교류협력소위원회’를 확대, 강화시켜야 한다.

160) 위의 책, p. 12.

161) 위의 책, p. 14.

2019년도부터 구성된 ‘시도교육감협의회’ 안에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남북교육 교류 담당자들이 모여서 남북교육 교류 현안을 연구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소위원회’가 있다. 이 소위원회에 대북민간교류협력 전문가 집단이 같이 결합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과의 ‘서울시 남북교육 교류협력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지원청까지 일체화된 조직들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둘째는 서울시교육청 내에 남북교육 교류 담당자의 장기근속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남북교육 교류 담당 장학관이 10년 연속 근무를 함으로써 조례 제정부부터 학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남북교육교류 사업에 대한 사업 전문성을 갖추 수 있었다고 한다. 2~3년마다 순환 보직을 하는 교육청의 특성을 이해하나 남북교육 교류는 대단한 전문성과 사업의 경험, 축적이 매우 필요한 부서이다. 이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처럼 담당자가 연속근무를 할 수 있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셋째는 다자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다자협력의 대상으로는 대북 지원 민간 단체, 외국의 자매 도시, 국제기구가 있을 수 있고 위로는 중앙정부, 아래로는 지역교육청, 학교가 있다. 다자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대북 교육 교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상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다자협력 네트워크가 있지만 그래도 중심 네트워크는 북을 잘 알고 대북 교류협력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민간 대북교류협력 단체와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이다. 상시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협력 네트워크를 기본 축으로 하고 다른 다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 다. 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강한 정치적 리더십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해 8월 31일 북의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금강산 관광 반대와 국내의 반대로 김대중 정부는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갖고서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의 첫 배를 띄운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두 정상은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합의를 본다. 하지만 이때도 특히 미국의 반대가 심하여 개성공단 착공식이 늦어지고 있었다. 개성공단 조성의 필요성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한 노무현 정부는 북과의 합의대로 4년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개성공단을 조성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이 없었다면 개성공단은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이만큼 남북 교류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결심이 매우 중요하다.

2020년 남북관계는 냉각되어 있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사회 여론의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남북교육교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때 정책결정권자가 교육 교류에 대한 어떤 철학과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 교류 사업은 시작도 못 할 수 있고 계속 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정책결정권자는 남북관계가 어려워도 방법을 찾을 것이나 의지가 약하거나 교육 교류에 대한 철학이 없는 정책결정권자는 어려운 남북관계를 구실로 교육 교류 사업을 중단하거나 방치할 것이다. 교육 교류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 라.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

2000년대 남북 교류가 한창 진행될 때 항상 논쟁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피주기’ 논란이었다. 2020년 11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를 하였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3.6%이고 반대한다는 응답이 45.8%로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sup>162)</sup> 여전히 북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왔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을 만났을 때도 남북의 교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을까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2018년 4.27판문점 선언에 대한 KBS의 여론 조사를 보면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응답자 가운데 94%는 이번 4.27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성과가 컸다’는 응답이 절반이 훨씬 넘는 63%가 나왔다. 반면 ‘별로 성과가 없었다’라는 응답은 4.5%, ‘전혀 성과가 없었다’는 1.4%였다.<sup>163)</sup>

국민들의 남북 교류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전쟁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한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의 굴복을 요구하는 ‘북 붕괴론’도 실패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싫든 좋든 현재의 북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북과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해 남북의 교류에 대한 긍정적 사회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첫째 ‘남북교육 교

162) 『오마이뉴스』, “선제적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43.6% - ‘반대’ 45.8%(검색일: 2020.11.30.)

[http://m.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691803](http://m.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691803)

163) 『KBS NEWS』, 국민 94%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과 있었다”(검색일 : 2020.12.0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42525>

류 교사 연구회'를 만드는 것이다. 남북교육 교류는 궁극적으로 남의 학교와 북의 학교가 만나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 교류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남북교육교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다수의 학교가 남북교육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교육 교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데도 일정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음에는 한두 개의 남북교육 교류 교사 연구회를 시범적으로 만들다가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11개 지역교육청 안에 1개 이상의 교육 교류 교사 연구회를 내오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교사 연구회를 확대,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는 서울시 모든 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12시간 이상의 평화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모든 학교에 '평화통일 학생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다.

평화통일 교육 교육을 받은 학생과 안 받은 학생간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앞의 글에서 확인하였다. 분명히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가짜뉴스로 인한 북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서독도 동독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이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학교마다 '민주시민교육 동아리', '평화통일 동아리'를 운영하게 하였는데 2018년부터는 광주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동아리와 평화통일 동아리가 합쳐진 '민주인권평화동아리'가 학교마다 운영되고 있다.

[표 VI-1]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 의향

프로그램	참여 의향 있음	참여 의향 없음	비고
수학여행	78.6	21.4	체육활동, 수학여행, 유적지 답사 등에 관심을 보임
음악 활동	59.9	40.1	
미술 활동	60.3	39.7	
체육 활동	72.1	19.8	
유적지 답사	69.5	30.5	

\* 출처: <청소년 통일의식,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교육청도 모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동아리와 평화통일 동아리를 만들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 교육이 함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실질적인 교육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 될 때 사회적으로, 교사, 학생의 거부감을 최소화 하고 교육 교류에 학교,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북 청소년 간 교류에 대해서 참여 의향이 있느냐는 여론 조사에서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다. 그 중 제일 높은 것이 '수학여행'이다. 수학여행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에 지원금을 주었듯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북으로 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 4. 남북교육교류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가. 학생

##### 1) 코로나의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코로나 19시대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대이다. 북은 아예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전에 국경을 완전 봉쇄해서 사람들의 입출국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만남이 통일이다'라는 말처럼 남북의 학생들이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으나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기에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서도 북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차선책의 방법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서 교육 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해 본다.

##### 가) 남북학생 예술 작품 전시회

북은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에 4.27판문점 선언, 8.15광복절, 9.19평양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이 함께 기념할 만한 날에 서울, 평양 학생들의 통일과 관련된 예술작품(그림, 서예, 자수, UCC 등) 전시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다.

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북은 통일을 바라느냐'는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곤 한다. 북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북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것 같다. 2018년 남쪽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할 때 많이 나온 기사가 북측 사람들이 남쪽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남쪽의 드라마가 1주일도 안 되어서 북측 사회에 돈다고 하였다. 하지만 남쪽 사람 중에 북의 노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고 북측 드라마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아래 그림을 보면 북의 학생들도 남쪽의 또래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 방식은 남북의 예술작품만 서로 교환하고 사람은 오가지 않는 방식이다. 예술작품만 충분히 방역처리를 하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남북 학생 예술 작품 전시회를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은 대북 제재의 항목이 아니다.

[그림 VI-2] 북쪽 학생이 남쪽 학생에게 보내는 그림 편지



\* 출처 : 어린이어깨동무164)

이 전시회의 목적은 남북이 상호 적대적이지 않고 평화와 통일, 교류협력을 바라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 전시회 방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교육 동영상 콘텐츠 교류 사업

북의 자연, 문화유적지, 생태계를 남쪽의 학생들은 잘 모른다. 당연히 북쪽의 학생들도 남쪽의 자연, 문화유적지, 생태계를 잘 모를 것이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적대적 분단체제가 낳은 당연한 결과이다. 사실은 남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북이라는 전체적 이미지만 갖고 있지 그 안에 살고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 북에 대한 가짜뉴스만이 인터넷과 유튜브에 넘쳐날 뿐이다.

교육 동영상 콘텐츠 교류 사업은 남북이 비정치적이고 비 이념적이면서도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서로 교환하여 학교 수업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북의 자연과 고구려, 고려를 비롯한 북의 문화유적지,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 등의 자연 생태계 등을 담은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남은 남의 자연과 신라, 백제, 조선을 비롯한 남의 문화유적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의 자연 생태계를 담은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에는 ‘령리한 너구리’ 등 어린이 과학 만화영화(애니메이션)가 있는데 이것은 체제 선전의 내용은 거의 없고 어린이들이 과학의 원리와 필요성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 과학 애니메이션이다.

164) 『한겨레신문』, “그림으로 만난 남북 어린이, 친구야 동무야, 어깨동무하자” (검색일: 2020.12.05.)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927598.html#cb>

#### 다) 코리아 청소년 온라인 바둑대회

바둑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즐겨하는 스포츠로 북도 바둑이 학생들의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은별’이라는 지능형 바둑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준 생활상의 변화 중의 하나가 온라인 회의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상회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코리아 청소년 온라인 바둑대회’는 남북의 청소년과 해외에 있는 동포의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바둑대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단체가 주최가 되어 남과 북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재미동포 등 해외 각지에 퍼져 있는 해외 우리 동포의 청소년들도 참여하는 ‘한(조선)민족 청소년 바둑대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디아스포라(Diaspora)된 우리 한(조선)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서적 동질감을 체험하고 힘을 받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기에 후원을 함으로써 대회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라) 국제기구 또는 해외동포 단체를 통한 사업

북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구호를 들고 과학기술과 교육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정보화 처리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교육 분야의 국제기구 또는 해외 교육 단체, 해외 동포 교육 분야 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분야 관련 학술 행사에 남북이 함께 초청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 관련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처리, 교수법 등을 학술 주제로 잡을 수 있다.

### 2) 예술, 체육 분야 교류

#### 가) 경평 청소년 축구대회

‘경평 청소년 축구대회’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었던 ‘경평 축구 대회’를 청소년 축구 선수로 맞추어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원래 경평 축구의 효시도 학생 축구팀으로 진행된 친선 경기였기에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연례적으로 진행한다면 경평축구의 역사성을 되살린다는 의미도 있고 남북의 상호 이해 증진의 실리도 있다. 북도 축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커서 축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평양에 ‘평양국제축구학교’<sup>165)</sup>를 세웠다.

사실 남북의 청소년 축구 대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것이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이다. 남쪽의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의

165) 북의 ‘축구선수 후배 양성기지’로써 2013년 5월 개교해서 2017년 3월 제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4.25체육단’이 공동으로 조직한 ‘아리스포츠컵 축구 대회’는 제1회 대회가 경기도 연천에서 2014년 11월에, 제2회 대회는 2015년 8월 평양에서, 제3회 대회는 2017년 12월 중국 쿤밍에서, 제4회 대회는 2018년 8월 평양에서, 제5회 대회는 2018년 10월 춘천에서, 제6차 대회는 2019년 11월 쿤밍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 남쪽의 강원도 학생, 경기도 연천 학생, 인천 학생들이 출전하였다.<sup>166)</sup>

역대 남북의 통일축구 사례를 보면 탈냉전의 분위기를 타고서 남북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1990년 10월 ‘남북통일 축구경기’가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로 1999년, 2005년 2007년, 2015년, 2018년에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가장 많이 열렸다. 2002년과 2005년에는 ‘남북통일 축구대회’가 열렸다. 남북의 통일축구 대회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될 때 남북이 진행하는 첫 사업으로 많이 열렸다. 아마도 축구가 비정치적이고 비 이념적이면서도 대중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평 청소년 축구대회’는 역사적 측면, 경험적 측면, 남북의 민감성 측면에서 볼 때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경평 청소년 축구대회를 통해 남북의 신뢰가 쌓인다면 서울, 평양의 각 운동 종목별(탁구, 배구, 농구, 핸드볼 등) 청소년 대회로 확대할 수 있다.

#### ● 경평축구

경평축구는 1929년 10월 8일 당시 경성중학이 주축이 된 경성팀과 송실학교가 주축이 된 평양팀이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가진 친선 경기부터 시작되었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조선일보사>의 사정과 대규모 군중 동원을 막아나선 일제의 압력으로 경평전은 2년 동안 중단됐다가, 1933년 다시 재개됐다.

이 대회부터 당시 조선축구협회 주관으로 봄에는 경성팀이, 가을에는 평양팀이 주최하는 홈 앤드 어웨이(Home and Away)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고, 대회 명칭도 ‘경성·평양 대항 정기 축구전’으로 변경됐다.

이후 38선이 생기고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경평전은 1946년 서울에서의 경기를 끝으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이후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로 재개되었다가 당시 중단된 후 2002년 월드컵이 끝난 그 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재개된 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이후 여러번 경평축구의 부활 움직임은 있었으나 남북관계의 경색의 영향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sup>167)</sup>

166) 김경성, 『스포츠교류를 통해 본 민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 토론회, 2018), pp. 32~33.



#### 나) 서울-평양 학생 예술단 공연

남북 예술단 공연은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으로 처음 진행되었다. 1990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과로 1990년 10월과 12월에, 민간 차원으로는 최초로 예술단 교류가 이루어진다.<sup>168)</sup> 2000년 6·15선언이 발표된 후에는 KBS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합동 공연, 재일 총련 소속 ‘금강산가극단’의 서울과 부산공연, 2001년 2월 1일 남원시립창극단의 창무극 ‘춘향전’ 등 남북 예술단 공연이 대폭 확장되었다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남북 예술단 공연은 중단되었다.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서울과 평양의 학생들이 예술단 공연을 서울에서도 하고 평양에서도 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 다) 한강, 대동강 도하 수영 대회

남쪽도 생존수영 등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가르치고 북도 소학교 1학년 때부터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해마다 7,8월이 되면 학교별로 선수를 뽑아서 대동강 도하 수영 대회를 진행한다.

[그림 VI-3] 평양 학생들의 대동강 도하 수영대회



\* 출처: KBS 남북의 창 [요즘 북한은] 대동강 단체 수영...5백여 명 '도하' 외<sup>169)</sup>

서울의 청소년과 평양의 청소년이 한강과 대동강을 번갈아 가며 도하를 하는 수영대회를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업이 성사된다면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할 수 있

167) 『통일뉴스』, 원혜영, '10.4 경평축구대회' 제안(검색일: 2020.12.0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46>

168) 『통일부 블로그』, “남북 예술단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검색: 2020.12.0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1369641007&parentCategoryNo=&categoryNo=25&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169) 『줌 뉴스』, “[요즘 북한은] 대동강 단체 수영...5백여 명 '도하' 외”(검색일: 2020.12.05)

<https://m.news.zum.com/articles/54717039>

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라) 수학여행 또는 체험학습 교류

수학여행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 적이 있다. 서독도 동독으로 학급별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적극 장려했으며 수학여행 경비의 일부를 서독 정부가 지원한 바가 있다. 동서독의 교육 교류에서 가장 많은 인적 교류를 차지하는 것이 75%인 수학여행이다.<sup>170)</sup>

수학여행을 통해 동독인들을 만나본 학생들은 동독이 외국이라는 느낌이 적어지고 동독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동독을 방문하기 전에는 동독을 외국이라고 생각한 서독 학생들이 60%였는데 방문 후에는 30%로 변하였다. 또 어떤 학생은 “동독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sup>171)</sup>

수학여행이 가진 특징은 남쪽의 대규모의 학생들이 수시로 북을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추진하기 어렵고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교류협력이 활발할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

수학여행지로는 평양, 백두산,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을 뽑을 수 있다. 물론 반대로 평양의 학생들이 남쪽으로 수학여행을 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의 인적교류를 보면 남에서 북으로 간 사람에 비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은 매우 적다. 독일의 경우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학생들보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간 학생은 매우 적다.

따라서 무리하게 북의 학생들이 남으로 수학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오게 하기 보다는 남의 학생들이 학급별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는 하는 것이 좋겠다.

마) 공동의 역사 분야 교류

남과 북은 5천년을 함께 살아왔고 70년을 분단되어 살고 있다. 당연히 같은 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이 갖고 있는 공동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좋겠다.

남북이 공동의 역사 분야 교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은 옛 나라들의 수도를 탐방하는 것이다. 고구려와 고려의 수도는 북에 있고 조선과 신라, 백제의 수도는 남에 있다. 옛 나라들의 수도를 남북의 학생들이 함께 방문하고 그 시대의 역사유물을 함께 탐방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발 더 나간다면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를 남북의

170) 김상무, 『동·서독 교육계의 교류와 협력 경험이 남한의 대북 교육 교류와 협력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제24권 제2호, 2008), p. 78.

171) 위의 논문, p. 81.

학생들이 함께 돌아보는 교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남북이 공동의 역사 분야 교류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업은 일제 식민지에 대한 공동 행동이다.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정 등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남북의 청소년들이 그림 전시회, 글짓기 대회(시, 산문, 편지 등),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남북 청소년 성명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남북이 공동의 역사 분야 교류를 할 수 있는 세 번째 사업은 항일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억 사업이다. 분단은 해방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일제 강점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노력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남북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동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의 생가를 방문할 수도 있고, 양세봉 사령관, 김좌진 장군 등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거나 그들의 발자취가 있는 현장을 방문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나. 교사

남북교육교류의 중심은 남북 학생들이다. 남북 학생들이 교육 교류를 하면 당연히 교사는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교육 교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다. 학생들의 교육 교류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과정 자체가 교사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여기에 덧붙여 남북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한다.

교사 교육 교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첫 번째는 남북 교사 상봉 모임이다.

2003년 8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과 민족교육 발전을 위한 남북교직원 상봉 모임’때 남북의 교사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다. 그 이후 2004년 7월 18일~20일 금강산에서 남의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북의 ‘교육문화직업동맹’(이하 교직동)이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 대회’를 진행하였다. 2018년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 한국교총 대표단이 참석하여 북측 대표단과 회담을 하였다.<sup>172)</sup>

남북 교사 상봉 모임을 통해 상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교육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다. 평양 교원대학은 3D 화상 입력장치와 3D 인쇄기, 전자철판 등 첨단교육설비들도 갖추고 있어 북이 외부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교육 예측 기술을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자랑하는 곳이 평양 교원 대학이다.<sup>173)</sup>

172) 정영철 외,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과제도출 및 지원 방안』(교육부: 2018), pp. 19~23.

교사 교육 교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두 번째는 교수법 교류이다.

남북 교사들의 상봉 모임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다면 다음 수준으로 남북의 교수법 관련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북은 과학기술과 컴퓨터 교육, 세계적 수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교수법 교류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관심사인 교육 방법에 대해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다. 초중고 학급별 교사들의 교수법으로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와 같은 남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와 예술학교인 금성학원, 평양국제축구학교, 평양제1중학교, 평양 기술고급중학교 같은 북의 특수학교 교사들이 특성화된 분야의 기술 교류, 교육방법을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다.

교사 교육 교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세 번째는 계기별 공동 수업안 개발이다.

이것은 남북 교사 간 교류가 충분히 진행되고 성과가 나서 서로간의 이해가 높아졌을 때 가능한 사업이다. 3.1절, 4.27선언, 6.15공동선언, 8.15광복절 등 특정한 계기에 맞추어 통일관련 공동 교안을 개발하여 기념일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한다는 차원에서 동시다발로 남과 북의 각자의 지역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방식이다.

이외에도 학교 폭력 해결 방법, 성교육과 관련한 교사 교육 교류, 예비 교사 교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다. 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청과 시의회의 역할 첫 번째는 남북교육교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한다.

교육 교류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북이라는 상대와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남북의 교류가 중단된 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사업축적이 너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남북 교류에 대한 여론이 나누어져 있는 남쪽의 상황에서 정치, 군사적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덜 영향을 받으면서 교육 교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시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교육청의 의지와 의회의 지원이 없이는 교육 교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따라서 남북교육교류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와 남북 간의 오해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의회가 사회여론으로부터의 보호막이 되어 주는 동시에 교사, 학생들이 맘 놓고 교육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교육청과 시의회의 역할 두 번째는 평화지향적인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 교

---

173) 위의 논문, p. 145.

육지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 교육지원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2조(정의) 1항에서는 “통일 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간의 체제 경쟁도 끝났고 북 붕괴론도 실패했다. 이제는 평화의 관점에서 북을 바라보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돌려세우려는 평화의 한 주체로 북을 바라봐야 한다. 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평화·통일 교육’을 해야 한다.

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편입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북과의 원만한 교육 교류가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북의 강한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년 전의 시각으로 변화된 현재의 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통일 교육에 대한 개념을 평화지향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서 통일 교육지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교육지원법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 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 교육을 하였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내용은 강제 조항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동시에 교사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 실제로 교사들이 통일 교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토로하는 것 중의 하나가 “평화·통일 교육이 이념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43.6%)이다.<sup>174)</sup> 교사들이 맘 놓고 평화·통일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려면 11조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시의회의 역할 세 번째는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북의 원격 교육 기술 지원, 정보화 교육을 위한 기자재 지원, 교육 관련 DB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기자재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이 참여하는 국제 교육 학술행사를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거나 유치하는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

174) 통일부, 교육부, 『2019 학교 통일 교육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통일부, 교육부: 2019), p. 36.

## 〈 참고 문헌 〉

### ■ 단행본

- 길은배,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이행 실태 분석』,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pp. 6-34, 2019
- 길은배,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이행 실태 분석:1990년대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형성기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Vol. 7, No3, pp. 185-204
- 김경성, 『스포츠교류를 통해 본 민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정책 토론회, pp. 25-39, 2018
- 김상무, 『동·서독 교육계의 교류와 협력 경험이 남한의 대북 교육 교류와 협력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제24권 제2호 pp. 74-90, 2008
- 김상무, 『독일통일과 교육 분야 지원·교류·협력』, 한국교육개발원, 2019
- 김상무, 『통일독일의 분단사 및 분단사교육 논의가 한국의 분단사교육에 주는 시사점』, 교육과학연구, 제42집 제3호, pp. 1-23, 2011
- 김상무, 『통일독일의 동독연구가 남한의 통일 교육에 주는 시사점』, 교육비평 제20호, pp. 215-241, 2006
- 김상무, 『1989~1990년 동·서독 교육통합 과정에 관한 연구-초·중등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 18, No. 2, pp. 1-22, 2013
- 김석진·홍제환,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2016
-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5
- 김진숙,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교과교육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호 pp. 23-43, 2017
-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KDI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호 pp. 3-16, 2016
- 김창근, 『개발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 윤리연구 제87호, 2013
- 김창환, 『독일의 통일 교육과 정책적 시사점』, 통일부, 2016
- 김창환 외, 『남북 청소년 교류 추진 방향 연구』, 한반도평화연구원, 2013
- 권혁률, 『평화통일 교육의 현황과 과제-경기도를 중심으로』, 흥사단, 서울통일 교육센터 토론회, pp. 11-31, 2020
- 박성희,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연구』, 통일원 교육홍보국, 1993
- 박정원,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대북지원 20년 백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
- 성장환,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간 교류』, 대구교육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 신효숙, 『남북한 교육인적지원 교류협력 추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7
- 윤종혁, 『통일 시대에 대비한 북한 교육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 윤종혁 외, 『북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6
- 이옥환, 『남북학술교류 경과 및 방향: 시대적 흐름 속에 이어온 남북학술교류가 나아갈 길』, 과학과 기술, pp. 30-35, 2015
- 임선일 외, 『남북교육교류 추진 기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8
- 전교조통일위원회, 『남북해외교육 교류백서 1989~2020』, 전교조, 2020
- 전진석, 『독일 통일 이후 학교교육통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8학년도 정책연구보고서』, 전자자료, 2018
- 정경석, 『독일통일정책과 남북청소년교류협력방안』, 월간북한, pp. 46-54, 2014
- 정영철 외,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과제 도출 및 지원 방안』, 교육부, 2018
- 정필운, 『통일 교육지원법』의 현황과 과제.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0
- 조한범,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한운석, 『동·서독간의 인적 교류와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역사교육, 제 83집, pp. 203-233, 2009.
- 함병수 외,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홍석훈 외, 『남북한 인도협력과 방안과 과제: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통일연구원, 2019
-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16 통일 교육 분야 관련 정책보고서』, 통일부, 2016
- 통일부 통일 교육원, 『2020 북한 이해』, 2020
- 통일부, 교육부, 『2019 학교 통일 교육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019
-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과정 연구 93-V』, 통일원, 1993
- 통일원, 『동·서독교류협력관계법규자료집, 독일 문화협정』, 통일원교류협력국, 1994
- 한국관광공사, 『2006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시즌별 보고서』, 2006
- 한국관광공사, 『2008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08

## ■ 학술논문

- 길은배,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사회결합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김동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과 전망-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영란, 『남북 사회문화교류 변화 요인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오용호,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대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 조영승, 『남북화해와 협력에 있어서 남북한청소년교류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44집 제1호, pp. 285-307, 2000
-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과정』,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2015
- 조정신, 『동서독 사례분석 통한 남북경제협력 기대효과』,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차재훈,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최용식, 『남북한관광교류협력과 국민통일의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금강산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경개대학교통일안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황교욱, 『지방의 남북교류협력 변화과정 연구』, 인제대학교대학원 통일학 박사학위논문, 2015

## ■ 기타

- 국어국립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보리 국어사전』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  
『천재학습대백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 201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 2020년 7월 10일 담화  
노동신문, 2019.2.6.  
노동신문, 2019.3.11.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연설, 2020  
대한민국 교육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199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북 교육위원회, 2012년 10월 2일자 교육신문』



북 교육위원회, 2014년 5월 8일자 『교육신문』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전교조. 한국교총 보도자료, 2004.7.2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013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 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19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2019  
 통일 교육원, 『2020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 교육원, 2020  
 통일 교육지원법, 2018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009  
 9.19 평양공동선언, 2018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2019  
 강원대뉴스, “강원대학교-평양과학기술대학교 『남북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검색일: 2020.11.30)  
<https://blog.naver.com/knusns/221346905551>  
 국제뉴스, “전유택 평양과기대 총장 경북대 방문, 교류 협력 활성화 논의”(검색일: 2020.11.30)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200>  
 노컷뉴스, “금강산 수학여행’은 살아있는 통일 교육”(검색일: 2020.12.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011190>  
 뉴스웨어, “2011 인천평화컵(U-13)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검색일: 2020.12.04)  
<http://www.newsshare.co.kr/5196>  
 뉴스원뉴스, “서울시립대, 평양과기대와 학술교류 업무협약 체결”(검색일: 2020.11.30)  
<https://www.newsl.kr/articles/?3405393>  
 매일경제, “북한 김책공대 학생,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서 나란히 1·2위”(검색일: 2020.11.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6/603899/>  
 베스트일레븐,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대회 개최… 北 선수단 80명 온다”(검색일: 2020.12.4.)  
[https://www.besteleven.com/Country/news\\_01\\_view.asp?iBoard=55&iIDX=114059](https://www.besteleven.com/Country/news_01_view.asp?iBoard=55&iIDX=114059).  
 변학문, 북한의 기술특성화고교 ‘기술고급중학교’등장(검색일: 2020.12.06.)  
[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record\\_](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record_)

[no=336](#)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서울시 학교 현황(검색일:2020.11.15.)

세계일보, “남북대학생 통일 열띤 토론/ 「세계대학생 평화세미나」 북경서 개막”(검색일: 2020.12.02)

<https://blog.naver.com/manyoungj/41032637>

세계일보, “삼육대,북한 평양과기대와 MOU 체결”(검색일: 2020.21.01)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11000573>

송실뉴스, “수원대, 평양과학기술대학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검색일: 2020.11.30)

<https://blog.naver.com/soongsill897/221735833746>

시사저널. 이영종 기자(검색일: 2020.11.30.)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298>

약대뉴스, “서울대 약대-평양과학기술대 간 남북협력 논의”(검색일: 2020.12.01)

[https://snupharm.snu.ac.kr/ko/board/ad\\_pds/view/9251](https://snupharm.snu.ac.kr/ko/board/ad_pds/view/9251)

어린이어깨동무 홈페이지,(검색일: 2020.11.30.)

[https://www.okfriend.org/nstgether\\_1](https://www.okfriend.org/nstgether_1)

연합뉴스, “전국대, 평양과기대와 농·축산 학술교류 MOU 체결”(검색일:2020.12.07)

<https://blog.naver.com/newsyonhap/221375285668>

연합뉴스, “북한 축산부국 가능성’ 발표하는 심정석 평양과기대 교수”(검색일: 2020.12.01.)

<https://www.yna.co.kr/view/PYH20150303137700013?input=1196m>

연합뉴스TV, “남북 학술교류도 ‘물꼬’...평양과기대·전남대 협약”(검색일: 2020.12.01)

<https://tv.naver.com/v/3366662>

오마이뉴스, 선제적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43.6% - “반대” 45.8%(검색일: 2020.11.30)

[http://m.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691803](http://m.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691803)

조선에듀, “수원대, 평양과학기술대학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검색일: 2020.11.30)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1437.html](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1437.html)

줌 뉴스, [요즘 북한은] 대동강 단체 수영...5백여 명 ‘도하’ 외(검색일: 2020.12.5)

<https://m.news.zum.com/articles/54717039>

통일뉴스, 원혜영, '10.4 경평축구대회' 제안(검색일: 2020.12.0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46>  
 통일부 블로그, 남북 예술단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검색일: 2020,12,0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1369641007&parentCategoryNo=&categoryNo=25&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한겨레신문, 그림으로 만난 남북 어린이 ..., “친구야 동무야, 어깨동무하자”(검색일자: 2020.12.05)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927598.html#cb>  
 한국고등교육재단, “두만강학술포럼 2009 개최”(검색일: 2020.12.01)  
<http://www.kfas.or.kr/News/News0302.aspx?msgID=350#sthash.RiyyYZXb.dpbs>  
 한국일보, 사람 사는 도시, 평양의 色(검색일: 2020,12,0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261566353377>  
 환경일보, “인천평화컵 국제 여자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검색일:2020.12.04.)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3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2020년 10월 기준(검색일: 2020.11.30)  
<http://27.101.213.4/>  
 KBS NEWS, 국민 94%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과 있었다”(검색일: 2020.12.0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42525>  
 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검색일: 2020.11.30)  
<http://ksm.or.kr> 홈페이지 자료실  
 VOA, 세계 인구의 날, 미 통계국 “북한 인구 2천550만명”(검색일: 2020.11.29)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4996680>  
 YTN, “울산과학기술원·평양과학기술대 공동연구 협약 체결”(검색일:2020.11.30)  
[https://www.ytn.co.kr/\\_ln/0115\\_201811281625556021](https://www.ytn.co.kr/_ln/0115_201811281625556021) 참조.

(판권지)

## 서울시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제안단체 : 서울특별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입법담당관)

연구기관 : (사)희망래일

책임연구 : 유동걸

연 락 처 : 02-323-5778

관리번호 : 의연단20-37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며,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할 수 있음)